

연구보고서 2017-12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조성호 · 菅 桂太(스가 케이타) · 渡邊 雄一(와타나베 유이치)
四方 理人(시카타 마사토) · 김유경 · 김지민

【책임연구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스가 케이타(菅 桂太)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

와타나베 유리치(渡邊 雄一) IDE-JETRO 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시카타 마사토(四方 理人) 관서학원대학 부교수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2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조 성 호

발행인 김 상 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가 격 9,000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좀처럼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고 도중에 삐끗거리고 있다. N포세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취업 9종세트 등등 현재 청년들의 삶을 냉소적으로 비유하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은 소득 안정성을 찾아 대기업을 찾고, 비교적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이 좋은 공공기관 취업, 그리고 공무원시험, 고시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첫 단추를 끼울 수 없으면 두 번째 단추를 끼운다 한들 정상이 될 수 없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다면 그 이후의 인생 또한 불안정하게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가족형성(이성교제, 결혼)도 힘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취업 등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 또한 가족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가족 형성의 일부라고 가정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성교제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소외되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가를 포함한 경제적 자립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성호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원외 일본인 공동 연구진인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스가 케이타(菅 桂太) 박사, 일본 아시아 경제 연구소(アジア経済研究所)의

와타나베 유이치(渡邊 雄一) 박사, 일본 관서학원대학(関西学院大学)의 시카타 마사토(四方 理人) 부교수, 원내 공동 연구진인 김유경 연구위원, 김지민 연구원이 힘을 모아 집필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문을 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경 연구위원, 원내 김문길 부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게 살고 있는 중에 본 연구의 심층 면접을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 주신 한국과 일본 32명의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연구에는 이들의 땀과 눈물도 들어가 있다. 이들 덕분에 본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양국 모든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要約	3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청년층의 정의	25
제2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연구 고찰	33
제3절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48
 제3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현황	51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 담론 및 세대 변화	54
제2절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활동 현황	58
제3절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가족형성 현황	75
제4절 소결	95
 제4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99
제1절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	101
제2절 경제적 자립과 결혼	127

제3절 소결	173
제5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181
제1절 심층 면접의 개요	183
제2절 심층 면접 분석	186
제3절 소결	213
제6장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정책 현황	217
제1절 한국의 정책 현황	219
제2절 일본의 정책 현황	247
제3절 소결	268
제7장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271
제1절 분석 결과	273
제2절 정책 제언	277
참고문헌	293
부록	307

표 목차

〈표 2-1〉 기존 청년관련 법안과 20대 국회 청년 관련 입법 발의 내용	30
〈표 3-2- 1〉 한국 미혼 남성의 취업 상황	65
〈표 3-2- 2〉 일본 미혼 남성의 취업 상황	66
〈표 3-2- 3〉 한국 미혼 여성의 취업 상황	68
〈표 3-2- 4〉 일본 미혼 여성의 취업 상황	69
〈표 3-2- 5〉 유효구인배율 추이: 2016년 1월~2017년 11월	73
〈표 3-3- 1〉 한일 청년 남성의 결혼의향	82
〈표 3-3- 2〉 한일 청년 여성의 결혼의향	83
〈표 3-3- 3〉 한일 청년 남성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	84
〈표 3-3- 4〉 한일 청년여성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	84
〈표 4-1- 1〉 응답자 특성: 남성	106
〈표 4-1- 2〉 응답자 특성: 여성	107
〈표 4-1- 3〉 이성교제비율: 남성	108
〈표 4-1- 4〉 이성교제비율: 여성	109
〈표 4-1- 5〉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09
〈표 4-1- 6〉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09
〈표 4-1- 7〉 학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0
〈표 4-1- 8〉 학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0
〈표 4-1- 9〉 취업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1
〈표 4-1-10〉 취업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1
〈표 4-1-11〉 직종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1
〈표 4-1-12〉 직종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2
〈표 4-1-1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2
〈표 4-1-1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2
〈표 4-1-15〉 기업규모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3

〈표 4-1-16〉 기업규모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3
〈표 4-1-17〉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4
〈표 4-1-18〉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4
〈표 4-1-19〉 소득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5
〈표 4-1-20〉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115
〈표 4-1-21〉 결혼의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5
〈표 4-1-22〉 결혼의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116
〈표 4-1-23〉 회귀분석 결과: 한국 남성	123
〈표 4-1-24〉 회귀분석 결과: 한국 여성	124
〈표 4-1-25〉 회귀분석 결과: 일본 남성	125
〈표 4-1-26〉 회귀분석 결과: 일본 여성	126
〈표 4-2- 1〉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 거주지역별 분석 대상 수와 비율(%) ...	139
〈표 4-2- 2〉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미혼자 비율(%)	140
〈표 4-2- 3〉 남녀별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별, 유소년기 거주지역별 (기혼자의) 초혼연령 ...	142
〈표 4-2- 4〉 미혼 인년과 평균미혼기간 및 평균국미혼기간의 차이 t검정: a)15세 기점 ...	150
〈표 4-2- 5〉 미혼 인년과 평균미혼기간 및 평균국미혼기간의 차이 t검정: b)졸업 기점 ...	151
〈표 4-2- 6〉 초혼 해저드에 대한 연속시간분석: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	156
〈표 4-2- 7〉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비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	158
〈표 4-2- 8〉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비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로 예측한 초혼 해저드	162
〈표 4-2- 9〉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	163
〈표 4-2-10〉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로 예측한 초혼 해저드	166
〈표 5-1〉 한국 청년 면접 대상자 명단	185
〈표 5-2〉 일본 청년 면접 대상자 명단	186
〈표 6-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추진방향	220
〈표 6-2〉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 질 제고 추진계획	222
〈표 6-3〉 주된 일자리로서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추진계획	222

〈표 6-4〉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제고 추진계획	223
〈표 6-5〉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224
〈표 6-6〉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추진계획	225
〈표 6-7〉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226
〈표 6-8〉 청년 주거 지원 제도	227
〈표 6-9〉 임대주택 사업 비교	228
〈표 6-10〉 행복주택 대상(청년층 공급물량 부분)	229
〈표 6-11〉 전세임대주택 대상 (청년전세임대주택)	230
〈표 6-12〉 공공기숙사 대상	231
〈표 6-13〉 청년·예비부부 및 학생부부 대상 주거 지원 추진계획	232
〈표 6-14〉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대상 및 특화내용	233
〈표 6-15〉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추진계획	234
〈표 6-16〉 유스 엘 인정기업 인정기준	262
〈표 7-1〉 OECD국가의 GDP 대비 주거 보조금 지출 비율: 2015년	285
〈부표 1〉 남녀·연령(출생코호트)별 분석을 위한 표본선택 기준별 2007년 조사 완료자 수와 비율(%): 한국 YP	314
〈부표 2〉 2007년 조사 시점 연령(출생코호트)별 조사연차별 2007년 조사 시점의 분석 대상자 및 패널 탈락이 없는 자의 수와 비율(%): 한국 YP	317
〈부표 3〉 남성의 2007년 조사 시점 연령(출생코호트)별 조사연차별 다음연도 조사까지 처음 패널 탈락하는 자의 수와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인 자의 수: 한국 YP ...	319
〈부표 4〉 남녀·출생 코호트별 및 조사 코호트별 일본 분석 대상자 수: 일본 JGGS	323
〈부표 5〉 남녀·조사 시점 연령별 조사 코호트별 분석 대상자 수: 일본 JGGS	324
〈부표 6〉 남녀·출생코호트별 2004년 조사 완료자 수와 분석 대상자 및 비율(%): 일본 JGGS	325
〈부표 7〉 남녀·2004년 조사 시점 연령별 2004년 조사 완료자 수와 분석 대상자 및 비율(%): 일본 JGGS	326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의 분석틀	17
[그림 2-1] 청년관련 국내 법률, 정책 및 국제통계 연령 기준	33
[그림 3-2- 1] 한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0
[그림 3-2- 2] 한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0
[그림 3-2- 3] 한일 남성의 실업률(%)	61
[그림 3-2- 4] 한일 여성의 실업률(%)	61
[그림 3-2- 5] 한일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63
[그림 3-2- 6] 한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63
[그림 3-3- 1] 한국 남성의 유배우율(%)	76
[그림 3-3- 2] 일본 남성의 유배우율(%)	76
[그림 3-3- 3] 한국 여성의 유배우율(%)	77
[그림 3-3- 4]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	77
[그림 3-3- 5] 한국 남성의 미혼율(%)	79
[그림 3-3- 6] 일본 남성의 미혼율(%)	79
[그림 3-3- 7] 한국 여성의 미혼율(%)	80
[그림 3-3- 8] 일본 여성의 미혼율(%)	80
[그림 3-3- 9]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변화(세)	81
[그림 3-3-10] 한국 미혼 남성의 1인 가구 비율(%)	87
[그림 3-3-11] 일본 미혼 남성의 1인 가구 비율(%)	87
[그림 3-3-12] 한국 미혼 여성의 1인 가구 비율(%)	88
[그림 3-3-13] 일본 미혼 여성의 1인 가구 비율	88
[그림 3-3-14] 한국 미혼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90
[그림 3-3-15] 일본 미혼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90
[그림 3-3-16] 한국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	91
[그림 3-3-17] 일본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	91
[그림 3-3-18] 15-1 한국 남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93

[그림 3-3-19] 15-2 한국 여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93
[그림 3-3-20] 일본 남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94
[그림 3-3-21] 일본 여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94
[그림 4-2- 1] 15세부터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별 누적 초혼 해저드 ..	144
[그림 4-2- 2]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누적 초혼 해저드	145
[그림 4-2- 3]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본 최종학력별, 누적 초혼 해저드	147
[그림 4-2- 4]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별 누적 초혼 해저드 ..	148
[그림 4-2- 5] 미혼인년과 평균 미혼기간 및 평균 미혼기간 차이에 대한 초혼 해저드 ..	154
[그림 4-2- 6] 20대 가족형태 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168
[그림 4-2- 7] 30대 가족형태 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169
[그림 4-2- 8] 40대 가족형태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170
[그림 4-2- 9] 20대 가족형태 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171
[그림 4-2-10] 30대 가족형태 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172
[그림 4-2-11] 40대 가족형태 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173
[그림 5-1] 면접조사의 분석틀	185
[그림 6-1] 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241
[그림 6-2] 공공직업 훈련의 개요	253
[그림 6-3] 직업 카드 제도의 개요	254
[그림 6-4] 유스 옐 인정 마크	264
[그림 6-5] 청년 무직자 지원(헬로 워크)의 개요	267
[그림 7-1]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274

Abstract <<

Economic Self-reliance and Family Formation of Youth in Korea and Japan

Project Head · Cho, Sungho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background that the time of residence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is delayed recently and this will be a factor that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family form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related to the first marriage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One difference, however, wa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dependence and marriage was stronger in Korea than in Japan. In other words, this indicates that the stability of the first job is important in both countries, but more important in Korea, suggesting that the direction of youth policy should focus on the quality of jobs. The fact that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iming of the first marriage means that the valid policies in Japan are valid in Korea and the policies that are valid in Korea are likely to be valid in Japan.

Therefore, we can positively examine introducing policies that are effective in Japan in Korea. The policy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divided into economic independence stage and

2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family formation stage. At the stage of economic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to expand stable jobs that young people can choose from. In the family form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benefits for family formation.

若者の経済的な自立と家族形成に関する韓日比較分析

主任研究者：曹 成虎

近年、若者の住居の独立や経済的な自立は、全世界的にみて以前よりも遅れている。本研究は、そうした遅延が彼らの家族形成（異性交際、結婚）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要因であるという背景のもと実施された。分析の結果、初婚のメカニズムにおいて両国に類似点が見出せるものの、異なる部分もある。それは経済的な自立と家族形成の関係が日本より韓国の方でかなり強いことである。つまり、分析から明らかなように初職の安定が両国において重要なことではあるが、韓国の方がより重要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この結果は、青年向けの政策が仕事の質に焦点を当てる必要が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そして、初婚タイミングを決定するメカニズムに類似性があることは、日本で有効な政策は韓国にも有効であり、逆に韓国で有効な政策は日本にも有効である可能性が高い。したがって、今後日本で有効な政策は韓国で導入することも検討できると考えられる。

本研究での政策提言は、経済的に自立をする段階と家族形成の段階に分けて行った。具体的には、経済的な自立段階ではまず大企業と中小企業の賃金格差や福利厚生等の処遇を改善し、若者が選択できる仕事の幅を拡大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一方、家族形成の段階では、何よりも家族形成に対する便益を向上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서 청년기라는 단계는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고, 오래 거쳐야 하는 단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음 단계 이행의 지연(delay)은 가족형성(이성교제,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 주기 단계 이행 중 가족형성, 그중에서도 결혼과 그동안 정책 연구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이성교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인 이행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족형성까지 확장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성이라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은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노동시장 이행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분가라는 이벤트를 경제적 자립에 포함시킨 것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먼저 경험한 것들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주요 연구결과

이성교제의 경우,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경제적 자립이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성에게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에게서 분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성교제를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심층면접분석에서 한국 남성은 분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와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다가 소득구조의 분석에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남성의 경우는 직업 안정성 등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동거가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양국의 초혼시기 결정 기제에서 유사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1)한일 양국에서 첫 취직은 초혼 해저드를 크게 증가시키며(초혼시기를 앞당기며), 취업이 남성 초혼시기에 끼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5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1%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여성에게는 종사상 지위가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졸업 및 중퇴부터의 경과시간을 보면 한일 남성의 진학분가는 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분가 후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4)졸업 후 경과시간을 보면, 대학 졸업은 한일남녀의 초혼시기를 앞당기지만 이 영향은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비대도시출신으로 진학분가한 경우의 초혼

시기가 빠르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 출신으로 취직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었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초혼기제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경제적 자립과 결혼 간의 관계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었다. 즉 본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생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이 양국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나 한국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초혼시기를 결정짓는 기제에 양국 간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유효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며, 역으로 한국에서 유효한 정책은 일본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은 한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은 경제적 자립 단계와 가족형성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경제적 자립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들이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센터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형성 단계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및 가족 형성 촉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형성에 대한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 노동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지표인 유효구인배율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구직자만이 아닌 구인자(기업)의 의향이 반영된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청년 통계가 더욱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경제적 자립, 가족형성, 한국, 일본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간은 태어난 이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성장을 하지만, 정신적 또는 사회발달학적으로는 그 시기에 거쳐야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거나,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연령대를 지나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생애 주기를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단계로 본다면, 청년기라는 단계는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Cordón, 1997; Hartmann & Swartz, 2007; Shanahan, 2000; Sironi & Furstenberg, 2012).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며(Bell et al., 2007; Cobb-Clark, 2008; Goldscheider & DaVanzo, 1986; Whittington & Peters, 1996),¹⁾ 오래 거쳐야 하는 단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늦

1) 근대 이전인 19세기 무렵의 독일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즉 청년기에 진입하기 전의 기간을 여행기간(Wanderschaft)이라고 해서 성인기에 진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영국에서도 귀족 계층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때(Arnett, 2006, p. 4), 시대에 따라 그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하던 시대와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이 주류가 된 시대를 비교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취업이 늦어지게 될 것이다.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 결혼이 늦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²⁾

특히 다음 단계 이행의 지연(delay)은 가족형성(이성교제,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임연령은 15~49세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어 출산 가능 기간이 감소한다. 또한, 늦은 결혼으로 인하여 난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령 출산은 자연유산의 확률을 증가시킨다(김동식 등, 2013, p. 60).³⁾ 이뿐만 아니라 고령출산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여 무자녀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결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늦게 결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81년 남성 40.2%, 여성 28.4%에서, 2008년 남성 84.0%, 여성 83.5%로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왔고(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017년 4월의 청년 실업률은 11.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7. 4.). 또한 초혼연령은 1990년 남성이 27.8세, 여성이 24.8세였으나, 2016년은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약 30

2) 물론 이러한 단계는 고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 졸업 이후 취업과 결혼으로 이행하거나, 졸업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후에 혼인으로 이행한다(이승렬, 2015, p. 88).

3) 그러나 적극적인 산전·산후 관리가 동반된다면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김동식 등, 2013; 최재호 등, 2006; 허혁 등, 2004).

4) 물론 이 경우는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Becker(1991)에서는 20살에 결혼하여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11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여 년 동안 각각 5.0세, 5.3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이러한 지표는 생애 주기 단계 이행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시사한다. 그와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신조어들, 예를 들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3종 세트도 모자라 5, 7, 9종 세트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구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 생애 주기에서 다음 단계 이행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 세대에서는 이러한 단계 이행을 큰 어려움 없이 경험해 왔는데 반하여, 최근의 청년 세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 주기 단계 이행 중 가족형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인 이행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족형성까지 확장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립(노동 시장 이행 및 분가)이 가족형성에 있어서 충분조건인지, 다시 말하면 가족형성이라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행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은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노동시장 이행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분가라는 이벤트를 경제적 자립에 포함시킨 측면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형성의 결과, 소득 구조에 어떠한 변

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가족형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한 나라의 특성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게 되면, 한 나라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그 의미도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의 국가들의 기저에 깔린 공통점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것(comparable)이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 혈연 중심의 국가이며, 유교적인 밑바탕이 깔린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업화 이후에는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며, 가정 내의 분업 구조 또한 유사하다. 물론 일본이 쇄국정책을 내건 우리나라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성장 시기 및 격차의 갭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제도 및 문화에 큰 차이를 보여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비하면 이러한 성장 격차는 시간적인 조정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며 비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적 유사점만으로 양국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적 유사성이 단지 비교를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먼저 경험한 것들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타쿠, 건어물녀, 초식남, 지방소멸 등의 단어는 모두 일본에서 파생된 것들이며,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것들이다. 즉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

라는 일본과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인식 자체도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이 경험한 것을 한국이 몇 년 후에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비교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분석하여 양국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가족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청년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장에서는 청년층을 정의하려 하는데, 아직까지 청년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먼저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쓰여 왔는지 살펴보고, 학술적으로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 및 규정하고 있는지 정리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청년관련법이 매우 소수인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법안을 포함하여 소수의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을 살펴보고, 해외 통계에서의 청년을 찾아보려 한다.

청년이 정의된 후에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정의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가족형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실제와의 괴리, 즉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들의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언급은 먼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청년 담론이 최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양국 청년들의 취업 및 고용 등의 상황과 결혼 등의 가족형성 현황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뒤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겠지만, 시간적인 경과에 따른 과정, 그리고 인과 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성교제 및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취업, 분가 등의 경제적 요인인지에 대하여 분석하며, 또한 가족형성의 결과로 나타난 가족형태에 따라 소득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5장에서는 2차 데이터로 분석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면접을 통한 심층 분석을 할 것이다. 주된 내용으로는 청년의 의미 및 정의, 독립 및 자립의 의미 및 필요성,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만남 주선사업에 대한 인식, 정신 건강 및 사회 적응, 삶의 만족도 및 앞으로의 희망, 정책 욕구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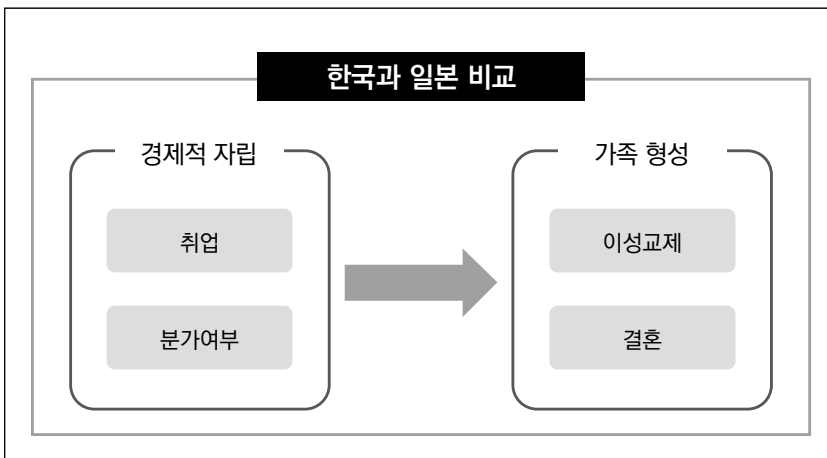
제6장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에 대하여 정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 등이 고용관련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도 시행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은 물론 실증분석과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립은 가족형성에 이르는 성인이 이행 관점과 가족형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그림 1-1]과 같은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그림 1-1]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의 분석틀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각각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그리고 가족형성 이후 소득구조의 변화에 이르는 분석틀을 설정하는 것이며, 경제적 자립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가족형성이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립에서 가족형성, 그리고 소득구조에 이르는 분석은 한국과 일본의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제에 맞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청년의 현황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주로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양국 중 어느 한 곳에서 발표가 되지 않는 통계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가족형성 분석에서 이성교제 분석은 로짓 분석, 결혼(초혼) 분석에서는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과 등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 구조 분석을 한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방법 중에서 비교적 분석이 복잡한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가. 이벤트 히스토리 모델⁸⁾

이벤트 히스토리 모델은 초혼 해저드에 관한 다변량해석 분석모델로 (I)연속시간 모델(Cox, 1972)과 (II)이산시간 모델인 Complementary log-log를 사용한다. 분석시간으로는 (a)기혼자에 관해서는 15세부터 초혼연령, 미혼자에 관해서는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경과 시간과, (b)최종 학교를 졸업한 연령부터 시작하여, 기혼자일 경우에는 초혼연령, 미혼자일 경우에는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경과시간을 사용한다. 모델 분석에 사용하는 공변량 조합은 2종류로, (i)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변

8) 모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량(time invariant covariates)만을 이용할 경우와, (ii)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time varying covariates)도 이용할 경우이다.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시간 모델은 2종류의 분석시간에 관한 모델을 이용하여 초혼 프로세스에 대해 다면적으로 한일 비교를 실시하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II)이산시간 모델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반면, (I)연속시간 모델의 경우 이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I)-(i), (II)-(i), (II)-(ii)의 3개의 조합 모델로 추정한다.

나. 분석 자료⁹⁾

1) 한국의 분석 자료(YP)

한국은 '청년 패널(Young Panel, 이하, YP)' 데이터 중 2007년 조사 이후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YP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녀 모집단으로 이중표본추출에 의한 층화 및 계통 추출법(내재적 층화 병행)에 의해 뽑힌 10,206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CAPI, CAWI, 우편조사, 전화설문조사'에 의해 제1차조사(YP 2007년 코호트)가 시작되었다. 2007년 조사의 응답률은 65.5%였다. 그리고 2007년 조사의 총응답자에 대해 2008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최초 추적조사(제2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매년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는 2015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사된 제9차 데이터이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만 15세에서 22세의 청년이 청년 패널에 존재하지 않고, 추적 대상자의 탈락(attrition)에 따라

9) 분석 자료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특히 청년 남성의 표본이 적어지고 있어서 2015년 기준 만 15~22세 청년층 패널 3,516명¹⁰⁾을 새롭게 추가하여 첫 조사를 실시하였다(황광훈 등, 2016).

2) 일본의 분석 자료(JGGS)

일본은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結婚と家族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Japan Gender and Generation Survey, 이하 JGGS)’ 패널 데이터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JGGS는 전국 시정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를 모집단으로 층화 2단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별된 15,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방문 회수법’에 따라 제1차 조사가 시작되었다(西岡他, 2005). 2004년 조사 유효 회수수(JGGS2004 코호트)는 9,074명(회수율 60.5%)이었다. 추적조사는 2004년 조사 시 50세 미만이었던 응답자의 경우 2007년 2월~5월에 최초 추적(제2차 조사)이 실시되고, 2004년 조사 시 50세 이상이었던 응답자와 제2차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0년 5월에 2번째 추적조사(제3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2010년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3번째 추적조사(제4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년에 한 번 추적조사가 시행되어 온 셈이다. 그리고 그 외 탈락으로 인해 특히 청년층 표본수가 적어져서 2007년 7월과 2013년 7월에는 각각 18~34세 489명, 18~39세 1,200명을 남녀 연령계급별 할당 추출에 의한 보충 샘플(JGGS2007 및 JGGS2013 코호트)로 추가하여 각각 추적조사 대상이 되었다.

10) 2014년에 예비표본을 4,588명 구축하였으나 2015년에 조사 완료된 수는 3,516명으로 76.6%의 응답률을 보였다(황광훈 등, 2016).

JGGS는 초혼 및 첫 분가에 관하여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초혼에 관해서는 2004년 조사 및 보충 샘플의 첫 회 조사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 분께 질문합니다. 첫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초혼 날짜를 물었다. 분가에 관해서는 2007년 추적 조사 및 2013년 보충조사에서 “귀하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3개월 이상 떨어져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에 대해 “처음 부모님 집을 떠난 것은 귀하가 몇 살 때입니까?”와 같이 첫 분가 연령을 조사하고 있다. JGGS2004 코호트 중 2004년 조사 당시에 50살 이상인 사람은 2007년 추적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2013년 조사에서 “당신은 50살까지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첫 분가연령을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분석에서는 (1)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미만 남녀 일본인 중 2007년 추적조사 응답자, (2)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이상 남녀 일본인 중 2013년 추적조사 응답자, (3)JGGS2013 코호트의 2013년 조사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 심층 면접 조사

2차 조사를 이용한 분석의 단점은 이미 구성 및 조직되어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 본인이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취업과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이성 교제 유무를 고려하여 8 케이스씩 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 32명의 한국과 일본 청년에게 면접을 진

행하였다. 면접 질문은 크게 청년의 의미, 자립의 의미, 가족형성, 삶의 만족도, 정책 욕구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라. 일본 공동 연구진과의 실증 분석 결과 세미나 개최

본 연구는 일본 공동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실증 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한 번, 총 세 번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는 조성호 부연구위원, 스가 케이타 박사, 와타나베 유이치 박사, 시카타 마사토 교수이다.

본 연구가 시작된 후 첫 세미나는 2017년 3월 10일(금)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개최되었다. 첫 세미나에서는 연구 책임자의 전체 연구계획 및 과정에 대한 발표 이후, 각 연구진의 연구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연구계획 수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미나는 일본 청년 심층 면접 조사를 위해 연구 책임자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와타나베 유이치 박사가 근무하는 아시아 경제 연구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2017년 8월 5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고, 이 날은 각 연구진이 담당할 부분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완점 및 수정할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세미나는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첫 날에는 각 연구진의 담당 부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층의 정의

제2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연구 고찰

제3절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제1절 청년층의 정의

1. 역사적 관점에서의 청년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애국계몽 운동 시기였던 1905년 이후라고 보고 있으며(이기훈, 2004, p. 212), 조선 후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젊은이를 ‘소년’이라고 하였다(이기훈, 2014, p. 31). 청년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고자키 히로미치가 YMCA를 ‘기독교 청년회’로 번역한 것이 그 시초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관비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대략 1896년 전후로 추정된다(이기훈, 2014, p. 50).

당시에는 청년을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동적인 집단을 청년, 정적인 집단을 노인이라 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적인 70대도 청년이 될 수 있었다(이기훈, 2014, p. 124).¹¹⁾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당시 청년회의 주요 포스트를 담당하고 있던 40~50대를 밀어내고 ‘순수한 청년’이 청년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후반까지가 청년이라고 역설하였다(이기훈, 2014, p. 174).

김종식(2007)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막부시대부터 젊은이라는 ‘와카모노구미(若者組)’가 존재하였고, 이들은 촌락단위로 구성되어 마을의 경

11) 그러나 당시 각 지역 청년회의 나이 상한은 40대까지였기 때문에 청년회 임원들은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주 및 자본가, 지식인이었음(이기훈, 2014: p. 125).

비·소방·제례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와카모노구미의 가입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략 15~17세에 가입하고 혼인하거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탈퇴하게 되는데, 탈퇴 시기는 25~40세까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김종식, 2007, p. 24). 따라서 이 시기의 젊은이의 기준은 15~17세에서 최대 40세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와카모노구미들은 점점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종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던 것, 그리고 이전까지 그들이 맡아왔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김종식, 2007, p. 27). 이후 청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1868년)을 거쳐 새로운 일본을 젊어지고 갈 주체로서 ‘청년’이라는 존재를 발견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p. 44),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청년의 개념이 식민지 시절의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발행하는 백서 등에서나 주로 사용되며, 일상에서는 젊은이라는 ‘와카모노(若者)’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된다(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p. 44).

2. 인간발달 관점에서의 청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난 이후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 나간다. Erikson(1950)은 이러한 인간의 성장 단계를 사회심리학적 발달 관점에서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중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라 하여 20~39세까지로 보았다. 이 기간에서의 주가 되는 개념은 친밀감(intimacy)과 고립감(isolation)으로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 정

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타인과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하였으며, 만일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고립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년기의 기간을 언급함에 있어서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데, Rindfuss(1991, p. 494)는 청년기를 청년(young adult)이라 하였고, 청년기의 하한 연령을 18세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18세가 법적으로 선거권이 있고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이 있는 선별 서비스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는 나이이며,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한 연령은 30세로 보았는데, 30세의 생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과,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저항적 슬로건 중의 하나는 ‘30세 이상을 믿지 말자(We should not trust anyone over 30)’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30세까지를 청년기라고 보았다(Rindfuss, 1991, p. 494).

그리고 Arnett(2006)는 발달 관점에서 기존의 성인기를 분해하여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를 추가하였는데, 그 연령 구간을 18~25세로 정의하였다. ‘발현 성인기’는 아직 청년(young adult)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청년과 구별되며(Arnett, 2000, p. 477), 기존의 성인기와 다른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Arnett, 2006).

첫 번째, ‘발현 성인기’는 ‘자아를 찾는 나이(the age of identity explorations)’라는 것이다. Erikson(1950)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전 단계를 청소년기(adolescence)라 하여, 13~19세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으나, Arnett(2006)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발현 성인기’는 ‘불안정한 나이(the age of instability)’로

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및 취업으로 주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시기이다. 세 번째, ‘발현 성인기’는 ‘자기 중심 시기(the self-focused age)’이다. 이것은 본인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self-centered)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아직 성인의 의무(obligation)와 역할 기대(expectation)를 수행할 필요가 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신성인기’는 ‘끼인 세대(the age of feeling in-between)’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일 때처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도 아니고, 성인기에 경험하게 되는 졸업 및 취업, 결혼을 점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직 완전한 성인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발현 성인기’는 ‘가능성의 나이(the age of possibilities)’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며, 또 하나는 가족과 떨어져 진정한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물학적 연령으로 구분한 것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rnett의 ‘발현 성인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가 있으며, 이들을 19세~25세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전상진, 정주훈, 2006). ‘발현 성인기’가 청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시기라고 한다면, 후기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청소년기가 이전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와 관련하여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년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Arnett, 2000,

2006; Erikson, 1950; Rindfuss, 1991, 山田, 1999),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서, 즉 그동안 어느 특정한 연령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생애주기적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생물학적 연령의 구분만으로는 정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을 간단하게 정의하기 힘들며, 청년 안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청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청년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시킬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법령·정책 사업·국제 통계 관점에서의 청년

가. 법령에서의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과제,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대상자의 범위와 그 설정 근거로서 필요한 법률적 정의이다.

현행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법률 제14501호)에서는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란 15~29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에는 예외로 하여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760호)에서는 제29조의 5항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서 15~29세를 청년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

별법(법률 제14531호)에서는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서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청년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여성, 노인 등 다른 대상과는 달리 청년은 기본법 없이 특별법만 있기 때문에 기본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정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민법상 성인 연령인 19세를 하한 연령으로 하고 상한 연령은 법안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연령 범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0~18세로 정의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2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것과 중복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기현 등, 2016).

〈표 2-1〉 기존 청년관련 법안과 20대 국회 청년 관련 입법 발의 내용

	기존 법률		20대 국회 입법안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1450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760호)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소득법안
청년 연령	15세~29세	15세~29세	19세~34세	19세~34세	19세~29세
정책 목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 삶의 질 향상	청년 참여 촉진과 청년 발전 도모	청년 생활 안정
정부 조직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조정 기구	고용노동부 소속 청년고용촉진특 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대통령소속 청년위원회 (안 제12조)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회의 (안 제9조, 제10조)	보건복지부 소속 청년기본소득위원회 (안 제6조, 제7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각 법안 의안원문(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www.likms.assembly.go.kr에서 2017. 2. 27. 인출).

나. 정책 사업에서의 청년

정책 사업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욕구는 연령보다는 ‘상태’와 연관이 크다. 따라서 대상자가 몇 살인지보다는 재학 중 인지, 졸업 후 구직 중인지 등 청년의 상태에 따라 정책 사업이 수립되고 있다. 주로 주거부문의 정책 사업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의를 연령보다는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별도의 연령기준 없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의 기준을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 사업을 이행하면서 정책사업 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연령 범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선행연구와 청년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을 연령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에서 청년을 연령범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실업률과 관련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29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여 청년실업에 접근하고 있고, 고용정책에서는 각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연수는 18~29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 상담프로그램 등은 18~34세, 청년취업인턴제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15~34세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정책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배경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기준을 설정한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18~39세,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18~34세, 전라북도의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장려금’은 25~39세 등으로 다양하다.

정책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연령 범주를 다르게 설정한다.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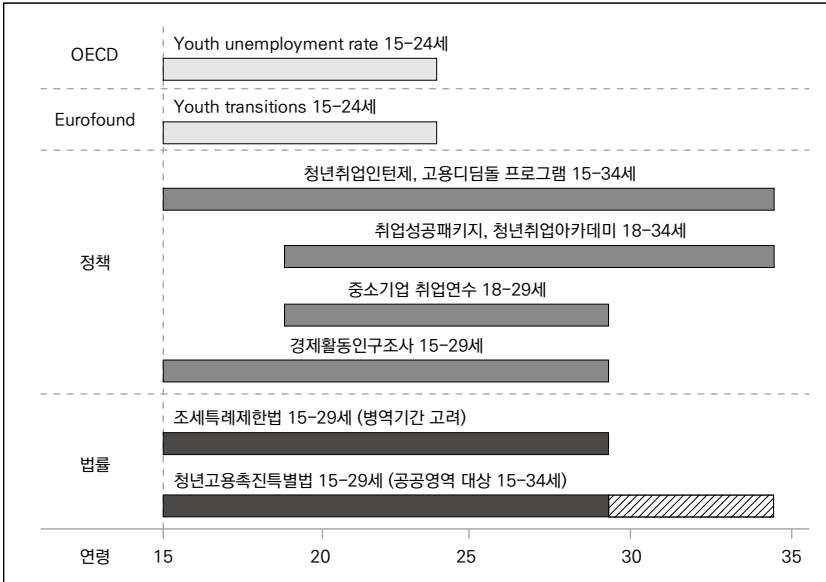
초자료를 수집하는 청년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5)의 경우 표본연령을 15~29세로 설정하였다. 청년고용과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에서는 조사 대상을 15~39세로 설정하였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에서는 조사 대상을 19~29세로 설정하였다.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 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에서는 연령 기준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연구 학력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다. 국제 통계에서의 청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청년실업과 불완전 고용 상황을 멈추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련 기술을 갖추고 고용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에게 노동시장에서의 더 나은 시작을 만들어 주기 위해 Youth Action Plan(OECD, 2013)을 발표하였으며 15~24세 청년실업률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Eurofound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전반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Eurofound(2014)에서도 15~24세 통계를 주요 자료로 보았다. 청년에 관한 국내 법률과 정책 및 국제통계의 연령기준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 청년관련 국내 법률, 정책 및 국제통계 연령 기준



자료: 각 부처, 기관 종합.

제2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연구 고찰

1.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가. 성인기 이행

성인이 된다는 것(transition to adulthood)은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부모로부터 분가하고(leaving home), 학교를 졸업하고(finishing education),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finding a full-time job),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financially independent), 부모가 되는 것(becoming a parent)으로 볼 수 있다(Cordón, 1997; Hartmann & Swartz,

2007; Shanahan, 2000; Sironi & Furstenberg, 2012).

유럽 국가들은 이 순서에 따라 지중해 및 남유럽 유형, 프랑스와 북유럽 유형, 영국 유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중해 및 남유럽 유형은 부모와 동거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유형이고, 프랑스와 북유럽 유형은 이미 분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유형, 그리고 영국 유형은 일자리를 찾으면 분가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Cavalli & Galland, 1996; 이병희 등,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분가 이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Eurofound, 2014), 미국에서는 1920년 초반 여성 코호트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주거독립을 하는 비율이 약 70%가 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 코호트는 약 30%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p. 30).¹²⁾ 이에 반해 이병희 등(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주거독립을 하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으로 이행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대한 연구는 이행 단계별로 어떠한 요인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다각도로 수행되어 왔다.¹³⁾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이행 관점에서 분석된 청년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12) 남성의 경우, 동 기간 40%에서 10%로 감소하였다(Goldscheider and Goldscheider, 1999, p. 30).

13) 한편으로는 가족관계 및 개인의 성격(individual personality)이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찍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와의 관계(quality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가 좋거나, 부끄러움(shyness)이 많을수록 성인으로서 이행하는 단계 진입이 늦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한 문헌으로 Goossens(2001)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2011년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주가 되어 수행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시리즈가 있다. 이 시리즈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별에 관한 연구(장미혜 등, 2011), 취약위기 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은기수 등, 2011), 성인기 이행 실태에 관한 연구(이병희 등, 2011)가 있다.

이 중에서 이병희 등(2011)에서는 성인기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 그리고 결혼과 출산, 분가 이행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의 학교 졸업 후 노동 시장 이행 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률이 크게 낮고, 저임금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 향상과 근대적 가치관은 남녀의 초혼 이행을 지연시키고, 그 외에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초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출산 해저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분가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향이 크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형태를 보이며, 취업 후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취업이 분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취업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주고, 결혼 이후에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렬(2015)은 사회적 독립과정을 성인으로의 이행으로 보고 분석을 하였다.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의 비율은 시간 경과와 함께 감소하지만,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행으로의 분석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초혼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만혼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그 외에 가구 저축도 초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가의 경우는 부모가 무급 가족종사자, 미취업자, 가계생활부담자일 경우에는 분가뿐만 아니라 초혼 이행 확률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 경제적 자립

서양의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나(responsible behavior),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autonomous decision making)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 or economic independence)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Arnett, 1994; Scheer & Palkovitz, 1994; Greene et al., 1992). 따라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을 간단히 정의하면 주거의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경제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ordón, 1997, p. 582). 그는 경제활동(이하, 경활) 여부와 분가 여부에 따라 비경활·비분가를 완전 의존(fully dependent), 비경활·분가, 비취업·비분가, 비취업·분가, 취업·비분가의 4가지를 반 자립(intermediate situation or semiautonomy), 취업·분가를 완전 자립(fully independent)으로 자립도를 나누었다. 그리고 Bell et al.(2007)은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자립을 주거 형태, 취업, 소득(순 소득 포함)의 측

14) 일반적으로 여성의 초혼행동 분석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 확률(해저드)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류기철, 박영화, 2009; 우해봉, 2009; 조성호, 2016a), 이승렬(2015)에서는 성별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면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기의 주거 이동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입대를 하여 막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제대를 하여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분가라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 만일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분가는 더 이상 성인으로의 이행의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게 된다(Goldscheider & DaVanzo, 1986, p. 189). 그러나 반 자립 상태에 있는 청년이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되는 것은 소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 자립은 성인으로의 이행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Goldscheider & DaVanzo, 1986, p. 200). 반 자립에 있는 청년 중에 주거 독립을 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할 수 있는데(山田, 1999), 이것은 Cordon(1997)이 분류한 반 자립 중 취업·비분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수입 중 극히 적은 일부분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의 취미생활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가한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intergenerational transfer)이다. 세대 간의 자원 이전 중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 교환동기 이론(exchange motive theory)으로 설명된다(고선강, 2005; 김지경, 2008).

이타주의 이론은 이타적인 가장은 비록 가족 구성원이 이기적(selfish)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효용(utility)이 증가하면 자신의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론의 극단적 케이스가 불량자녀 정리(rotten kid

theorem)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는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91).

교환동기 이론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본다는 믿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e et al., 1994; 김지경, 2008, 80p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가 서양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부모가 자녀의 성취(학업, 결혼 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용할 자원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며(박영신, 김의철, 2004), 이러한 것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2. 청년층의 가족 형성

가족형성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 부모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전 단계인 이성 교제 또한 그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가. 이성 교제

이성 교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살펴봐도 그다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없는데 반해, 서양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남녀 간의 교제 상대 선택(dating preference or mate selec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택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으로는 심리학적 이론과 경제학적 이론이 존재한다. Eagly & Wendy(1999, p. 408)에 의하면, 심리학적 이론은 크게 발달 심리학적 접근(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과 사회 구조적 접근(social structural perspectiv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이론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응의 본질과 시점(timing)에 있어서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달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고착화되어온 남녀 간의 차이, 예를 들어 여성은 출산이 가능한 반면, 남성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 등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가 직면한 문제가 다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녀 간에 있어서 발달 기제가 분화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Eagly & Wendy, 1999, p. 408). 그리고 사회 구조적 접근은 우선 남녀 간의 차이를 개인, 환경, 문화적 조건에 따라 규정하고, 개개인이 이러한 규정에 적응하는 것에 따라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Eagly & Wendy, 1999, p. 409).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남녀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제학적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한 개인이 교제상대로 상대방(partner)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보 효용(reservation utility)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할 때이며, 이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특성(attribute)이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Belot & Francesconi, 2013, p. 486). 이러한 가정 위에서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상대 선택에 대한 기제를 밝히는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폴 오이어(2014)는 소득이 높은 상대를 선택하고 싶을 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학벌이 좋은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신호 효과(signal effect)에 의한 것이고, 별거남이라는 사실은 아직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지 않는 행동 등은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향으로 상대를 고르는 것은 걸어내기(skimming)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녀 간의 매칭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남녀 간의 결혼, 즉 최종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진 다음의 상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는 남녀 간의 교제상대 선택(mate selection)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만남 파티(speed dating)나 결혼 중개 서비스회사(mate-search service), 그리고 만남 사이트(online dating) 등의 매칭 결과를 알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성애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분석한 것이다(Fisman et al., 2006; Lee, 2009; Hitsch et al., 2010; Belot & Francesconi, 2013).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성교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미혼 남녀들이 이성 교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구로는 조성호(2014)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출산을 회복을 위해서는 미혼 인구의 결혼 이행이 증가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이전에 남녀가 서로 만나는 기회(이성교제 비율)를 높여야 결혼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배경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체로 경제활동유무,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이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전화조사는 것과 경제적 요인 이외의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中村, 佐藤(2010), 桶川(2013)가 있다. 이 두 연구는 ‘소자화시대의 결혼산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가 실시한 ‘결혼상담·결혼정보 서비스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종속 변수와 대상연령 등이 약간 상이하지만, 내용 및 분석방법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설명 변수의 속성을 ‘경제적 자원’, ‘독신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거리적 기회’, ‘독신 이성을 접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 ‘대인관계 능력’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中村, 佐藤(2010)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사귀는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남성의 경우 직장 내의 이성의 수, 친구를 만나는 빈도가 많을수록 이성을 사귀는 확률이 높고, 대기업 및 전문·관리 직일 경우에는 그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휴일에 출근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이성을 사귀는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桶川(2013)는 20~30대를 대상으로 사귀는 이성이 없고, 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성도 없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신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거리적 기회’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장 내의 독신 이성의 수, 직장 이외에서 이성과 만나는 기회, 취미 생활 등의 동호회 내의 이성의 수가 적을수록, 사귀는 이성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이성이 없을 확률도 감소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中村, 佐藤(2010)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조사에 의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하는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결혼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의 남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다.¹⁵⁾ 이처럼 법률적으로는 결혼을 매우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사회학에서는 결혼이라는 행동 자체보다는 결혼과 가족(marriage and family)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다수 존재하는데, 박민자(2003)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구조기능론(structure-functional theory),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interactionist theory)을 제시한다.¹⁶⁾ 구조기능론은 개인과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갈등이론은 가족 간의 경쟁 및 투쟁을 비정상적이 아닌 사회 체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 그리고 교환이론은 사회는 개인들이 삶의 보상을 위해 협상하고 그 결과를 교환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족에 대응시킨 것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족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박민자, 2003; 조정문, 장상희, 2001).

경제학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대 선택 이론과 유사하게 효용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 결혼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Becker(1973, p. 816)에 따

15) 물론 혼인의 성립에는 근친혼 등의 금지와 중혼의 금지,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기술하였다. 또한 법률에서는 혼인이라고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일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다.

16) 가족이론에는 그 이외에 가족발달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인간발달 단계에서의 청년’에서 언급한 발달론으로써 가족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갈등이론, 교환이론,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은 구조기능론의 비판(critiques)으로부터 발생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박민자, 2003, p. 303).

르면 한 개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자신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결혼 선택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그의 이론에서 각 가계(household)는 가계 구성원의 수만큼 효용함수가 존재하며, 이 효용함수는 각 가계 구성원이 구입한 시장재(market goods)와 서비스(service), 그리고 투입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들은 적절히 시간을 투입하여 산출물(output; Z)을 생산하는데, 이 산출물은 식사(음식), 출산, 사랑, 건강 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의 경우, 시장에서 구입한 재료와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여 음식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1명의 가구원이 있었던 가계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러한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개인은 결혼을 선택하게 되어 2인 가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2인 가계에서 산출물을 생산하는 적정한 시간 투입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시간 배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그의 이론에서는 남성이 노동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비교우위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남성이 시장 노동에 특화하고, 여성이 가사에 특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부부 간의 시장재와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여성의 임금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 이러한 분업의 이익이 상쇄되어 결혼하고 싶은 의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Oppenheimer(1997)는 지금까지의 결혼 관련 연구에서 반드시 여성의 취업과 결혼 선택이 음(-)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Becker의 이론은 결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비혼으로 남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게 되는

17) 이러한 개념은 Becker(1965)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조성호(2016b)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활시간 조사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배우자의 이점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결혼에 관한 연구는 분석 방법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 발생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상호, 이상현, 2010; 이승렬, 2015), 두 번째는 결혼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것으로(류기철, 박영화, 2009; 우해봉, 2009; 윤자영, 2012; 조성호, 2016a; 최필선, 민인식, 2015, 菅, 2009; 津谷, 2009), 전자는 주로 패널 프로빗(panel probit) 모델, 후자는 이산시간 해저드(discrete time hazard) 모델, 콕스(Cox)의 비례 해저드(proportional hazard) 모델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후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한국

먼저 류기철, 박영화(2009)의 연구는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의 1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출생 코호트, 결혼 코호트, 학력, 결혼 연령, 남편의 형제 유무, 취업 상태를 도입하였는데, 학력이 고졸에 비하여 중졸 이하 여성, 그리고 결혼을 전후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들의 초혼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해봉(2009)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의 2007년(10회)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그동안의 해저드 분석에서 비례 해저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취득의 영향이 단순한 결혼의 연기인지 아니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어

려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한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비례 해저드의 대안으로는 이산시간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며 링크함수로 보 로그 로그(complementary log log) 모델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유무, 유년기 성장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사회계층 등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남녀 모두 초기에는 결혼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른바 '따라잡기(catch-up)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윤자영(2012)은 우해봉(2009)과 같은 데이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결혼 시점과 3년 전의 일자리 및 고용형태로 측정)이 초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학력, 재학 유무, 종교, 유년기 성장지, 아버지 학력, 취업관련 변수를 도입하였다. 분석한 결과, 정규직 근무와 취업상태는 남성의 초혼 해저드를 증가시키는 반면, 여성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필선 등(2015)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ng Panel) 조사 중 7차(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산시간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는데 링크함수는 로짓(logit) 모델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취업 여부, 월평균 임금, 일자리 유형, 직장 규모, 아버지 취업 유무, 아버지 교육수준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은 35세, 여성은 33세에서 결혼 이행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여부는 남녀 모두 결혼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임금의 증가가 결혼 이행을 증가시키지만, 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성호(2016a)는 한국과 일본의 초혼행동에 관하여 콕스의 비례 해저드 분석으로 분석하였는데,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의 1차 데이터(한국)

를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출생 코호트, 유년기 성장지, 학력, 취업경험, 남자 형제 및 여자 형제 수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년기 성장지가 대도시일수록, 초혼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초혼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2) 일본

津谷(2006)에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동일한 JGGS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출생 코호트, 유년기 성장지, 학력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로 최근의 코호트, 유년기 성장지가 대도시,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津谷(2011)에서는 같은 데이터와 방법으로 학력과 고용안정성이 초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첫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에 유의하게 초혼확률을 증가시킨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福田(2007)는 일본가계경제연구소의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 Japanese Panel Survey of Consumer)’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의 초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시간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며 링크 함수로 보 로그 로그 모델을 사용하였다. 설명 변수는 연 수입, 교육수준, 부모와 동거 여부, 혼전 임신·출산 여부, 거주지, 출생 코호트, 연령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 수입이 증가할수록 초혼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여성은 분업의 이익이 상쇄되어 결혼은 하지 않으려는 유인(incentive)이 생긴다는 Becker(1973)의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로 福田(2007)는 타 연구를 인용하며, 미혼인 일본 여성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이는 곧 부모의 소득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패러사이트 싱글), 소득이 높은 여성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확률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菅(2009)는 JGGS 데이터로 분가와 결혼과의 관계를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설명 변수로는 분가 여부, 출생 코호트, 학력, 부모의 학력, 형제 수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코호트일수록 주거 독립의 시점이 늦어지는 것 이상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결혼 전에 분가를 한다면 결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吉田(2012)의 연구에서는 첫 직장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도쿄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일자리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관한 전국조사(JLPS: 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s)’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분석(non-parametric analysis)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는 기존의 이론대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결혼 시기가 빠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20대 중반까지는 비정규직이 빨랐으나, 그 이후에는 정규직 여성의 결혼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경우가 정규직보다 소득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福田(2007)의 결과와 유사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吉田(2012)는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여성 중에는 전문직 여성이 많고, 이들이 커리어 지향적으로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三好(2013)는 福田(2007)가 사용한 JPSC 데이터를 이용하여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여성의 초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설명 변수는 연령, 본인 학력, 부모의 학력, 연 수입, 졸업 후 첫 직장의 정규직 여부 등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 수입이 증가할수록 초혼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福田(2007)와 배치되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그 이유로 三好(2013)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샘플에도 연 수입의 추정치를 도입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성호(2016a)는 JGGS 데이터로 초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출생 코호트, 유년기 성장지, 학력, 취업경험, 남자 형제 및 여자 형제 수를 도입하였으며, 분석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년기 성장지가 대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감소하였으나, 초혼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초혼확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일본 여성의 90% 이상이 초혼 시점에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Becker(1973)의 이론과 관련된 가설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엇갈린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분가와 결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중요 요인을 컨트롤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결혼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려 한다.

제3절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은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는 것과 경제력을 갖는 것, 즉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Cordón(1997)의 분류인 완전 의존, 반 자립, 완전 자립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반 자립의 한 형태인 패러사이트 싱글을 독립시켜 하나의 단계로 본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이 형태로 봤을 때는 반 자립이지만, 다른 반 자립의 형태와 비교해볼 때 완전 자립으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의지로 주거 독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으로의 이행 단계 중에서 경제적 자립은 분가와 취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학교 졸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성인으로의 이행은 단계를 간략화하여 분가, 취업, 결혼으로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결혼의 전 단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형성의 범위를 이성교제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적으로 대부분 20대, 또는 넓게 30대 초반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성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가족형성 시기의 연기(delay)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 뒤에서 분석되겠지만, 일본의 40대 미혼율이 높기 때문에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0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비교를 위하여 한국도 40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자립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의 한 과정으로 상정한다. 그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이 가족형성에 있어서 충분조건인지, 다시 말하면 가족형성이라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행한다.

제 3 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현황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 담론 및 세대 변화

제2절 한국과 일본 청년의 경제활동 현황

제3절 한국과 일본 청년의 가족형성 현황

제4절 소결

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현황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은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및 생애 미혼율 상승,¹⁸⁾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말미암아 합계출산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참여 및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양국 모두 젊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식도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역시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와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프리터, 니트(NEET),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미혼 청년층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장에서는 먼저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형성되고 있는 청년 담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한 후,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취업 및 부모로부터 분가)과 결혼에 따른 가족형성 상황, 거주형태, 젊은 미혼 인구의 결혼에 대한 의식, 취업 상황에 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통계 데이터 등을 근거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려고 한다.

18) 생애 미혼율은 50세의 미혼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45~49세, 50~54세의 미혼율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 담론 및 세대 변화

1. 한국 청년 담론의 변천

한국의 청년 담론의 경우, 청년기를 중심으로 한 세대론에 주목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에서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 중 1980년대에 등장한 세대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정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세대는 주로 마케팅 용어와 관련이 있다(우석훈, 박권일, 2007). 이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였던 1973~1980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세대를 유신세대라 하는데, 이들은 뒤에서 언급하는 88만 원 세대의 부모 세대에 해당한다. 유신세대는 한국경제가 급성장했던 시기에 젊은 시절(20~40대)을 보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향수로 세대 내부의 단결력이 높고, 지역주의적인 사고를 선호한다(우석훈, 박권일, 2007).

한국에서 등장한 많은 종류의 세대 중 가장 강력한 세대는 386세대이다. 386세대는 1990년대에 30대를 보내고,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1960년대에 태어난 이들로,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 시절이었던 1987년 민주화선언 당시 민주화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단결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한국 정치사회를 견인한 핵심 세대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동력이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사교육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대이지만, 학창 시절 적극적으로 데모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누린 최후의 세대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우석훈, 박권일, 2007).

386세대를 잇는 세대로서 1990년대 초부터 중반 사이에 20대를 지낸 세대인 X세대가 있다.¹⁹⁾ X세대는 ‘다양한 소비’를 구가할 것으로 기대되

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려던 바로 그 시기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고용이 불안정해졌으며 정부가 주도한 신용카드 발급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우석훈, 박권일, 2007). 그리고 이들을 잇는 세대가 우석훈, 박권일(2007)이 이름을 붙이며 이슈가 된 불행한 세대의 상징인 88만 원 세대이다. 1977~1986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정세 악화와 청년실업 문제의 직격탄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워킹 푸어층의 월평균 급여액을 대변한다. 이후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현대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3포 세대라는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 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사회속에서,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등에 얽매어 자립이나 자활조차 어려운 낮은 임금 때문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이다. 그 후 내 집 마련과 경력도 포기한 5포 세대, 희망·취미·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한 7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로까지 진화한다.

이러한 세대론 이외, 청년들 사이에서 어느 특정한 집단을 표상하는 ‘~족’이라는 조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혼의 독신 젊은이들 중 싱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업무 등으로 결혼 시기를 놓쳐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독신자를 말한다. 반면 네오 싱글족이나 프리미엄 싱글족이라 불리는 미혼의 젊은 세대는 높은 경제력과 디지털기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생활을 하며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독신 문화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YOLO족²⁰⁾은 미래보다 지금의 나 자신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것을 중시하며,

19) X세대는 Coupland(1991)의 저서 「Generation X」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미국의 1960년대 초 또는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20)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살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또한 일본의 패러사이트 싱글이나 니트에 해당하는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캥거루족이란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결혼해서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신 캥거루족, 또는 결혼해서 독립하였다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다시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리터루족²¹⁾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립할 경제력이 있으며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세대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 독립할 수 없거나 맞벌이 부부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로 생각된다.

2. 일본 청년 담론의 변천

일본 청년 담론의 그 출발점은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누렸던 1960년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대 후반 이후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지배적 제도 및 문화와 달리 자율적이고 대항적인 문화를 세대 내부에서 널리 공유하는 독자적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山田, 2009), 주요 문화에 대한 하위문화(서브컬처)의 상징으로 포크와 록, 청바지, T셔츠 등이 등장했다(山田, 200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종식되면서 청년 문화의 대항성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소비사회 및 상업화 진전과 함께 청년 문화와 기성 문화의 구분이 단순한 취향 및 기호의 차이로 희석되면서 연령으로 구분되어 왔던 청년 문화의 독자성과 자율성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淺野, 2016).

21) return+kangaroo의 조어로 돌아온 캥거루족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 당시, 구직자 우위의 취업시장을 경험한 청년층을 버블세대(1965~1970년생)라 일컫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 거품이 붕괴되고, 청년 담론의 주축이 노동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으며, 그와 동시에 논의의 초점이 노동자로서의 청년으로 옮겨졌다(淺野 2016). 구체적으로는 프리터와 비정규고용으로 대표되는 워킹 푸어 문제,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주목받게 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와 니트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1999년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가 제시한 ‘패러사이트 싱글’론의 변화도 흥미롭다. 본래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취직을 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며 넉넉한 소비생활을 누리는 젊은이를 칭한다(山田, 1999).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내몰리게 되면서, 자립할 만큼의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기대 살며 ‘희망 격차 사회’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山田, 2004). 그리고 버블 세대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등장한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생) 및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5~1984년생), 미니멈 라이프 세대(1980~1988년생)는 취직 빙하기를 경험하며 소비 억제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²⁾

이렇듯 노동론적인 전개를 보여 왔던 청년 담론을 둘러싸고 청년층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다양한 찬반 양론이 분분했지만, 청년 노동문제의 핵심 세대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접어드는 현재, 청년 담론 자체의 윤곽이 희미해지고 있다(淺野, 2016). 이런 가운데 古市(2011)²³⁾는 현재 대부분의 젊은이에 대한 공통된 주제로, 그들이 지금까지 겪은 적이

22) 단카이 세대는 제1차 베이비 붐이 일어난 1945~1947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이 3년 간 연간 출생아수는 260만 명을 넘어서고, 총 806만 명에 달한다. 또한, 단카이 주니어 및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프리터, 니트, 은둔형 외톨이, 파견노동자, 미취업자 등을 통칭하여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 한다.

23)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寿).

없는 상황에 대한 행복감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최근에 등장한 청년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후루이치의 가설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 오히려 현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古市, 2011). 유토리 세대²⁴⁾와 사토리 세대²⁵⁾라 불리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취업 상황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山田(2009)도 마찬가지로 현대 청년 문화는 전자 매체를 매개로 한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전개에 있어서 그들의 독자성이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대 일본 청년 담론의 중심은 과거의 ‘노동’에서 ‘행복감과 인간관계의 본모습’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활동 현황

1. 청년층을 둘러싼 취업 상황의 변화

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취업 상황

양국 청년 담론의 변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젊은이들을 둘러싼 취업문제는 청년 담론을 형성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상황의 변화에 관하여 경제활동비율과 실업률, 비

24) 탈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로 1987~2004년에 태어난 이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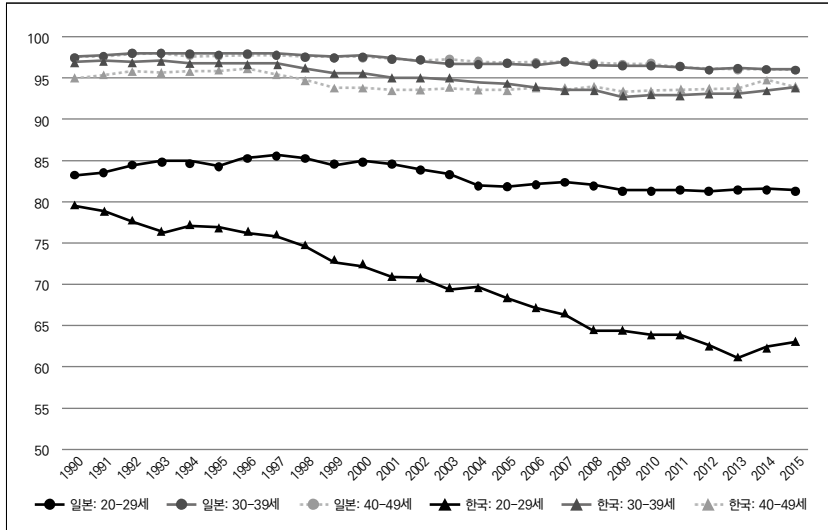
25) 2010년대의 청년들이 현실을 깨달은(사토리)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욕심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략 1990년대생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비율 등의 그림을 제시하며 양국의 차이를 정리하려 한다.

[그림 3-2-1]과 [그림 3-2-2]는 양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남녀·연령대별로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20대 남성이 일본의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한국의 20대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았지만,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여 2012년 이후에는 남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그만큼 취업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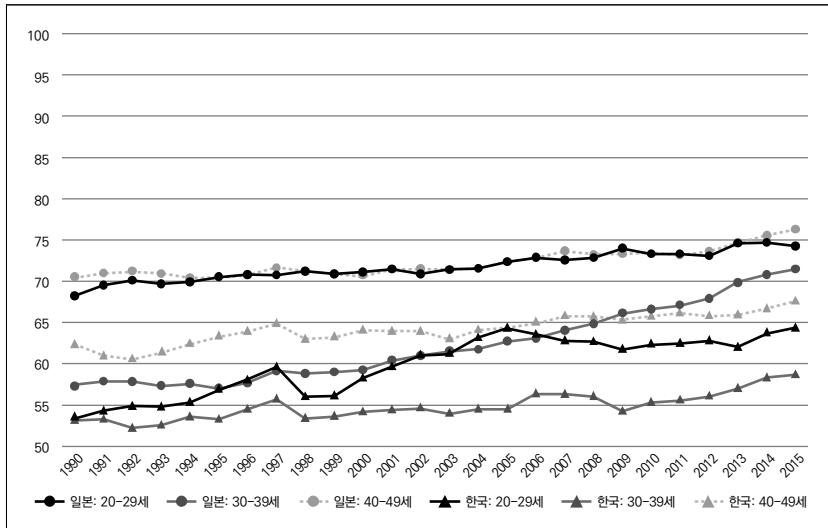
[그림 3-2-3]과 [그림 3-2-4]는 양국의 실업률 추이를 남녀·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에 차지하는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최근의 30~40대 실업률은 양국 남녀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는 양국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의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대 남성의 실업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배경으로는 실업자 수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3-2-1] 한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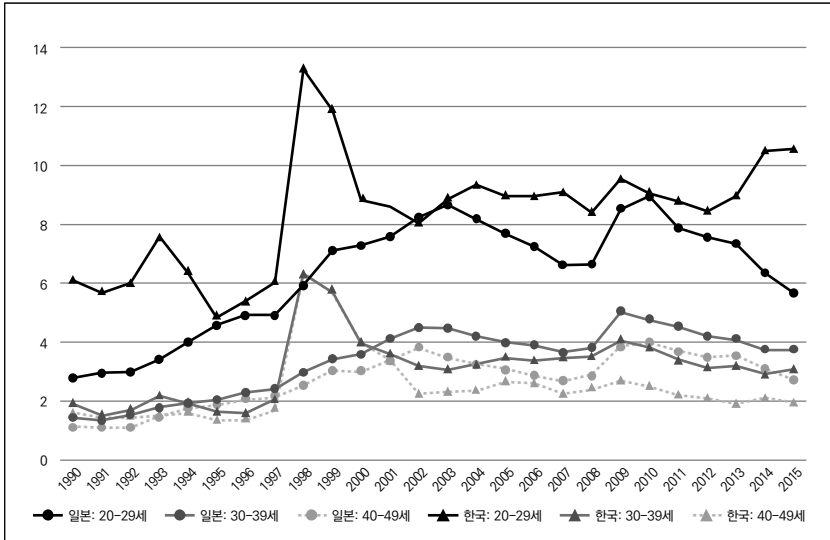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그림 3-2-2] 한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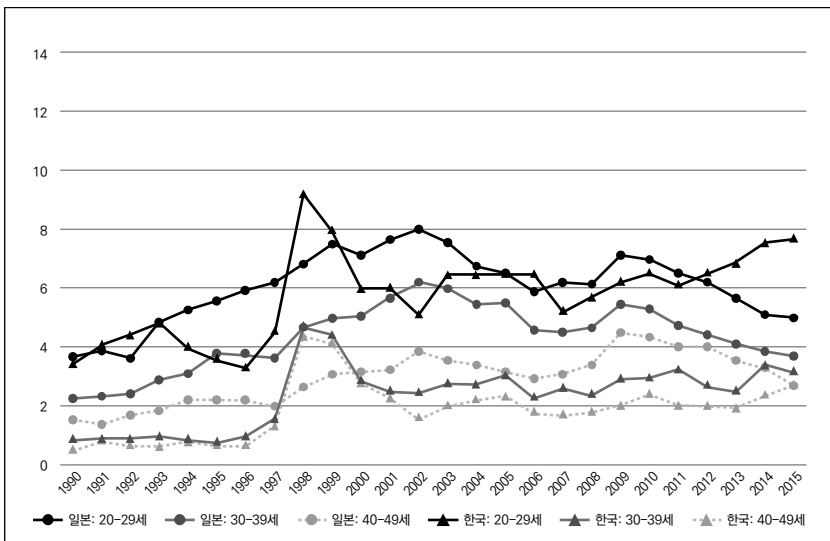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그림 3-2-3] 한일 남성의 실업률(%)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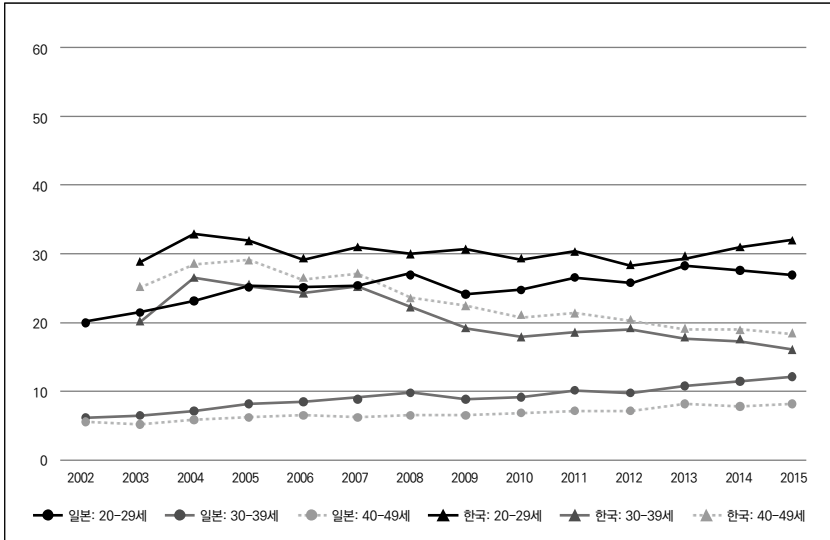
[그림 3-2-4] 한일 여성의 실업률(%)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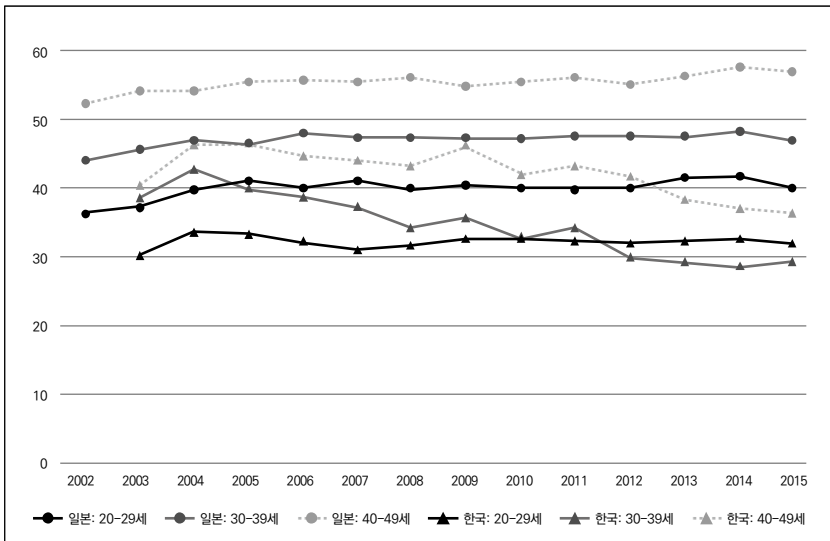
[그림 3-2-5]와 [그림 3-2-6]은 양국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남녀·연령대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 비율이란 임금 노동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양국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의 수준은 그 외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높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고용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의 20대 여성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연령대를 비교할 때 양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한국 20대의 경우에는 남녀 차가 크지 않으며, 최근에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5] 한일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그림 3-2-6] 한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나.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취업 상황

앞에서는 양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황 등의 비교적 거시적인 지표로 이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양국 미혼 청년(20~30대)의 취업 상황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3-2-1〉과 〈표 3-2-2〉는 양국 미혼 남성의 취업 상황에 대해 연령 계급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 남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있어서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층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한국 남성을 중심으로 학생이나 가사와 같은 비경제 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반면 일본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정규직 비율의 감소 및 비정규직화로 대변되는 고용 악화가 심해지고 있고,²⁶⁾ 자영업층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 이후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화(니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대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고용 상황이 좋지만, 최근의 경향에서 보면 30대로 진입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남성 고유의 병역의무 제도 및 대학 진학률 증가, 그리고 취직이 어려운 것과 이로 인하여 졸업을 연기하고 있는 현상이 20대의 낮은 고용률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학생 비율을 보면, 일본의 2.3%에 비하여 한국은 12.1%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6) 단, 2010~2015년에는 약간 개선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표 3-2-1〉 한국 미혼 남성의 취업 상황

단위: %						
20 - 24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20.2	21.9	10.8	11.9	10.5	14.2
임시근로자	20.2	19.3	18.3	18.3	15.7	18.5
일용직근로자	3.6	4.0	7.8	7.4	5.0	5.0
비정규직	23.8	23.4	26.2	25.7	20.7	23.6
자영업	1.6	1.6	1.2	1.0	0.8	0.8
무급가족종사자	4.8	3.0	3.3	1.5	1.5	1.4
실업자	5.2	4.4	6.1	5.5	3.8	5.3
학생	34.2	36.0	38.4	36.0	43.5	37.2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4.5	3.9	2.7	17.0	18.4	16.8
비경제활동인구	38.7	39.9	41.0	53.0	62.0	54.0
미상	5.7	5.7	11.3	1.4	0.8	0.8
총계	1,160,114	1,425,997	1,249,486	1,239,781	1,114,869	1,405,483

25 - 29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45.2	47.6	33.7	37.6	39.1	43.1
임시근로자	19.3	18.9	23.8	21.3	16.8	16.3
일용직근로자	4.2	3.9	4.9	3.5	2.6	2.1
비정규직	23.5	22.8	28.7	24.8	19.5	18.4
자영업	6.1	6.1	5.5	4.2	3.3	3.0
무급가족종사자	4.8	2.8	2.9	2.0	2.0	1.8
실업자	6.2	4.2	7.0	6.9	6.6	8.4
학생	9.3	11.1	13.9	13.9	15.1	12.1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2.5	2.8	2.1	9.7	14.1	12.4
비경제활동인구	11.8	13.9	15.9	23.6	29.2	24.5
미상	2.4	2.6	6.2	0.9	0.4	0.7
총계	1,048,609	1,354,262	1,536,750	1,529,445	1,574,026	1,509,258

30 - 34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37.0	42.1	36.0	40.1	48.6	56.9
임시근로자	20.5	18.9	22.0	20.6	17.0	14.5
일용직근로자	10.8	8.5	8.0	7.5	3.5	2.0
비정규직	31.3	27.4	29.9	28.1	20.5	16.5
자영업	13.8	14.7	13.2	11.1	7.1	8.3
무급가족종사자	5.1	2.8	3.8	1.7	2.0	2.0
실업자	3.4	3.4	7.2	5.8	6.0	4.6
학생	1.1	1.5	1.7	2.5	3.1	2.3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4.4	4.9	2.5	9.8	12.3	8.8
비경제활동인구	5.5	6.4	4.2	12.3	15.3	11.1
미상	3.9	3.2	5.7	0.9	0.5	0.6
총계	269,289	395,078	585,032	799,673	876,144	962,705

66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35 - 39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22.4	26.9	23.6	31.7	37.9	49.6
임시근로자	17.6	14.7	18.1	19.0	17.1	12.6
일용직근로자	15.0	15.6	15.0	10.6	7.8	4.7
비정규직	32.6	30.3	33.1	29.7	24.8	17.4
자영업	18.7	21.0	20.9	15.2	12.9	11.3
무급가족종사자	5.6	3.3	3.4	2.1	2.1	1.7
실업자	5.1	3.8	7.0	5.8	5.2	5.6
학생	0.4	0.2	1.2	0.8	1.2	0.5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8.4	8.5	3.9	13.1	15.2	13.2
비경제활동인구	8.7	8.7	5.1	14.0	16.4	13.7
미상	6.9	6.0	6.9	1.4	0.6	0.7
총계	48,129	140,769	233,804	325,191	494,996	526,962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로 필자가 작성.

〈표 3-2-2〉 일본 미혼 남성의 취업 상황

	단위: %							
20 - 24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59.9	60.5	57.8	51.9	40.6	37.2	38.6	41.9
파견·촉탁·계약직	-	-	-	-	2.1	7.1	3.4	3.9
파트·아르바이트	2.6	2.0	2.7	10.0	12.5	14.8	8.9	7.5
비정규직	2.6	2.0	2.7	10.0	14.6	21.9	12.3	11.4
자영업·가족종사자	5.9	5.9	2.3	4.4	3.7	3.0	2.0	1.4
무직·가사	3.4	2.0	1.6	2.8	6.4	4.8	7.4	5.3
학생	27.3	28.5	34.5	26.7	29.0	30.5	35.4	35.2
미상	0.8	1.2	1.1	4.2	5.6	2.5	4.3	4.8
총계	1,138	1,464	1,840	1,683	1,405	1,025	1,359	923
25 - 29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80.3	83.4	87.6	77.0	63.6	61.9	59.3	61.5
파견·촉탁·계약직	-	-	-	-	2.1	7.2	8.4	7.2
파트·아르바이트	1.8	2.3	1.2	5.7	10.7	10.2	10.8	9.8
비정규직	1.8	2.3	1.2	5.7	12.8	17.4	19.2	17.0
자영업·가족종사자	12.1	7.9	5.9	7.6	7.7	6.5	5.9	4.3
무직·가사	3.0	2.6	2.9	3.5	7.3	8.0	9.1	9.6
학생	1.5	2.3	1.4	2.3	2.8	3.5	2.5	2.3
미상	1.4	1.6	1.1	4.0	5.7	2.6	4.0	5.2
총계	730	836	1,036	1,149	1,124	1,025	1,076	788
30 - 34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76.2	73.4	84.0	75.0	58.9	63.0	55.6	58.3
파견·촉탁·계약직	-	-	-	-	2.4	6.6	8.2	9.7
파트·아르바이트	3.0	2.0	2.0	3.6	9.8	6.4	9.2	9.9
비정규직	3.0	2.0	2.0	3.6	12.2	13.0	17.4	19.7
자영업·가족종사자	15.9	17.6	8.9	12.1	10.0	11.2	8.7	6.6
무직·가사	3.0	4.8	2.4	3.2	9.4	7.9	11.2	10.1
학생	0.0	0.8	0.6	0.8	1.4	1.0	0.9	0.5
미상	1.9	1.5	2.0	5.3	8.2	3.7	6.4	4.9
총계	370	398	494	529	662	667	797	575

35 - 39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	-	81.8	71.4	63.2	62.1	54.0	54.1
파견·촉탁·계약직	-	-	0.0	0.0	2.2	4.9	7.5	10.5
파트·아르바이트	-	-	2.8	6.6	3.4	7.5	9.6	6.8
비정규직	-	-	2.8	6.6	5.6	12.4	17.1	17.2
자영업·가족종사자	-	-	10.4	12.2	10.8	12.4	9.1	11.6
무직·가사	-	-	3.1	4.2	10.5	9.2	12.9	11.1
학생	-	-	0.3	0.0	0.0	0.0	0.3	0.4
미상	-	-	1.6	5.6	9.9	3.9	6.5	5.5
총계	-	-	318	287	323	412	613	458

자료: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각 연도). 출생동향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표 3-2-3〉과 〈표 3-2-4〉는 양국 미혼 여성의 취업 상황에 대한 연령 계급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 여성의 경향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한국 남성과 유사하지만, 20대 초반의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학생이나 가사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되는 비율이 높고, 특히 20대 후반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5%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30대 초반부터 상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여성의 경우도 일본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무직·가사 비율이 감소하며 경제활동인구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 30대 후반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연령계층에 따라 비교하면, 남녀 모두 30대가 되면 20대 후반보다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과 동시에 가계의 보조적인 소득원으로서 일을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경우 남녀 모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이다. 양국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20대 초반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고용 상황이 좋지만, 20대 후반 이후가 되면 큰 차이가 없어지고,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일본 여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표 3-2-3〉 한국 미혼 여성의 취업 상황

단위: %

20 - 24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40.7	40.5	24.0	25.8	22.5	27.8
임시근로자	23.7	23.9	26.3	22.3	17.2	18.4
일용직근로자	1.6	1.4	4.9	4.4	2.4	3.7
비정규직	25.3	25.3	31.2	26.7	19.7	22.2
자영업	1.7	1.5	1.3	1.3	1.1	1.2
무급가족종사자	1.4	1.0	0.9	0.8	0.8	0.7
실업자	3.4	3.7	4.7	5.1	4.0	5.6
학생	19.6	21.2	29.3	29.5	39.3	30.6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6.7	5.2	4.8	10.2	12.1	11.4
비경제활동인구	26.3	26.4	34.0	39.7	51.4	42.0
미상	1.2	1.6	3.9	0.6	0.6	0.5
총계	1,489,725	1,727,212	1,622,344	1,668,056	1,415,115	1,562,633

25 - 29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40.9	47.3	37.9	46.0	51.6	58.0
임시근로자	25.1	24.2	30.0	26.5	20.9	14.3
일용직근로자	2.4	1.4	3.9	2.0	0.9	0.9
비정규직	27.6	25.7	33.9	28.6	21.8	15.3
자영업	6.1	6.2	4.2	3.5	2.7	3.9
무급가족종사자	2.3	1.7	1.2	0.9	0.4	0.5
실업자	2.3	2.3	3.6	4.2	4.1	5.3
학생	2.7	3.0	7.3	6.4	6.0	6.1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15.8	11.9	8.1	9.9	13.0	10.5
비경제활동인구	18.6	14.9	15.4	16.3	19.0	16.6
미상	2.2	2.0	3.8	0.4	0.4	0.5
총계	385,051	591,850	826,264	1,048,047	1,197,069	1,130,119

30 - 34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23.9	30.3	31.1	34.4	45.2	56.7
임시근로자	25.6	24.3	27.8	25.4	20.3	16.9
일용직근로자	3.7	1.6	3.3	2.9	1.7	0.4
비정규직	29.3	25.9	31.1	28.3	22.0	17.4
자영업	17.2	20.7	9.6	10.8	8.5	7.3
무급가족종사자	2.5	2.2	1.8	1.6	0.4	1.4
실업자	2.1	1.0	3.4	4.5	4.0	3.6
학생	0.5	1.4	4.7	4.1	3.2	2.1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21.4	15.9	14.6	15.5	16.1	11.0
비경제활동인구	22.0	17.3	19.2	19.7	19.3	13.1
미상	2.9	2.6	3.7	0.7	0.7	0.6
총계	89,383	143,208	204,761	336,324	404,189	573,020

35 - 39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상용근로자	28.0	29.9	19.6	23.2	34.4	45.2
임시근로자	20.7	20.0	23.2	28.2	25.4	19.6
일용직근로자	3.2	1.3	7.4	4.1	1.2	0.9
비정규직	23.9	21.3	30.7	32.4	26.6	20.4
자영업	24.0	31.1	9.8	14.7	12.9	8.9
무급가족종사자	2.0	1.5	2.4	1.1	0.6	0.7
실업자	1.8	1.1	1.6	4.0	3.6	3.8
학생	2.1	2.3	6.0	3.2	2.6	2.9
가사·취업준비·진학·결혼준비	17.2	10.2	26.3	20.3	18.8	17.6
비경제활동인구	19.4	12.4	32.3	23.5	21.4	20.5
미상	1.0	2.7	3.7	1.1	0.4	0.4
총계	25,255	51,546	74,443	118,795	212,239	271,036

자료: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의 원자료로 필자가 작성.

〈표 3-2-4〉 일본 미혼 여성의 취업 상황

	단위: %							
20 - 24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72.8	74.3	74.3	58.3	43.5	39.5	41.5	44.2
파견·촉탁·계약직	-	-	-	-	4.2	9.9	6.9	6.2
파트·아르바이트	3.6	3.6	4.2	15.0	19.1	14.0	15.5	11.5
비정규직	3.6	3.6	4.2	15.0	23.3	23.9	22.4	17.7
자영업·가족종사자	2.4	1.6	1.0	1.3	1.8	1.0	0.5	0.7
무직·가사	9.0	6.2	4.3	5.0	6.5	6.1	6.5	5.6
학생	11.3	13.4	15.5	17.5	19.3	26.6	25.8	27.6
미상	0.9	0.8	0.7	2.9	5.7	2.9	3.3	4.3
총계	1,106	1,337	1,783	1,754	1,394	1,187	1,371	1,023
25 - 29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72.7	75.3	82.3	69.4	59.5	56.0	54.1	59.2
파견·촉탁·계약직	-	-	-	-	6.1	14.3	9.6	12.7
파트·아르바이트	5.9	6.0	6.4	15.2	16.3	14.6	18.0	13.9
비정규직	5.9	6.0	6.4	15.2	22.4	28.9	27.6	26.7
자영업·가족종사자	3.2	5.6	1.5	3.9	3.2	2.0	2.1	2.9
무직·가사	15.0	11.2	8.4	7.5	10.4	7.7	10.1	6.8
학생	0.3	1.1	0.3	1.5	1.6	3.1	0.9	1.3
미상	2.9	0.9	1.2	2.5	3.0	2.3	5.3	3.2
총계	373	465	739	908	1,012	834	895	754
30 - 34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61.2	65.0	72.9	61.3	56.7	51.4	49.3	52.9
파견·촉탁·계약직	-	-	-	-	9.1	17.1	13.9	11.9
파트·아르바이트	6.7	5.6	9.7	16.3	14.3	14.7	15.6	17.0
비정규직	6.7	5.6	9.7	16.3	23.4	31.8	29.5	28.9
자영업·가족종사자	8.5	9.4	3.6	7.6	4.4	3.0	5.2	2.9
무직·가사	19.4	15.6	12.1	10.2	11.7	10.4	11.0	11.2
학생	0.6	0.0	0.0	0.6	0.4	1.2	0.8	1.0
미상	3.6	4.4	1.6	4.1	3.4	2.2	4.1	3.2
총계	165	160	247	344	497	502	610	412

35 - 39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	-	74.6	63.1	50.7	47.8	46.1	47.4
파견·촉탁·계약직	-	-	0.0	0.0	7.1	16.1	15.9	13.9
파트·아르바이트	-	-	5.1	13.4	10.9	14.5	15.7	15.5
비정규직	-	-	5.1	13.4	18.0	30.6	31.6	29.4
자영업·가족종사자	-	-	5.1	9.4	9.5	7.1	5.6	3.7
무직·가사	-	-	11.6	10.7	12.3	9.0	12.2	13.6
학생	-	-	0.0	0.0	1.4	0.8	0.7	-
미상	-	-	3.6	3.4	8.1	4.7	3.7	5.9
총계	-	-	138	149	211	255	472	323

자료: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각 연도). 출생동향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2. 일본의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과 노동시장의 특징

일본의 기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에 신규 졸업자의 일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이란, 기업이 졸업 예정 학생(주로 20대 전후의 신규 졸업자)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 구인을 진행하여, 재학 중 채용시험을 통해 내정을 하고, 졸업 후 바로 근무를 하는 일본의 독특한 고용관행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러한 고용관행이 뿌리를 내린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과 고도 경제성장기의 인력난으로 기업이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으로, 이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 일본의 일반적인 고용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력이 전무한 신규 졸업자가 일괄적으로 채용되면 대부분의 경우 ‘종합직’으로 기업 내 다양한 부서와 직무를 로테이션하며 승진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은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미국과 유럽 기업 등에서는 직종별로 연중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기업 등에서 상·하반기에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직원 모집 시의 연령차별 금지 및 신규 졸업자와 기존 졸업자의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동적인 채용을 위해 중도채용 및 경력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직종별 채용 및 중도채용·경력채용은 대부분 기업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하며, 일반적인 채용 자격요건으로는 학업 성적과 자격, 어학능력 및 해외 어학연수 경험 등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반면 일본은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의 채용기준이 불투명하며, 스펙보다 ‘입사 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인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인지’라는 정성적 평가를 중시하는 잠재력 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졸업자를 정기 일괄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²⁷⁾ 첫째, 신규 졸업자 채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의 경우 기업은 실적과 사업전략 등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량의 젊은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재를 조달할 수 있으며, 입사 시기가 같기 때문에 교육비용 역시 일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셋째, 내부 노동시장과 연공서열 임금을 바탕으로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구조에서는 신입사원을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세워 경쟁을 통해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조직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의 단점은 경기가 변동하면 같은 신규 졸업자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채용기회가 불균등하게 되며, 신규 졸업자와 기졸업자 사이의 채용기회 역시 균등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활동 자체도 앞당겨지

27) BIZHINT 홈페이지 <https://bizhint.jp/keyword/13309>, Diamond Online 홈페이지 <https://diamond.jp/articles/-/125389>에서 2017. 8. 29. 인출.

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취업활동에 실패한 학생은 신규졸업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낙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신규 학교 졸업자 채용·전형에 관한 윤리헌장(지침)’을 제정하고, 기업 측에 채용전형활동 조기화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은 신규 졸업자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취직 상황은 한국과 달리 구직자가 우위인 취업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시점의 대졸 취직률은 76.1%(이 중 정규직 등이 72.9%)이며, 2010년 이후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²⁸⁾ 반면 한국 대졸자들의 2015년 취업률은 64.4%로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상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유효구인배율이다. 이것은 구인 건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구인을 하는 기업이 구직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규와 정규직의 구인배율도 있는데 이것도 유효구인배율과 유사하게 신규 등록자와 정규직에 한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3-2-5〉는 한국과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체 유효구인배율은 2017년 11월 현재 1.51이고, 이를 정규직으로 한정하면 1.0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직자 우위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0.2 전후로 1보다 낮은 것은 물론 일본보다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구직자가 불리한 노동시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28) 文部科学省「学校基本調査」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icsFiles/afieldfile/2017/08/03/1388639_1.pdf에서 2017. 7. 11. 인출.

29) 단, 한국의 구인구직수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전체의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단순한 수치 비교로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유효구

〈표 3-2-5〉 유효구인배율 추이: 2016년 1월~2017년 11월

연/월	한국		일본	
	전체	정규직	전체	정규직
2016/1	0.16	0.18	1.29	0.81
2016/2	0.19	0.20	1.29	0.81
2016/3	0.21	0.25	1.31	0.83
2016/4	0.19	0.23	1.33	0.84
2016/5	0.18	0.22	1.35	0.86
2016/6	0.18	0.23	1.36	0.87
2016/7	0.17	0.20	1.37	0.87
2016/8	0.19	0.23	1.37	0.88
2016/9	0.22	0.26	1.38	0.88
2016/10	0.21	0.25	1.40	0.90
2016/11	0.21	0.25	1.41	0.91
2016/12	0.22	0.26	1.43	0.92
2017/1	0.18	0.20	1.43	0.92
2017/2	0.17	0.20	1.43	0.92
2017/3	0.22	0.28	1.45	0.94
2017/4	0.18	0.23	1.48	0.97
2017/5	0.19	0.23	1.49	0.99
2017/6	0.21	0.25	1.51	1.01
2017/7	0.17	0.21	1.52	1.01
2017/8	0.18	0.22	1.52	1.01
2017/9	0.18	0.22	1.52	1.02
2017/10	0.18	0.21	1.55	1.03
2017/11	0.18	0.21	1.56	1.05

주: 일본은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수치임.

자료: 한국 -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일본 -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について.

일본이 이렇게 구직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된 배경으로는 경기회복과 청년층 노동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동일 학력 졸업자들의 첫 월급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³¹⁾ 이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 명확하면서도 큰

인배율의 정의를 보면, 구인수의 경우에는 건수가 아닌 인원수로 계상이 되는 반면, 구직수는 동일인의 경우 한 건으로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의 수치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31)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初任給)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청년들 사이에서 대기업과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른 점이다.³²⁾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의 정착 상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 대졸자 중 신규졸업 3년 차까지의 이직률에 남녀 차가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약 30~3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³³⁾ 단, 대기업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이 높다. 일본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15~29세 청년 이직 경험률은 최근 약 60%이며 전직률(2회 이상 취업 경험을 가진 비율)은 약 55%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2000년대 초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³⁴⁾ 또한 같은 연령대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최근 18~19개월이며,³⁵⁾ 이 또한 2000년대 초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³⁶⁾

chingin/kouzou/16/02.html에서 2017. 7. 17. 인출.

32) <http://bizn.donga.com/BestClick/3/all/20170227/83078793/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30170231>에서 2017. 7. 20. 인출. 이장우 등(2010).

33) 厚生労働省「新規卒者の離職状況」<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940.html>에서 2017. 7. 18. 인출.

3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성별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성별 취업경험유무 및 횟수(졸업/중퇴 인구)」 참조.

35)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 15개월,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 2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3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첫 직장 근속기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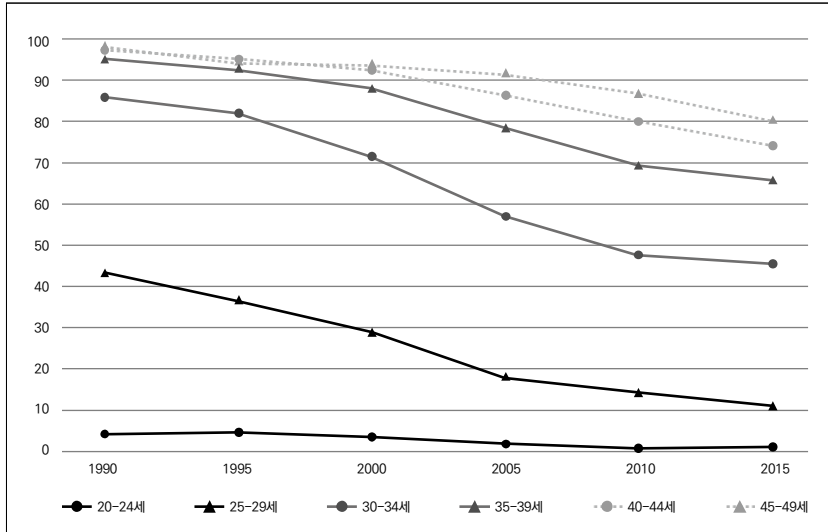
제3절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가족형성 현황

1. 청년층의 가족형성 상황

양국 청년 담론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문제를 둘러싼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족형성, 즉 결혼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패러사이트 싱글, 한국의 N포 세대와 썬더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채 나이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청년층의 결혼 상황의 변화에 관하여 유배우율과 미혼율, 초혼연령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양국의 차이를 정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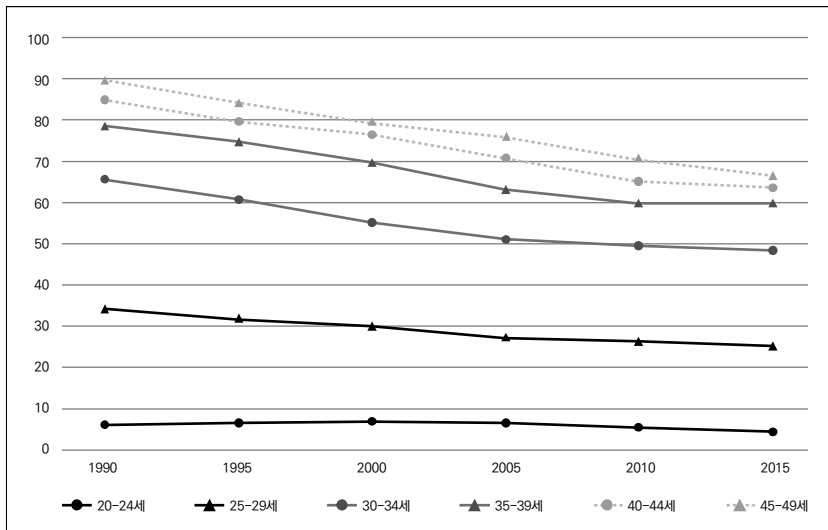
[그림 3-3-1]부터 [그림 3-3-4]은 양국의 연령계급별 유배우율 추이를 남녀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유배우율은 양국 모두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양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를 상세히 보면,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20대 초반 남성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한국 남녀의 유배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25년간 한국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상황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반면 30대 후반 이상은 일본보다 한국의 유배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녀 간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국 모두 동일한 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여성의 유배우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림 3-3-1] 한국 남성의 유배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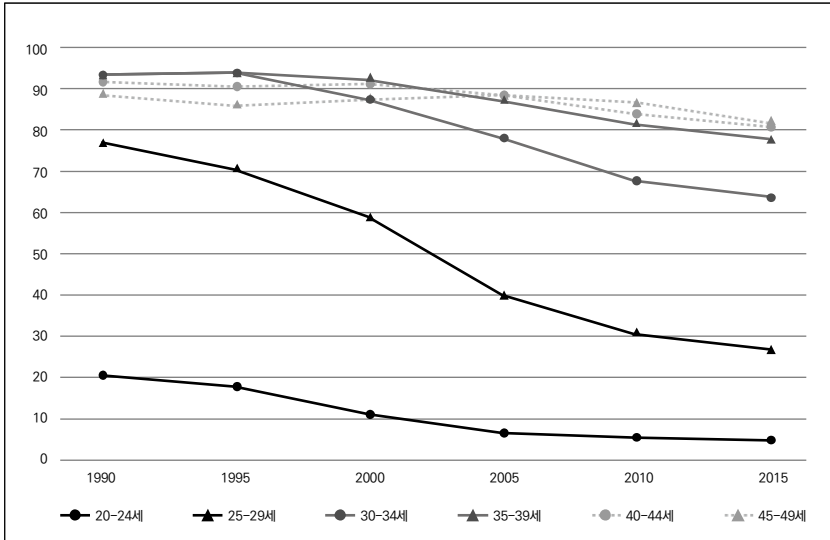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2] 일본 남성의 유배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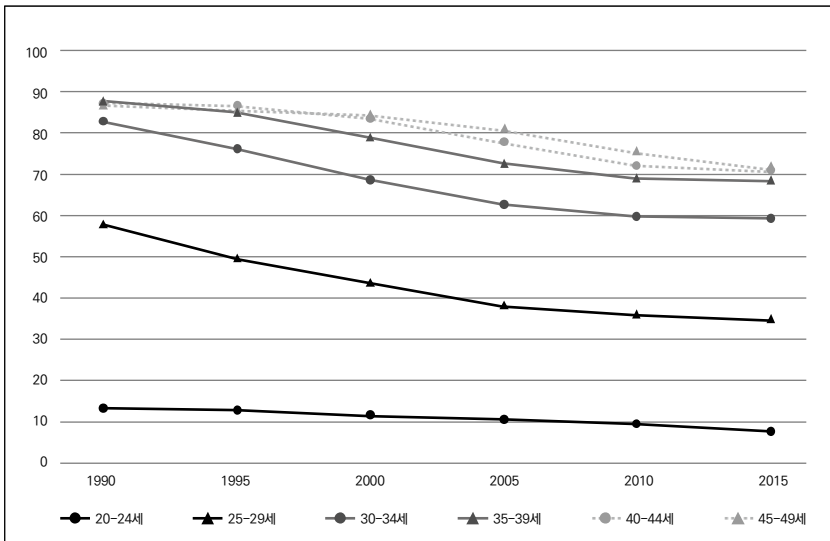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3] 한국 여성의 유배우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4]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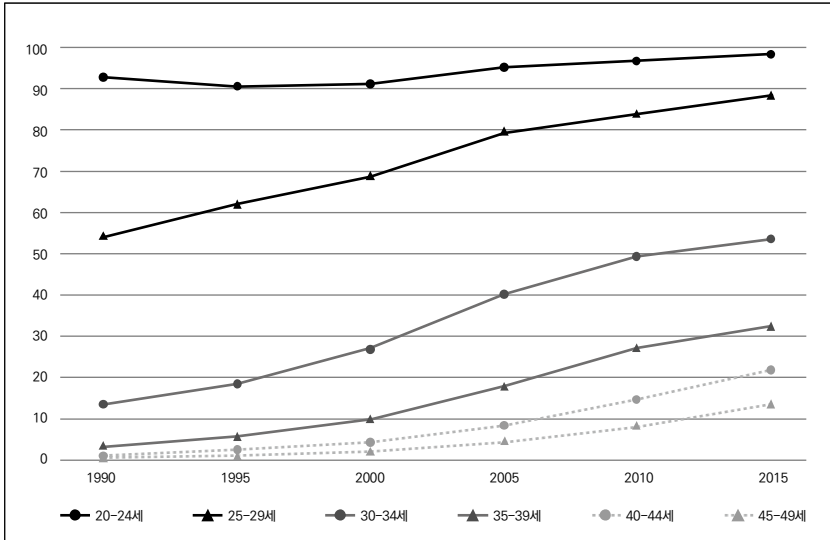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5]부터 [그림 3-3-8]은 양국의 연령계급별 미혼율 추이를 남녀별로 나타내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혼율의 경우 유배우율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양국 모두 증가 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시점에서 한국의 미혼율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특히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한국 남녀 미혼율이 눈에 띄게 급증한 반면, 일본은 2005년 이후의 경우, 같은 연령층에서 변화가 없거나 혹은 소폭 감소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본의 미혼율이 오히려 한국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경우 오히려 중년층의 미혼율 증가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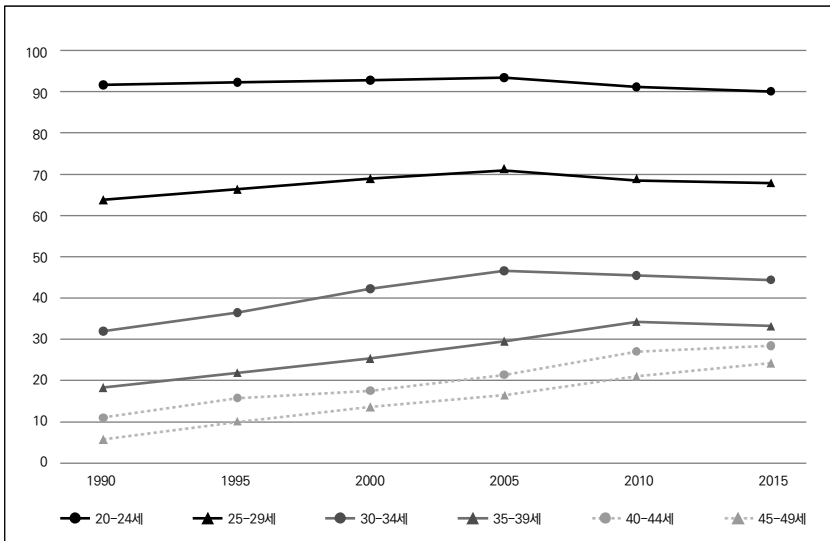
앞서 살펴봤던 유배우율 또는 미혼율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표가 초혼 연령이다. [그림 3-3-9]는 양국의 초혼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국 공통적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에는 남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으나, 남성은 1997년, 여성은 2009년에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 차이는 점점 확대되어 2016년의 양국 남성의 초혼 연령 차이는 1.6세, 여성은 0.7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5] 한국 남성의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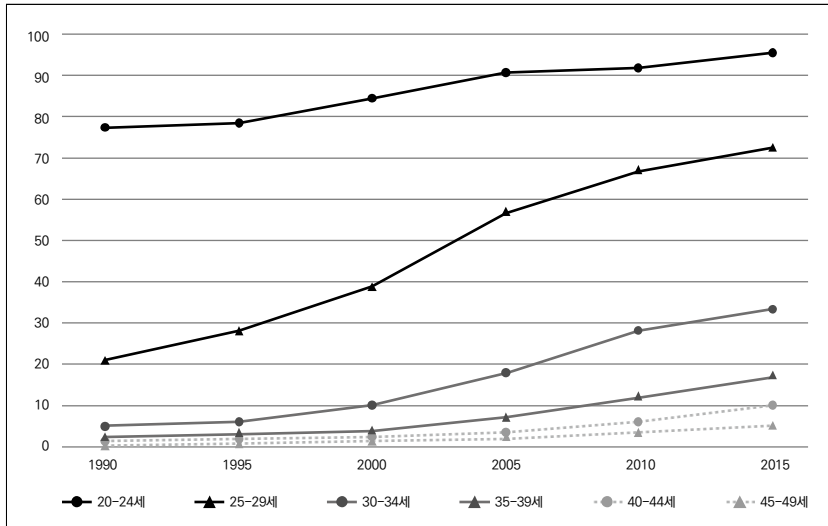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6] 일본 남성의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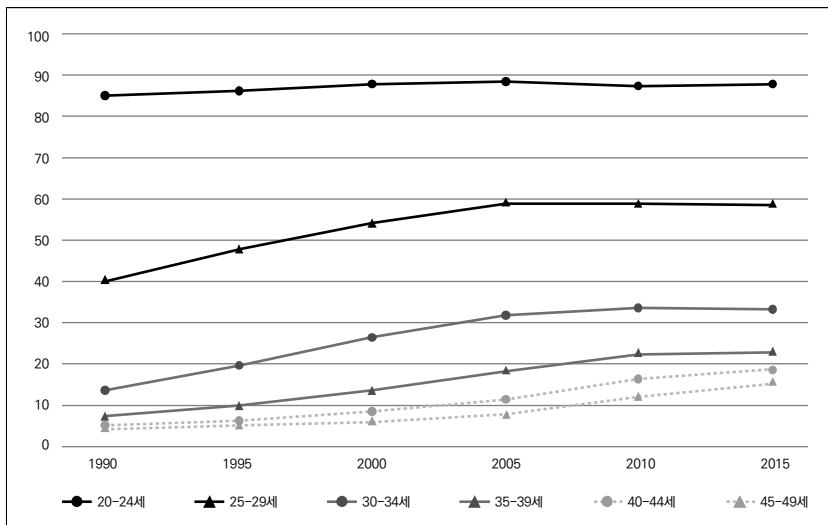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7] 한국 여성의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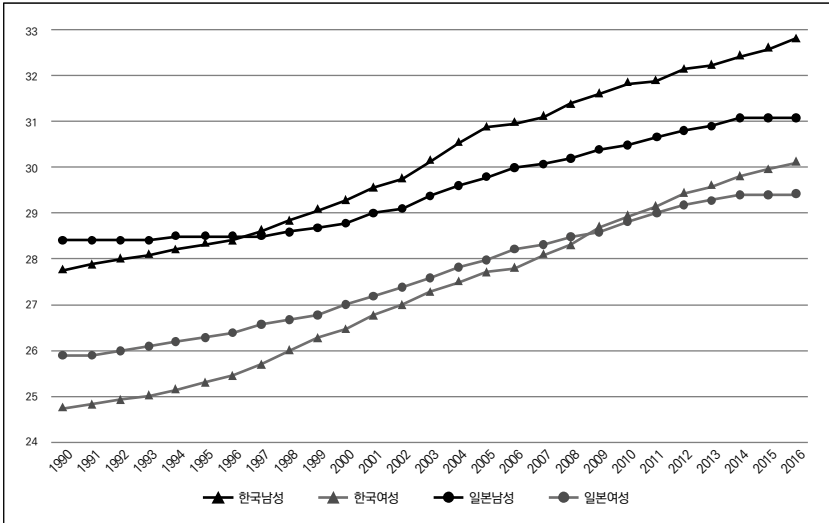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8] 일본 여성의 미혼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9]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변화(세)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2.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 청년층의 유배우율이 감소하고, 미혼율이 급격하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배경하에, 본 소절에서는 결혼 전 단계에 있는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 및 결혼 상대에 대한 조건, 결혼·가족(가족·가정 내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에 관하여 두 나라의 차이를 분석하려 한다.

〈표 3-3-1〉와 〈표 3-3-2〉은 양국 미혼 청년의 연령계급별·남녀별 결혼 의향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국 모두 결혼 의향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국의 공통점으로는 남녀 모두 20대에서의 결혼 의향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최근에 올수록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결혼 의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30대 이상의 경우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50%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결혼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여성을 중심으로 특히 30대 이상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 청년 비율이 남녀 모두 약 80% 이상으로 비교적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 계급별로 보면 20대(여성은 20대 초반)를 정점으로 30대로 접어들면 감소하게 되고, 30대 후반의 경우 최근에는 70%대로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남정보다 여성의 결혼의향이 평균적으로 높지만, 30대 후반이 되면 남녀 비율이 역전되는 특징이 있다.

〈표 3-3-1〉 한일 청년 남성의 결혼의향

단위: %

		한국 남성				일본 남성		
		2005	2009	2012	2015	2005	2010	2015
총계	할생각임	82.5	75.7	79.3	74.5	86.2	84.9	83.5
	안할생각임	5.6	7.6	8.5	9.9	7.9	10.5	14.0
	모르겠음	12.0	16.7	12.1	15.6	6.0	4.6	2.5
20~24세	할생각임	85.7	77.1	87.4	79.5	87.7	88.0	88.2
	안할생각임	2.5	4.7	2.4	4.9	6.8	8.7	9.2
	모르겠음	11.8	18.2	10.2	15.6	5.5	3.3	2.6
25~29세	할생각임	85.6	80.7	82.6	79.3	88.0	88.2	83.4
	안할생각임	4.8	5.3	4.6	6.7	6.9	7.7	15.0
	모르겠음	9.6	14.0	12.7	14.1	5.1	4.1	1.6
30~34세	할생각임	80.6	80.4	80.5	74.1	83.7	81.9	83.3
	안할생각임	5.5	6.8	8.0	13.2	9.0	12.9	14.4
	모르겠음	13.9	12.7	11.5	12.7	7.3	5.1	2.3
35~39세	할생각임	64.5	51.2	62.7	60.8	81.8	76.0	74.2
	안할생각임	19.1	23.7	22.7	19.8	10.9	16.5	21.6
	모르겠음	16.4	25.1	14.5	19.4	7.3	7.5	4.1

		한국 남성				일본 남성		
		2005	2009	2012	2015	2005	2010	2015
40~44세	할생각임	-	-	-	65.9	-	-	-
	안할생각임	-	-	-	18.8	-	-	-
	모르겠음	-	-	-	15.2	-	-	-
45~49세	할생각임	-	-	-	52.8	-	-	-
	안할생각임	-	-	-	21.4	-	-	-
	모르겠음	-	-	-	25.8	-	-	-

주: 한국 자료에서 '할 생각임', '안 할 생각임', '모르겠음'에 상응하는 일본 자료의 응답은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임', '일생 동안 결혼할 생각이 없음', '미상'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各年度). 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표 3-3-2〉 한일 청년 여성의 결혼의향

단위: %

		한국 여성				일본 여성		
		2005	2009	2012	2015	2005	2010	2015
총계	할생각임	73.8	73.1	72.4	64.7	88.6	87.4	86.9
	안할생각임	8.8	10.0	10.3	13.9	6.3	8.0	10.2
	모르겠음	17.4	16.9	17.3	21.5	5.0	4.6	2.9
20~24세	할생각임	75.5	77.2	77.5	71.6	91.5	91.4	91.4
	안할생각임	7.7	5.2	5.7	6.6	4.5	5.4	6.3
	모르겠음	16.9	17.7	16.8	21.8	4.0	3.2	2.3
25~29세	할생각임	76.0	77.2	77.0	74.3	91.8	89.3	88.6
	안할생각임	6.1	7.5	6.5	13.0	4.1	6.5	8.8
	모르겠음	17.9	15.3	16.4	12.7	4.1	4.2	2.7
30~34세	할생각임	69.2	65.2	67.6	54.6	84.3	84.9	84.2
	안할생각임	13.1	22.2	13.2	17.7	9.2	9.3	13.1
	모르겠음	17.7	12.7	19.3	27.8	6.6	5.7	2.7
35~39세	할생각임	50.0	39.5	43.8	34.5	73.3	74.2	72.4
	안할생각임	31.0	36.9	37.5	33.9	16.9	17.8	22.3
	모르겠음	19.0	23.4	18.7	31.5	9.8	8.0	5.3
40~44세	할생각임	-	-	-	39.6	-	-	-
	안할생각임	-	-	-	27.3	-	-	-
	모르겠음	-	-	-	33.0	-	-	-
45~49세	할생각임	-	-	-	25.4	-	-	-
	안할생각임	-	-	-	45.8	-	-	-
	모르겠음	-	-	-	28.8	-	-	-

주: 한국 자료에서 '할 생각임', '안 할 생각임', '모르겠음'에 상응하는 일본 자료의 응답은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임', '일생 동안 결혼할 생각이 없음', '미상'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各年度). 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표 3-3-3〉, 〈표 3-3-4〉는 양국 미혼 청년들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을 남녀별로 나타내고 있다.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족·가정 내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으로, 한국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일본은 ‘결혼 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반 비율이다. 한국은 2000년대까지 찬성이 찬성하지 않음을 웃돌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오면 남녀 모두 상황이 역전되어 지금은 일본보다 높은 약 80%가 전통적 가족관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는 찬성이 반대를 웃돌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찬반이 역전되어 지금은 남녀 모두 약 70%가 전통적인 가족관에 반대하고 있다.

〈표 3-3-3〉 한일 청년 남성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

단위: %

		2005	2009	2012	2015
한국	절대 찬성	17.2	20.4	4.0	2.4
	대부분 찬성	49.9	49.3	29.5	17.6
	그다지 찬성하지 않음	29.0	27.2	51.2	55.3
	전혀 찬성하지 않음	3.8	3.1	15.3	24.7
		2002	2005	2010	2015
일본	찬성	40.3	36.2	36.0	30.7
	반대	51.8	58.1	60.1	66.6
	미상	7.9	5.6	4.0	2.8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표 3-3-4〉 한일 청년여성의 결혼·가족에 관한 의식

단위: %

		2005	2009	2012	2015
한국	절대 찬성	10.9	17.4	4.2	2.0
	대부분 찬성	40.1	47.6	20.2	11.7
	그다지 찬성하지 않음	41.3	29.0	48.9	51.5
	전혀 찬성하지 않음	7.7	6.0	26.8	34.8

		2002	2005	2010	2015
일본	찬성	28.9	28.7	31.9	28.6
	반대	64.7	66.9	64.7	69.5
	미상	6.3	4.4	3.4	1.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3)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5). 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마지막으로 결혼상대를 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 남성은 성격, 신뢰와 애정, 건강 순이고, 여성은 성격, 경제력, 신뢰와 애정, 가정 환경 순으로 중시하고 있는 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일본 남성의 경우 인품, 가사·육아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 용모, 공통 취미의 유무, 여성의 경우 인품, 가사·육아 능력, 경제력,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 직업을 꼽고 있다(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7b).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따지는 경향이 일본보다 약한데 비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해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매우 중시하는 모습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층의 주거 형태와 자립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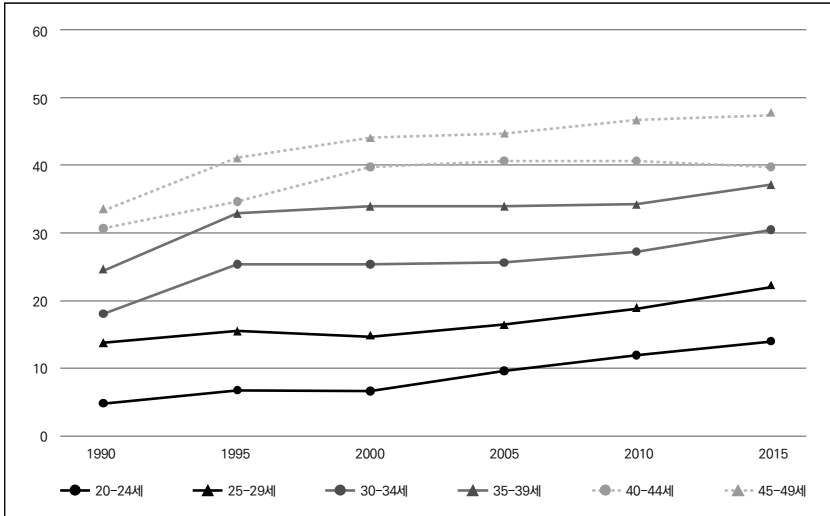
한국의 켄거루족과 일본의 패러사이트 싱글이 상징하는 것처럼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현대사회 청년 문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가 주창한 ‘패러사이트 싱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의하면,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확한 연령구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성인기를 지난 청년들을 지칭한다(山田, 1999). 앞서 언급한 Arnett의 ‘발현 성인기’에서는 주거가 계속 바뀌는 시기라고 하고 있으나, 야마다 마사히로의 ‘패러사이트 싱글’은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패러사이트 싱글’은 ‘발현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구별되는 측면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여유를 만끽하며 즐긴다는 것이다. 즉 독립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주거 관련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을 모두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비슷한 또래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후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수입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山田, 1999, p. 21). 또한,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높는데, 결혼 후에도 그러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혼·만혼화가 촉진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배우자 관계별로 청년층의 주거형태 동향을 고찰하고 분가시기에 대한 양국의 차이를 정리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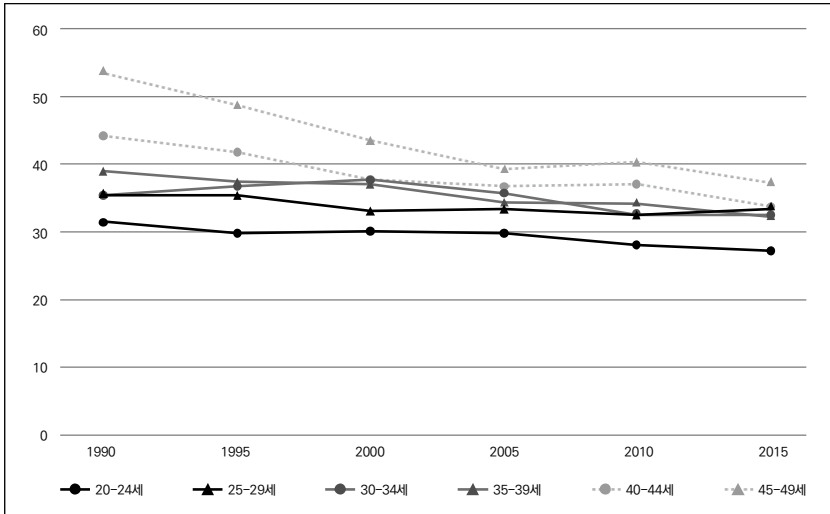
[그림 3-3-10]부터 [그림 3-3-13]은 양국의 연령계급별 미혼인구의 1인 가구 비율 추이를 남녀별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결혼 유무 및 성별로 구분된 1인 가구 및 부모 동거 여부의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의 원 데이터(raw data)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의 30대에서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하락세이다. 한국의 30대 후반 이상의 미혼 인구는 남녀 모두 일본의 동일 연령층 미혼 인구보다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데 비해, 한국은 30대 후반 이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이는 일본의 청년 미혼 인구가 30대 이후 연령이 높아 지더라도 분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3-10] 한국 미혼 남성의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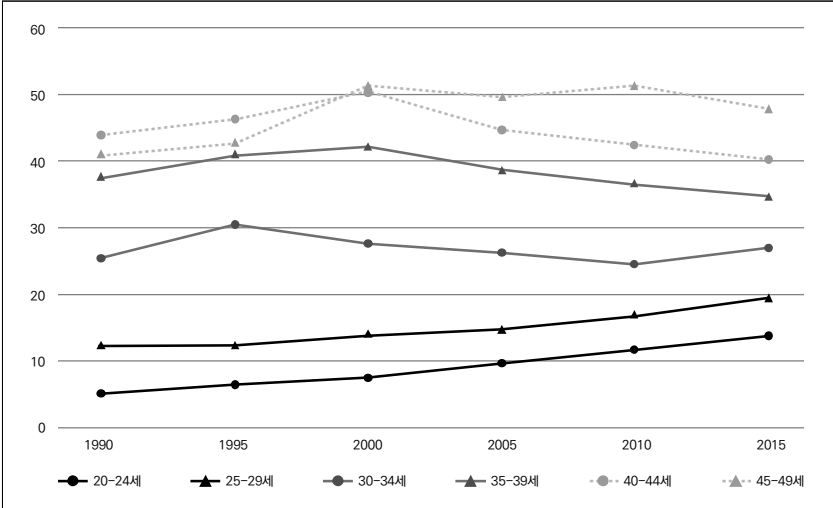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1] 일본 미혼 남성의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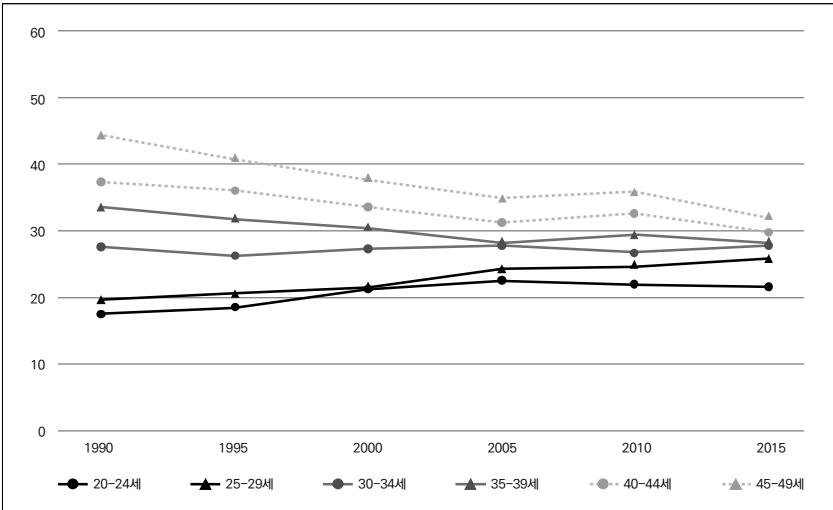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2] 한국 미혼 여성의 1인 가구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 (各年度), 国勢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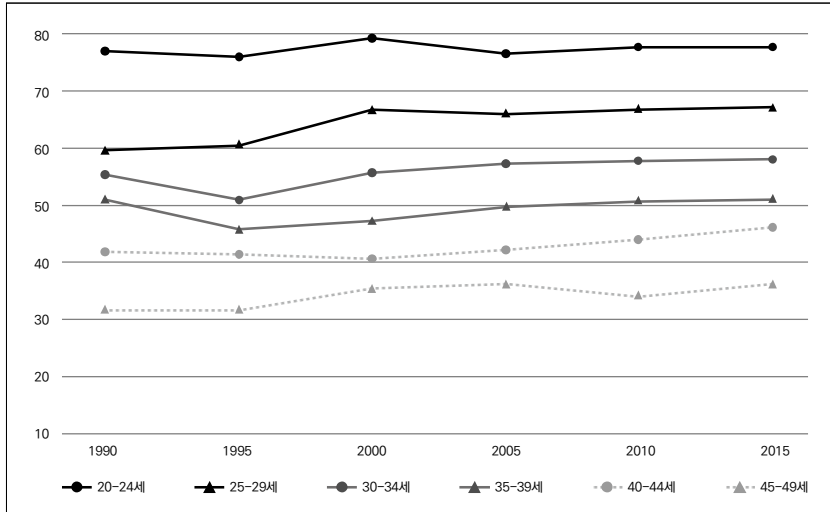
[그림 3-3-13] 일본 미혼 여성의 1인 가구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 (各年度), 国勢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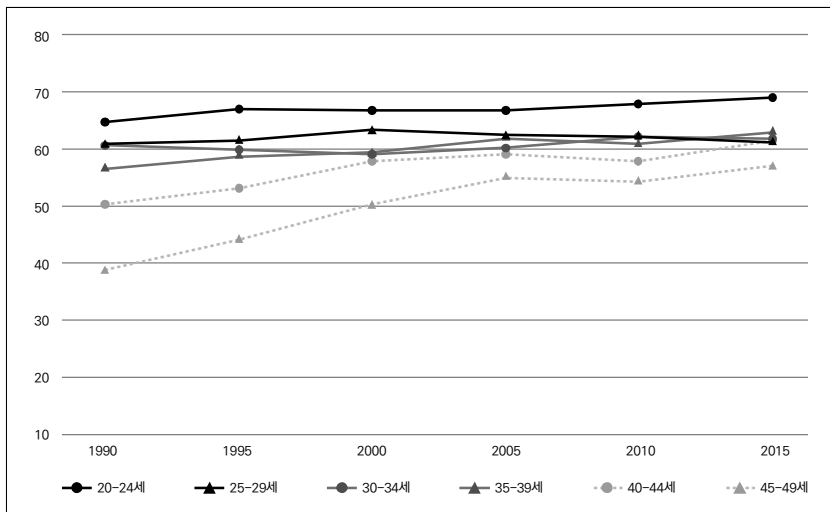
[그림 3-3-14]부터 [그림 3-3-17]은 양국의 연령계급별 미혼 인구의 부모 동거 비율 추이를 남녀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는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여성은 30대부터 40대 초반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남녀 모두 30대 후반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남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부모 동거 비율이 높거나 유사한 것에 반하여, 30대 이상의 경우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부모 동거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않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 일본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대 이상이 되면 부모의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를 지속하는 미혼자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 동거 비율을 같은 연령층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일본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30대 후반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4] 한국 미혼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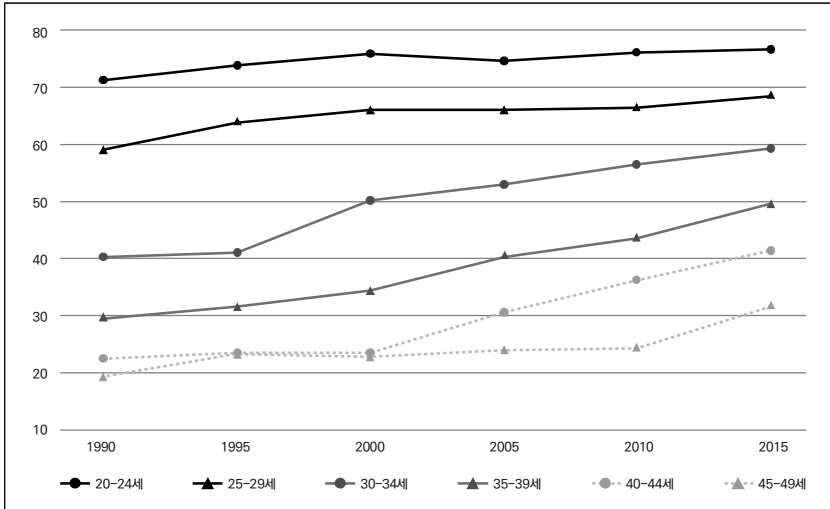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 (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5] 일본 미혼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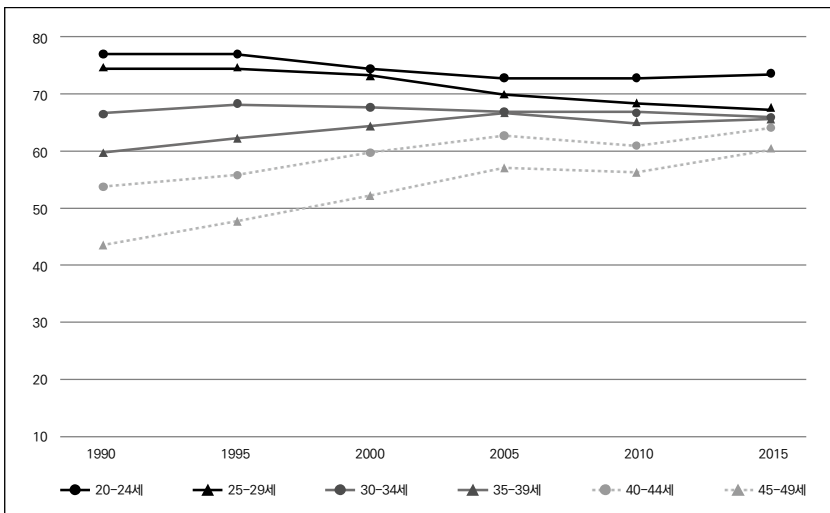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 (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6] 한국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7] 일본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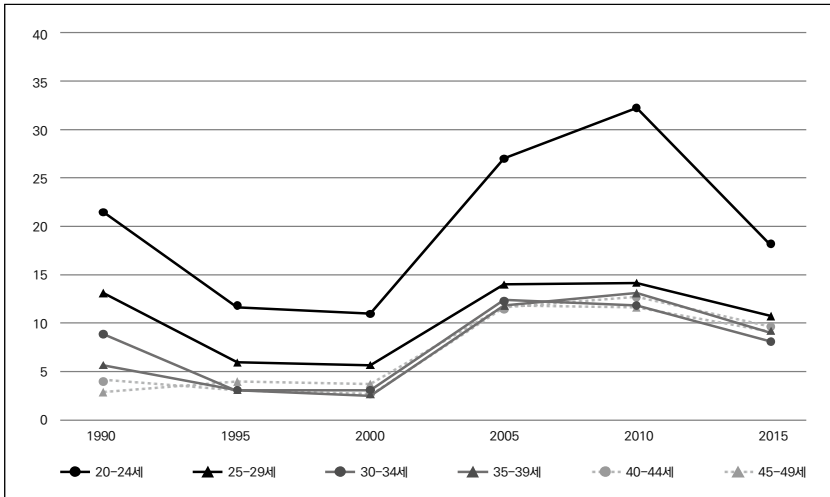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8]부터 [그림 3-21]은 양국의 연령계급별 유배우 부모 동거 비율의 추이를 남녀별로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보면, 한국은 1990년 초중반에 비교적 낮았던 유배우 부모 동거 비율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20대 초반의 남녀에서 급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20대 초반의 유배우 수가 적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 것과 주거비용이 높아 경제적으로 세대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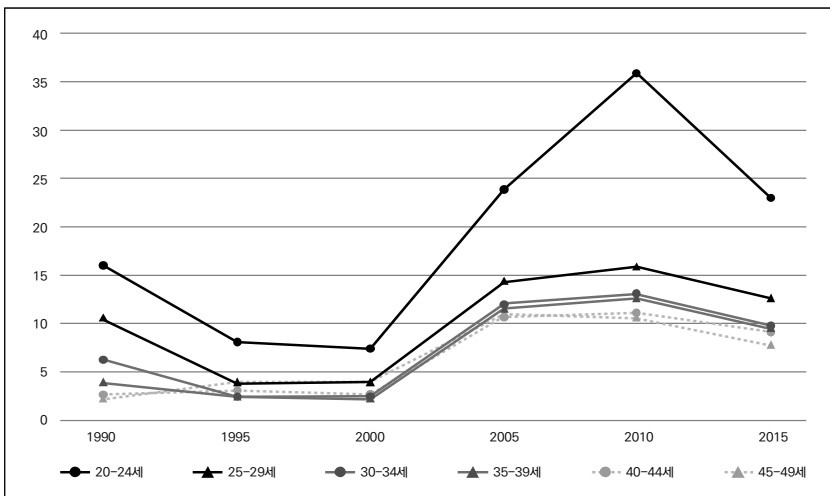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2대·3대가 함께 사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배우자의 부모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부모 동거 비율을 보면, 20대 초반과 40대 후반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세대 분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위에서 언급한 부모의 고령화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8] 15-1 한국 남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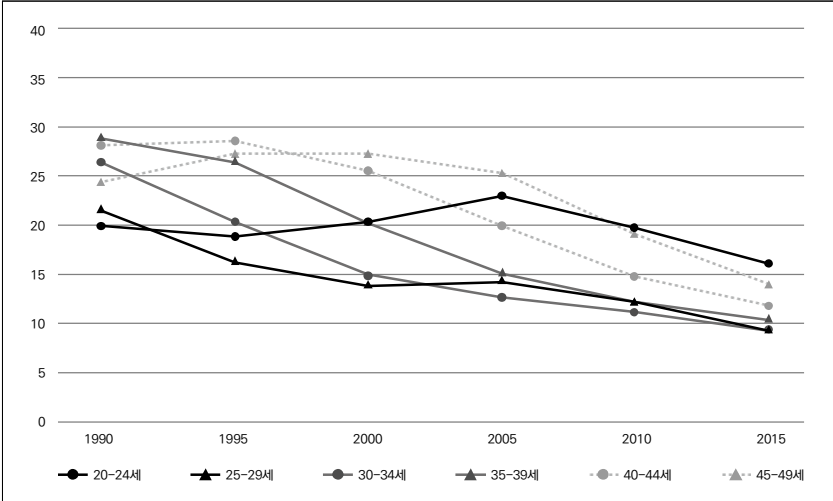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19] 15-2 한국 여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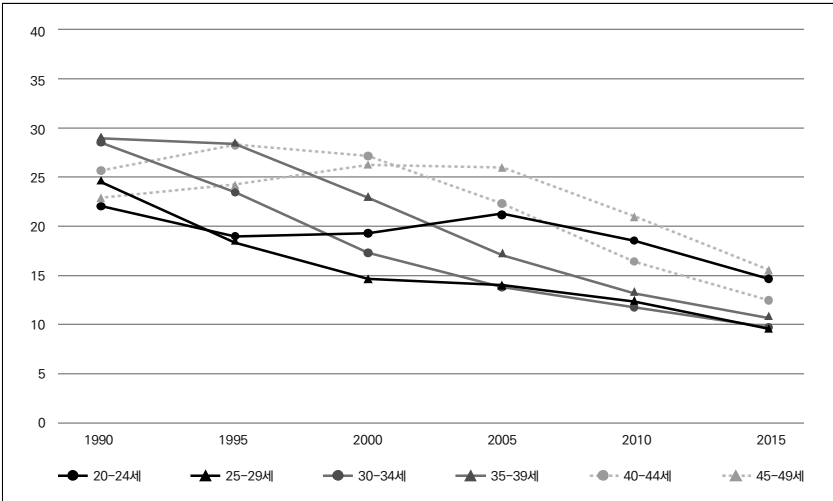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20] 일본 남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그림 3-3-21] 일본 여성의 유배우·부모 동거 비율(%)



자료: 한국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일본 -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청년 담론부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취업 및 분가), 가족형성, 미혼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의식, 취업 등에 관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감소와 비취업자의 비율 증가가 현저한 반면, 20대 여성은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진출 향상 등으로 취업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남성보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일본은 남녀 모두 동일 연령대를 비교할 때, 한국보다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비취업자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양국 모두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 비율도 동일 연령대를 비교하면 남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율이 회복되었고, 비정규직 비율도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남성과 20대 초반 여성을 중심으로 학생, 가사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고용에 있어서 양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정규직 비율 감소, 비정규직화 등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반면, 여성은 30대 초반부터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남녀 모두 정규직 비율 감소와 비정규직화와 같은 고용 악화 상태가 심해졌지만, 2010~2015년에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20대 후반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화(니트화)가 눈에 띄지만,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 이외에는 무직·가사 비율이 감소해 경제활동참가율 향상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단, 남녀 모두 30대가 되면 20대 후반보다 고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특징으로는 신규졸업자를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채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이렇게 신규 졸업자 정기 일괄채용을 하는 이유는 ① 젊은 노동력의 대량 및 안정적 확보, ②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인력충원이 가능한 점 및 교육비용 억제, ③내부 노동시장과 연공서열 임금제도를 바탕으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조직의 일체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 향상, 조직 피라미드 구조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채용의 단점으로는 세대 간, 신규 졸업자·기존 졸업자 간 채용기회의 불균형, 학업에 대한 악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구직자 우위 취업시장으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기회복과 청년층 노동력 부족 이외에 동일 학력 졸업자의 첫 임금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층 가족형성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유배우율 감소와 미혼율 증가가 나타나지만,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과거 높은 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유배우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상대적으로 낮았던 한국의 미혼율도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남녀에서 급상승해 현재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0대 후반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의 유배우율이 일본보다 높았으나, 미혼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그다지 낮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남녀 모두 결혼의사가 높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낮았고, 30대 후반 이상이 되면 결혼에 대해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의식이 특히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및 가정 내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은 양국 모두 전통적인 가족관에 부정적이었고, 한국에서 특히 그러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혼 상대에 대한 조건으로는 남성은 여성에 대해 성격과 인품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이 남성에 대해 경제력을 요구하는 모습은 양국의 공통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거주형태 동향을 배우관계별로 분석하고, 분가시기에 대한 양국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여성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일 연령대(40대 후반 포함)에서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30대 후반 이후는 남녀 모두 일본의 동일한 연령층보다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였다. 한편 미혼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한국 남성의 경우 변화가 없거나 다소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30대부터 40대에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대에서는 남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부모 동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은 30대 후반 이후가 되면 분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청년 미혼의 경우는 30대 이후의 연령이 되어도 분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세대 분가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모의 고령화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제1절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

제2절 경제적 자립과 결혼

제3절 소결

4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립은 취업과 부모로부터의 독립(분가)으로 정의하였고, 가족형성에는 결혼은 물론 결혼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성교제를 포함한다.

제1절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

제3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50세의 미혼율인 생애 미혼율은 2015년 남성 23.4%, 여성은 14.1%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7a), 한국은 남성이 10.9%, 여성이 5.0%로,³⁷⁾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애미혼율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은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범이 지배적인 국가이기 때문에,³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을 출산의 선행지표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혼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과의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녀가 처음 대면한 순간이 결혼식인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에

37) 2015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로 필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임.

38)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2016년 1.9%이고(kosis의 인구동태통계로 필자 계산), 일본의 경우는 2.3%임(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7a).

서나 가능한 일이며,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는 남녀가 만나 서로에 대한 탐색 기간을 거쳐 이 사람이 자신의 결혼 상대로서 알맞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청년의 이성교제 비율은 남성이 30.4%, 여성이 33.2%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일본 남성이 30.2%, 여성이 40.9%로(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a), 양국의 청년들의 반 수 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건수가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성교제가 모두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교제는 결혼의 조건부 확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이성교제라는 조건이 부여된 이후에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라는 이벤트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또는 학계에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성교제 만남을 위한 사이트가 제공되고 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청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석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년들의 이성교제 현황과 그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자료 및 변수

한국의 데이터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만 20~44세 미혼자 조사)’, 일본은 JGGS를 이용한다. 일본 데이터의 경우, 이성교제에 관한 사항이 제2차(2007)부터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지만, 제4차 데이터(2013)에서 청년데이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을 한다. 분석 대

상은 한국과 일본의 결혼을 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 남녀이다. 단, 학생은 이성교제 결정구조가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은 경제적인 요인, 즉 직업 및 소득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이고,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소득, 종사상 지위, 직업, 기업규모이며, 근로시간, 그리고 가치관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결혼에 관한 의향, 가족 내 부부 역할을 도입하였다. 소득은 한국 데이터의 경우, 소득의 분포를 고려하여 ‘소득 없음’, ‘180만 원 미만’, ‘180~220만 원 미만’, ‘22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연속 변수로 조사된 것이 아닌 카테고리형 변수로 조사가 되어 있는 관계로 연속 변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 예를 들어, 1~100만 엔의 경우에는 50만 엔, 100~200만 엔의 경우에는 150만 엔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소득 없음’, ‘150만 엔 미만’, ‘150~250만 엔 미만’, ‘250만 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양국 모두 ‘자영업·가족종사자’, ‘고용노동자(정규직)’, ‘고용노동자(비정규직)’, ‘비경활자(비경제활동 인구)’이며, 직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그 외 직업’, ‘비경활자’로 구분하였다.

기업규모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비경활자’로 구분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에서 ‘대기업’은 300인 이상의 기업, ‘중소기업’은 50~299인이 종사하는 기업, ‘소기업’은 5~49인이 종사하는 기업, ‘개인사업체’는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달라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

기업'의 경우는 한국과 같지만, '중소기업'은 30~299인, '소기업'은 5~29인으로 한국과 다르며, '개인사업체'는 5인 미만으로 한국과 동일하다.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분포를 고려하여 '40시간 이하', '41~50시간 이하', '51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연속변수가 아닌 카테고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41시간 이하', '42~48시간 이하', '49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의향은 한국의 경우, '귀하는 혼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모르겠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의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귀하는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꼭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모르겠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절대 하고 싶지 않다'의 5개 척도인 변수로 구성되었다.⁴⁰⁾ 가족 내 부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가치관1)',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가치관2)'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개 척도로 측정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유사한 문항이지만,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별로 찬성하지 않음', '반대'의 5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두 가치관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 관점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찬성할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데이터는 2007년과 2013년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 더미를 구축하여 분석

40) 일본의 결혼 의향 문항과 비교하여 한국의 문항은 결혼 의향이기보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조사에도 결혼 의향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나, 선택지가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결혼 필요성으로 대체한 것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에 도입한다.

한국과 일본 청년 남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분석은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logit 모형은 종속변수가 제한적일 때(limited dependent variable)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여부, 즉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0, 하는 경우가 1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logit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분석법은 이성교제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고, 오즈비(odds ratio)로 나타낼 경우, 설명변수에 따른 확률의 크기를 비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효과를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2. 응답자 특성

남성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직종은 기타를 제외하면 사무직이 25.4%로 가장 많았고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고용노동자가 73.1%,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40.0%로 나타났다. 소속 직장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31.3%, 소득은 월평균 205만 원으로 77.7%가 취업상태였다. 결혼의향은 5점(반드시 해야 한다) 척도 기준 4.589점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은 25~29세가 40.2%로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 51.5%로 가장 많았고 63.9%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직종은 기타를 제외하면 서비스·판매직이 26.2%로 가장 많았고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고용노동자가 68.8%, 근무시간은 49시간 이상 근무가 48.8%로 나타났다. 소속 직장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33.7%, 소득은 연평균 275만 엔으로 90.5%가 취업상태였다. 결혼의향은 5점(반드시 해야 한다) 척도 기준 3.936점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29.6%로 학력은 고졸 미만이 39.4%로 가장 많았고 79.9%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응답자 특성: 남성

	한국			일본		
	obs	평균	표준편차	obs	평균	표준편차
직종						
관리·전문		0.146	0.353		0.148	0.355
사무	995	0.254	0.436	427	0.183	0.387
서비스·판매		0.232	0.422		0.262	0.440
그외*		0.368	0.482		0.407	0.492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		0.093	0.290		0.089	0.285
고용노동자(정규직)*	983	0.731	0.443	427	0.688	0.464
고용노동자(비정규직)		0.176	0.381		0.223	0.417
근무시간 ²⁾						
40시간이하*		0.400	0.490		0.309	0.463
41~50시간미만	979	0.324	0.468	424	0.302	0.460
51시간이상		0.276	0.447		0.389	0.488
기업규모						
공공기관및공무원		0.078	0.269		-	-
대기업		0.149	0.357		0.286	0.452
중소기업*	984	0.313	0.464	409	0.337	0.473
소기업		0.253	0.435		0.252	0.435
개인사업자		0.206	0.405		0.125	0.331
소득	977	205.751	86.942	424	275.472	164.273
취업 유무(취업 = 1)	1,261	0.777	0.416	473	0.905	0.294
결혼의향	1,257	4.589	0.946	467	3.936	0.938
연령						
25세 미만		0.299	0.458		0.296	0.457
25~29세*	1,261	0.402	0.490	473	0.294	0.456
30~34세		0.209	0.407		0.241	0.428
35~39세		0.090	0.287		0.169	0.375
학력						
고졸		0.188	0.391		0.394	0.489
2·3년제대졸	1,261	0.296	0.457	469	0.235	0.424
4년제대졸 이상*		0.515	0.500		0.371	0.484
가치관1	1,250	2.296	0.762	472	3.049	0.973
가치관2	1,250	1.975	0.753	472	2.996	1.086
부모와동거(동거=1)	1,261	0.639	0.480	473	0.799	0.401
2007년더미	-	-	-	473	0.567	0.496

주: 1) *는 레퍼런스 변수를 나타냄.

2) 일본의 근무시간은 '41시간 이하', '42~48시간', '49시간 이상'으로 레퍼런스는 '41시간 이하'임.

여성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 여성의 직종은 기타를 제외하면 사무직이 44.2%로 가장 많았고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고용노동자가 74.3%,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52.9%로 나타났다. 소속 직장의 기업규모는 소기업이 26.3%, 소득은 월평균 173만원으로 77.7%가 취업상태였다. 결혼의향은 5점(반드시 해야 한다) 척도 기준 4.418점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은 25-29세가 40.2%,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 51.5%로 가장 많았고 71.9%가 부모와 동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직종은 기타를 제외하면 사무직이 37.3%로 가장 많았고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고용노동자가 58.2%, 근무시간은 41시간 이하 근무가 51.1%로 나타났다. 소속 직장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35.9%, 소득은 연 평균 217만 엔으로 90.1%가 취업상태였다. 결혼의향은 5점(반드시 해야 한다) 척도 기준 3.992점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35.7%로 학력은 2·3년제 대졸이 39.9%로 가장 많았고 84.8%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응답자 특성: 여성

	한국			일본		
	obs	평균	표준편차	obs	평균	표준편차
직종						
관리·전문		0.317	0.466		0.226	0.419
사무		0.442	0.497		0.373	0.484
서비스·판매	903	0.200	0.400	456	0.292	0.455
그외*		0.041	0.198		0.110	0.313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		0.072	0.259		0.013	0.114
고용노동자(정규직)*	888	0.743	0.437	457	0.582	0.494
고용노동자(비정규직)		0.185	0.388		0.405	0.491
근무시간 ²⁾						
40시간이하*		0.529	0.499		0.511	0.500
41~50시간미만	890	0.317	0.466	456	0.296	0.457
51시간이상		0.154	0.361		0.193	0.395

	한국			일본		
	obs	평균	표준편차	obs	평균	표준편차
기업규모						
공공기관및공무원		0.158	0.365	-	-	-
대기업		0.134	0.341	0.314	0.464	
중소기업*	887	0.203	0.402	437	0.359	0.480
소기업		0.263	0.440		0.263	0.441
개인사업자		0.242	0.429		0.064	0.245
소득	881	173.804	81.076	452	217.699	121.415
취업 유무(취업 = 1)	1,162	0.777	0.416	507	0.901	0.298
결혼의향	1,159	4.418	1.070	499	3.992	0.957
연령						
25세 미만		0.299	0.458		0.357	0.480
25~29세*	1,162	0.402	0.490	507	0.331	0.471
30~34세		0.209	0.407		0.193	0.395
35~39세		0.090	0.287		0.118	0.323
학력						
고졸		0.188	0.391		0.298	0.458
2·3년제대졸	1,162	0.296	0.457	504	0.399	0.490
4년제대졸 이상*		0.515	0.500		0.304	0.460
가치관1	1,160	2.057	0.794	506	2.925	1.018
가치관2	1,160	1.586	0.723	505	2.836	1.114
부모와동거(동거=1)	1,162	0.719	0.449	507	0.848	0.359
2007년더미	-	-	-	507	0.663	0.473

주: 1) *는 레퍼런스 변수를 나타냄.

2) 일본의 근로시간은 '41시간 이하', '42~48시간', '49시간 이상'으로 레퍼런스는 '41시간 이하'임.

먼저 전체적인 이성교제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33.3%, 일본 남성은 29.3%로 한국 남성이 4%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한국은 36.5%, 일본은 39.0%로 일본 여성의 이성교제 비율이 2.5%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있음	33.3	(414)	29.3	(214)
없음	66.7	(829)	70.7	(300)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전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4〉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있음	36.5	(413)	39.0	(177)
없음	63.5	(718)	61.0	(277)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비율은 양국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35세 전후에서는 바로 전 연령계급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그 경계선(threshold)이 30세 전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 남성, 그리고 일본 여성과 다른 점이며, 일본 여성의 경우는 35세 전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5〉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25세 미만	45.8	(186)	39.1	(128)
25~29세	39.1	(452)	27.8	(126)
30~34세	30.8	(400)	28.3	(99)
35~39세	14.0	(205)	15.3	(72)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6〉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25세 미만	42.5	(230)	41.6	(161)
25~29세	41.8	(384)	44.0	(150)
30~34세	29.5	(190)	37.5	(88)
35~39세	20.7	(74)	20.0	(55)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이성교제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한국이 학력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일본은 뚜렷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

〈표 4-1-7〉 학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고졸 이하	29.2	(415)	33.3	(165)
2·3년제 대학	35.0	(287)	28.9	(97)
4년제 대학 이상	35.5	(541)	24.4	(160)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8〉 학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고졸 이하	40.0	(183)	39.9	(133)
2·3년제 대학	37.2	(234)	36.7	(180)
4년제 대학 이상	36.7	(461)	42.0	(138)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취업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비율은 한국 남성의 경우 취업한 경우의 이성교제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양국 모두 취업한 경우에 이성교제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9〉 취업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취업함	35.0	(998)	29.2	(425)
취업 안 함	26.4	(245)	31.1	(45)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0〉 취업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취업함	37.5	(903)	39.0	(878)
취업 안 함	32.4	(228)	24.0	(253)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직종에 따라서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 사무직의 경우에 이성교제 비율이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 남성은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높고, 그 이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이성교제비율의 크기가 양국 모두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순으로 한국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1〉 직종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관리·전문직	36.2	(134)	28.6	(63)
사무	41.4	(219)	28.6	(77)
서비스·판매직	33.0	(230)	31.5	(111)
그 외	32.2	(396)	28.3	(173)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2〉 직종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관리·전문직	31.7	(249)	35.0	(103)
사무	43.9	(412)	42.3	(168)
서비스·판매직	33.5	(189)	40.9	(132)
그 외	22.8	(28)	32.0	(50)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은 남성의 경우 양국 모두 정규직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며 비정규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양국 모두 비정규직일 경우에 가장 높고 자영업·가족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1-1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자영업·가족종사자	29.1	(72)	26.3	(38)
고용노동자(정규직)	38.0	(707)	31.7	(290)
고용노동자(비정규직)	25.9	(188)	23.2	(95)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자영업·가족종사자	22.8	(51)	33.3	(6)
고용노동자(정규직)	37.5	(675)	38.6	(264)
고용노동자(비정규직)	41.4	(139)	39.7	(184)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이성교제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서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과반수를 넘는 비율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소기업 및 개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양국 모두 중소기업에 종사할 경우 이성교제비율이 가장 높고, 소기업 및 개인사업장의 경우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성교제비율을 근로시간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양국 남녀 모두 명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표 4-1-15〉 기업규모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공공기관 및 공무원	55.4	(92)	-	-
대기업	50.4	(155)	26.1	(115)
중소기업	29.4	(270)	24.8	(137)
소기업	31.9	(261)	33.0	(103)
개인사업장	24.5	(190)	39.2	(51)

주: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비율이 적어서 대기업과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6〉 기업규모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공공기관 및 공무원	39.9	(105)	-	-
대기업	42.1	(126)	41.5	(135)
중소기업	45.7	(195)	42.0	(157)
소기업	33.1	(229)	35.1	(114)
개인사업장	32.0	(208)	35.7	(28)

주: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비율이 적어서 대기업과 통합하였음.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7〉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40시간 이하	32.9	(337)	23.7	(131)
41~50시간 이하	36.6	(364)	28.4	(127)
51시간 이상	35.1	(262)	34.3	(166)

주: 일본의 근무시간은 「41시간 이하」, 「42-48시간미만」, 「49시간 이상」임.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18〉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40시간 이하	38.0	(434)	39.6	(230)
41~50시간 이하	38.7	(276)	38.5	(135)
51시간 이상	37.2	(156)	38.6	(88)

주: 일본의 근무시간은 「41시간 이하」, 「42-48시간미만」, 「49시간 이상」임.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소득에 따른 이성교제비율은 양국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으면 이성교제비율도 높은 경향이 일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한국보다 일본이 경제적인 여유가 클수록 이성교제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결혼의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은 국적과 성별의 차이 없이 의향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9〉 소득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소득 없음	0.0	(10)	18.2	(11)
180만 원 미만	36.6	(324)	34.9	(43)
180만~220만 원 미만	31.8	(337)	24.7	(77)
220만 원 이상	37.9	(291)	30.0	(290)

주: 1) 일본의 소득은 작년 1년 소득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어도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 없음」, 「150만 엔 미만」, 「150만~250만 엔 미만」, 「250만 엔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2) 한국은 3개월 평균 수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취업하고 있어도 수입이 0일 수 있음.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20〉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여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자영업·가족종사자	38.0	(434)	39.6	(230)
고용노동자(정규직)	38.7	(276)	38.5	(135)
고용노동자(비정규직)	37.2	(156)	38.6	(88)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21〉 결혼의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3.1	(38)	0.0	(7)
해도 안 해도 좋다	20.9	(325)	16.0	(25)
모르겠다	15.5	(36)	15.4	(104)
하는 편이 좋다	33.4	(512)	23.2	(185)
반드시 해야 한다	49.9	(329)	49.7	(145)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표 4-1-22〉 결혼의향에 따른 이성교제비율: 남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있음	(N)	있음	(N)
하지 않는 편이 좋다	9.4	(48)	0.0	(6)
해도 안 해도 좋다	26.2	(413)	9.1	(33)
모르겠다	19.0	(17)	16.3	(92)
하는 편이 좋다	42.7	(481)	36.8	(193)
반드시 해야 한다	53.2	(170)	57.2	(173)

자료: 한국 데이터 - 2012년 결혼 및 보건의복지실태조사, 일본 데이터 - JGGS.

전체적으로 이성교제 특징은 학력 및 취업 여부, 그리고 기업규모에서 일본 남성이 한국 남성은 물론 양국 여성의 경향과 매우 이질적인 (heterogenous)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남성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교제비율과 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분석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고, 입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음 소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규명해 보도록 한다.

3. 한국과 일본 청년의 이성교제 회귀분석

가. 청년 특성별 이성교제 확률

본 소절에서의 회귀분석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인들을 도입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속성인 연령, 학력, 부모와의 동거여부의 영향을 살펴본 후, 각 요인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인을 도입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법은 각 요인의 순수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취업의 경우, 각 요인 간의 상관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별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는 여타 중소기업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일하는 시간 또한 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이것은 임금, 기업규모, 근로시간이 서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려 한다.

한국과 일본 남성의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모델에서 한국은 25세 미만 청년의 이성교제 확률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하여, 일본 남성의 경우 25~29세와 비교하여 25세 미만 청년의 이성교제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5~39세 한국 남성은 25~29세 남성보다 이성교제확률이 70% 감소하고, 일본은 55%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모델에서도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강건한(robust)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지면 이성교제확률이 감소하는 것이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의 경우는 25~29세와 비교하여 30세 이상의 여성의 이성교제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감소율을 보면, 30~34세의 경우는 51%, 35~39세는 6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여성은 한국 여성과는 다르게 30~34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35~39세에서 67% 이성교제확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성교제의 연령적 경계선은 남성이 한국 일본 모두 35세이고, 한국 여성은 30세, 일본 여성은 35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35~39세 청년의 이성교제확률을 감소하는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한국 남성(-70%), 일본 여성(-67%), 한국 여성(-62%), 일본 남성

(-55%)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여성의 이성교제 경계선(30세)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한계 연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력도 마찬가지로 양국이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은 고졸 남성이 4년제 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이성교제확률이 28% 감소하는 데 반하여, 일본은 오히려 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또한 대부분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학력이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취업을 포함한 모든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 나서 고찰하도록 한다.

부모동거 여부는 한국과 일본 남성 모두의 이성교제확률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그 감소 효과는 한국(-42%)보다 일본 남성(-71%)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전 모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몇몇의 모델에서 그 유의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모델들을 모델을 살펴보면 모두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득의 유의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국 남성의 부모 동거는 소득과 매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은 남성들과 유사하게 부모와의 동거가 이성교제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일본 여성은 모든 모델에서 전혀 유의성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결혼의향은 국가와 성별에 관계없이 양국 남녀 모두에게서 매우 강한 유의 수준에서 양(+)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즉 결혼의향이 높으면 이성교제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한국 남녀보다 일본 남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결혼의향 문항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 모두 결혼의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결혼의향과 이성교제와의 관계이다. 본 모델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결혼의향이 클수록 이성교제확률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성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향이 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반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소위 말하는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eity)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의향의 진정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분석법이 필요할 것이다.⁴¹⁾

취업 여부는 일본 남성 이외에 한국 남녀 및 일본 여성에서 양(+)의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취업한 일본 여성의 경우는 무직에 비하여 2.1배나 이성교제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여부의 효과가 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치관의 경우는 가치관2에서 한국 남성의 이성교제확률이 유의하게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남성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성의 경우는 양국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가치관2가 강해질수록 이성교제확률이 19% 감소하는 것에 비하여, 일본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취업 특성별 이성교제 확률

앞 절에서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취업자로

41) 예를 들어, 내생성을 제거하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법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 2sls)과 같은 모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의향과 이성교제여부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모델에서 소득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에게만 양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일본 남성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10%의 유의수준이지만 소득이 이성교제확률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은 한국 남녀 및 일본 여성의 이성교제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사상의 지위의 경우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일 경우에 이성교제확률이 유의하게 47%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41시간 이하에 비하여 42시간 이상일 경우에 이성교제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도 양국 남성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남성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비하여 이성교제확률이 유의하게 80% 증가하는 반면, 일본 남성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 중소기업에 비하여 14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하여 소기업에 근무할 때 이성교제확률이 44% 정도 감소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기업규모에 따른 이성교제확률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고 중소기업일수록 임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남성의 대졸 초임은 기업규모에 따라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성교제확률의 경향이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남성의 경우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임에도 이성교제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득 요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일본 남성의 이성교제의 기제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단, 본 분석에서 사용된 일본 데이터로 개인사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소득이 대기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고, 일하는 시간도 가장 길었으며, 고졸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추정 결과에서 고졸 남성의 이성교제확률이 높았던 이유는 개인사업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학력과 기업 규모를 동시에 도입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 학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들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취업관련 변수를 도입하였다(model 10~12). 그 결과를 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이전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은 약간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일본 남성의 경우, 종사상 지위(기본적 속성 포함)만을 도입한 모델(model 7)에 비하여 유의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독 모델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이성교제확률이 감소하는 결과였던 반면, 이 모델들에서는 자영업 또한 정규직보다 이성교제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영향이 종사상 지위에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선형결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⁴²⁾

한국 여성의 경우는 이전 모델들에 비하여 취업 관련 모든 변수를 도입한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던 종사상 지위 변수가 유의하게 되었는데, 비정

42) 실제 자영자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종사상 지위의 유의한 영향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약 40% 내외로 이성교제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근로시간에서 40시간 이하보다 41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인 경우 약 48~60%의 크기로 이성교제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전 모델과 다른 점이다. 근로시간을 시간 배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가 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성교제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이성교제확률이 감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조성호(2014)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여성이 이성교제확률이 높아진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⁴³⁾

43) 소득과 취업 관련 변수 모두를 도입한 모델에서 단독 모델에서 유의했던 소득의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제공한다.

〈표 4-1-23〉 회귀분석 결과: 한국 남성

	전체				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경혼의향												
취업 여부 (취업 = 1)	1.374**											
소득		2.055**		1.003**						1.003**		
직종(Ref. 그 외)					0.900				0.888	0.841	0.860	
관리·전문					0.924				1.023	1.090	1.025	
사무					0.955				1.046	1.093	1.030	
서비스·판매												
총사장의 지위 (Ref. 정규직)												
자영업						1.190			1.447	1.320	1.480	
고용노동자(비정규직)						0.759			0.796	0.860	0.792	
근무시간 (Ref. 40시간이하)							1.029					
40~50시간이하							1.327					
51시간이상								1.299				
기업규모(Ref. 중소기업)								1.803**				
공공기관 및 공무원								1.004				
대기업								1.020				
소기업									0.830	0.856	0.809	
개인사업자											0.947	
가치관1				0.938								
가치관2				0.833*							0.818#	
연령 (Ref. 25~29세)												
25세 미만	0.857	0.806	0.924	0.838	0.838	0.899	0.878	0.890	0.943	0.984	0.928	
30~34세	0.779#	0.815	0.745*	0.792	0.799	0.789	0.798	0.799	0.790	0.752#	0.806	
35~39세	0.301**	0.331**	0.280**	0.303**	0.294**	0.28**	0.285**	0.301**	0.295**	0.258**	0.298**	
학력 (Ref. 4년제 대졸 이상)												
고졸	0.721*	0.780	0.705*	0.742#	0.914	0.758	0.821	0.753	0.875	0.856	0.843	
2·3년제대졸	1.011	0.995	0.961	1.043	1.072	0.976	1.010	0.941	1.031	1.015	1.026	
부고와 동거(동거=1)	0.576**	0.544*	0.631**	0.599**	0.748#	0.644**	0.652**	0.671**	0.651**	0.680*	0.713*	
정주	0.906	0.279**	0.494**	1.440	0.412**	1.007	0.960	0.869	0.791	0.762	0.430**	1.282
Observations	1240	1240	1240	1230	962	979	967	963	968	951	941	944

p<0.1, * p<0.05, ** p<0.01

〈표 4-1-24〉 회귀분석 결과: 한국 여성

	전체				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결혼의향	1.333**									1.001		
취업 여부 (취업 = 1)		1.328#										
소득					1.002#							
직종(Ref. 그 외)					1.521				0.888	0.852	0.891	
관리 전문					1.672				0.679	0.666#	0.695	
사무					1.471				0.507	0.563	0.512	
서비스 · 판매												
종사상의 지위 (Ref. 정규직)									0.809	0.812	0.811	
자영업						0.799			1.397#	1.451#	1.400#	
고용노동자(비정규직)						1.323						
근무시간 (Ref. 40시간이하)												
40~50시간이하							1.373#					
51시간이상							1.370		1.498*	1.439*	1.479*	
기업규모(Ref. 중소기업)									1.595#	1.551#	1.574#	
공공기관 및 공무원								0.863				
대기업								0.883	0.839	0.814	0.840	
중기업								0.874	0.803	0.803	0.889	
개인사업자								0.556**	0.543**	0.535**	0.554**	
가치관1								0.805	0.833	0.854	0.837	
가치관2											1.064	
연령 (Ref. 25~29세)											0.851	
25세 미만	0.908	0.902	0.927	0.901	0.977	0.920	0.914	0.909	0.942	0.990	1.063	0.982
30~34세	0.491**	0.557**	0.492**	0.476**	0.449**	0.441**	0.473**	0.465**	0.462**	0.521**	0.516**	0.507**
35~39세	0.382**	0.472**	0.381**	0.390**	0.431**	0.448**	0.444**	0.450**	0.446**	0.468**	0.450**	0.481*
한편 (Ref. 4년제 대졸 이상)												
고졸	0.901	0.936	0.918	0.915	0.800	0.903	0.717	0.740	0.812	0.732	0.723	0.728
2·3년제대졸	0.818	0.836	0.813	0.819	0.793	0.810	0.760	0.727#	0.818	0.737#	0.739#	0.731#
부고과 동계(동계=1)	0.546**	0.525**	0.554**	0.539**	0.620**	0.605**	0.593**	0.592**	0.596**	0.599**	0.599**	0.590**
정수	1.127	0.422**	0.887	1.408	0.833	0.724	1.127	1.004	1.465#	1.307	1.056	1.493
Observations	1130	1130	1130	1130	857	878	865	866	863	848	838	846

p<0.1, * p<0.05, ** p<0.01

〈표 4-1-25〉 회귀분석 결과: 일본 남성

	전체				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결혼의향	2.135**										
취업 여부 (취업 = 1)		0.876		1.001						1.001	
소득											
직종(Ref. 그 외)					1.080	1.183				1.176	1.313
관리·전문					1.228	1.368				1.316	1.556
사무					1.068	1.123				1.194	1.163
서비스·판매											
종사상의 지위 (Ref. 정규직)											
자영업						0.943				0.245*	0.243*
고용노동자(비정규직)						0.526*				0.498*	0.496*
근무시간 (Ref. 40시간이하)											
40~50시간이하							1.715#			1.305	1.498
51시간이상							1.877*			1.427	1.611
기업규모(Ref.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기업											
소기업								1.030		0.997	0.972
개인사업자								1.474		1.776#	1.714#
가치판1			1.071					2.404*		5.344**	5.490**
가치판2			1.106								1.155
연령 (Ref. 25~29세)											1.195
25세 미만	1.938*	1.453	1.933*	2.006*	1.781*	1.675#	1.919*	1.906*	1.836*	2.301**	2.504**
30~34세	0.980	0.944	0.972	0.988	0.885	0.919	0.926	0.981	0.898	0.978	1.005
35~39세	0.445*	0.407*	0.443*	0.448*	0.355*	0.389*	0.381*	0.402*	0.356*	0.375*	0.373*
학력 (Ref. 4년제 대졸 이상)											
고졸	1.870*	2.124**	1.860*	1.840*	1.999*	2.074*	2.029**	1.996*	1.487	1.769#	1.864#
2·3년제대졸	1.280	1.310	1.274	1.322	1.491	1.522	1.534	1.436	1.196	1.359	1.501
부포와 동거(동거=1)	0.291**	0.302**	0.290**	0.321**	0.321**	0.306**	0.318**	0.307**	0.329**	0.361**	0.387**
2007년 더미	1.236	1.298	1.236	1.221	1.154	1.210	1.194	1.092	1.264	1.157	1.104
장수	0.631	0.028**	0.718	0.387*	0.472#	0.568	0.661	0.407*	0.527#	0.330*	0.234**
Observations	466	462	466	465	417	421	420	421	403	402	398
#	p<0.1, *	p<0.05, **	p<0.01								401

〈표 4-1-26〉 회귀분석 결과: 일본 여성

	전체				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결혼의향												
취업 여부 (취업 = 1)	2.548**											
소득		2.152*		1.001						1.002		
직종(Ref. 그 외)					1.093				1.098	1.024	0.991	
관리·전문					1.550				1.542	1.425	1.414	
사무					1.379				1.296	1.268	1.046	
서비스·판매												
종사상의 지위 (Ref. 정규직)												
자영업							0.750		0.927	1.017	0.898	
고용노동자(비정규직)							1.074		1.092	1.279	1.136	
근무시간 (Ref. 40시간이하)								0.924	0.872	0.838	0.861	
40~50시간이하								0.898	0.923	0.943	0.960	
51시간이상												
기업규모(Ref.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기업												
소기업								0.933	0.914	0.828	0.897	
개인사업자								0.744	0.706	0.716	0.691	
가치판1			1.043					0.746	0.787	0.866	1.051	
가치판2			1.307**								1.280*	
연령 (Ref. 25~29세)												
25세 미만	0.879	0.911	0.879	0.918	0.973	0.904	0.901	0.886	0.972	1.046	1.056	
30~34세	0.679	0.913	0.671	0.673	0.795	0.772	0.774	0.765	0.837	0.835	0.886	
35~39세	0.328**	0.472#	0.322**	0.351**	0.306**	0.305**	0.319**	0.312**	0.348**	0.298**	0.349**	
학력 (Ref. 4년제 대졸 이상)												
고졸	0.994	1.346	0.991	0.928	1.031	1.002	0.962	0.986	0.985	1.000	1.029	0.959
2·3년제대졸	0.834	0.885	0.837	0.799	0.874	0.883	0.854	0.863	0.877	0.911	0.899	0.891
부포와 동거(동거=1)	0.947	0.858	0.959	0.941	1.120	1.085	1.088	1.094	1.044	1.019	1.038	1.037
2007년 더미	1.184	1.186	1.218	1.269	1.108	1.142	1.158	1.149	1.050	1.033	0.989	1.111
장수	0.772	0.015**	0.375*	0.312**	0.532	0.543	0.705	0.759	0.861	0.703	0.502	0.308#
Observations	501	494	501	499	447	450	451	450	431	430	427	428

p<0.1, * p<0.05, ** p<0.01

제2절 경제적 자립과 결혼

본 절에서는 한국의 ‘청년 패널(YP)’ 패널 데이터 및 일본의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JGGS)’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진학이나 취직에 따라 분가가 초혼시기를 앞당기는지, 분가가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대도시 및 비대도시에 따른 지역차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서울 수도권 집중 형태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출산율은 한국 전체와 비교하여 낮은 경향이 있다. 여러 선행 연구와 데이터는 출산력 전환(demographic transition) 이후 대도시와 비대도시에 출산력 격차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김태현 등, 2006; 조성호, 2016a; 최은영, 박영실, 2010), 이러한 격차를 전제로 하면 비대도시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력의 인구비율을 증가시키므로 (거시적인) 출산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출산율이 비대도시 지역보다 일관되게 낮았고,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도시화)은 일본의 출산율 감소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진학, 취업, 결혼을 들 수 있다(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3). 또한 결혼에는 규모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유지할 때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은 결혼(또는 동거)을 촉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Weiss & Yoram, 1997). 즉 젊은 층의 결혼 전 인구 이동은 부모로부터의 분가를 가져옴과 동시에 결혼 전일 경우에는 결혼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은 대도시권 주변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고용 관련 상황은 도시보다 비대도시권이 좋지 않으므로 진학에 따른 분가(이하, 진학

분가)도, 취업에 따른 분가(이하, 취직분가)도 비대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이동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대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분가는 새로운 가족형성을 촉발시킬 것이며 출산력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비대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출산력 전환 이후, 대도시지역 출산력 감소의 버팀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가가 결혼을 촉진시켜 출산력을 높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동일 개인이 분가했을 경우와 분가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혼시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애과정 이벤트 발생 과정에 착안하여(Aalen et al., 2008),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분가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 초혼 리스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생애과정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학교 졸업 후 부모와 동거하며 식비 및 광열비, 주거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전업주부인 어머니에게 취사, 세탁 등을 맡기며 자신은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리는 미혼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山田(1999)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본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이름 붙였으며,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행동이 미혼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실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가 부모로부터 소득을 이전 받음으로써 결혼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北村, 坂本, 2007),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 침체와 소득격차 확대로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이들의 고용문제 및 빈곤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宮本, 2012), 玄田(2007)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무직자의 저소득화를 지적했다.

단, 오랜 기간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현재 젊은 세대는 부

모 세대보다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반면,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한국은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고령자 연금 수령액이 적고, 고령자 빈곤율이 높다(OECD, 2016a). 따라서 일본에서 ‘패러사이트 싱글’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고령자가 생활 면에서 필요에 의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모와 동거할 경우의 이점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양국 모두 20대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만, 40대의 경우 부모의 고령화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菅(2009)의 분석을 보완하여 분가가 초혼시기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양국 청년층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소득수준과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령별로 분류해 가족형태에 따른 소득수준과 소득격차를 고찰하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속시간(Cox회귀)모델만이 아닌 이산시간 모델을 사용하여, 2개의 추정방법에 따른 3개의 모델로 한일 양국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1.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축

가. 한국

YP 데이터는 초혼연령과 첫 분가연령에 관해 회고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조사 시점에서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007~2008년 추적 조사 이후의 기간에서 패널 구축을 이용해 초혼과 첫 분가 발생을 파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패널 데

이터 구축은 그 형태 그대로 이산시점 모델 분석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산시간 모델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를 구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속시간 모델 분석에 이용할 변수 추출에 대하여 설명한다.⁴⁴⁾

우선 2007년 조사 시점에 기혼 혹은 부모와 별거 중이기 때문에 초혼·첫 분가 발생 연령이 불명확한 사람과 추적 조사에서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추적 기간 중 초혼 및 첫 분가 상태가 불명확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추출하기 위한 변수를 구축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t-1$ 년 조사까지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 t 년 조사에서 탈락한 경우, t 년에 1을 취하는 이분 변수를 만들고, 탈락 상태가 0인 구간으로 분석을 한정하였다.

이산시간 모델의 종속변수는 기혼상태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이것은 $t-1$ 년 조사까지 미혼이었던 사람이 t 년 조사에서 기혼이 된 경우에 1을 취하는 이항 변수로 구축했다. 단, 기혼상태가 t 년에 1을 취하는 경우, $t+1$ 년 이후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는 진학분가와 취직분가와 같이 분가사유별 첫 분가 경험 여부(조사 시점까지)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처음 부모를 떠난 연령(분가연령)이 초혼연령보다 작은 경우를 결혼 전 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결혼 전 분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분가연령이 초혼연령과 동일하거나 큰 경우를 포함한다.

이 변수 구축을 위해서는 최종 학교 졸업여부를 나타내는 최종 학교 졸업상태 변수가 필요하다. 최종 학교 졸업변수 작성은 우선 매년 조사 응답자 유형이 대학생·중고등학생 여부에 관한 이항 변수를 만들었고 탈락상태 변수가 0인 구간은 응답자가 대학생·중고등학생인 마지막 조사연차(τ)를 특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연차가 τ 와 같거나 작은 경우 0,⁴⁵⁾ 조사연

44)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

차가 τ 보다 큰 경우 1을 취하는⁴⁶⁾ 이항 변수(최종 학교의 졸업상태)를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결혼 전 분가 상태 변수를 구축했다. 이 변수는 $t-1$ 년 조사까지 부모와 계속해서 동거한 사람이 t 년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0을 취한다.⁴⁷⁾ 또한 $t-1$ 년 조사까지 부모와 계속해서 동거한 사람이 t 년에 처음으로 부모와 별거함과 동시에 t 년에 최종 학교 졸업상태가 0인 경우 1을 취한다.⁴⁸⁾ 그리고 $t-1$ 년 조사까지 부모와 계속 동거해온 사람이 t 년에 처음으로 부모와 별거함과 동시에 t 년의 최종 학교 졸업상태가 1인 경우 2를 취한다.⁴⁹⁾ 결혼 전 분가상태가 t 년에 1 및 2를 취할 경우, $t+1$ 년 이후 조사에서는 t 년과 동일한 값을 준다. 이 변수는 탈락상태가 0인 마지막 조사까지 부모와 계속 동거하는 사람은 2007년 조사부터 최근 조사까지 모든 구간이 0이 된다. 이 변수는 2008년 조사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조사의 분석 대상자는 전원 0을 취하도록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 그리고 (b)졸업 후 경과시간의 기저해저드는 최종 학교의 졸업상태로부터 $(t-\tau)$ 를 함으로써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취직 상태에 관해서는 $t-1 \sim t$ 년에 걸쳐 응답자 유형이 취업자로 변했으며,⁵⁰⁾ $t-1$ 년 응답자 유형이 학생 혹은 미취업자인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후술하겠으나 JGGS에서는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가진 직장’에 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YP에서도 동일한 변수를 구축한다. 즉 우선 2007년 조사는 응답자 유형이 학생·미취업자 혹은 최종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0, 최종 학교를 졸업

45) τ 년 조사까지는 대학생·중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6) τ 년 이후 조사에서 대학생·중고등학생인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t 년 조사에서 여전히 분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8) t 년 조사 시 진학에 따른 분가를 했음을 의미한다.

49) t 년 조사에서 취직분가했음을 의미한다.

50) 즉 t 년 유형이 취업자이고, $t-1 \sim t$ 년에 걸쳐 직장이 변했다고 답변한 것을 의미한다.

했고 동시에 응답자 유형이 취업자이고 2007년 이전에 취업을 시작한 경우 1을 취하는 변수(취직상태)를 구축한다.

그리고 2008년 조사 이후 구간은 $t-1$ 년 취업 상태가 0이고, t 년 응답자 유형이 취업자 이외 혹은 t 년에 최종 학교 졸업상태가 0, 즉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했다.⁵¹⁾ 마찬가지로 2008년 조사 이후 구간은 $t-1$ 년 취직상태가 0이며, 동시에 $t-1$ 년 응답자 유형이 학생 혹은 미취업자로 $t-1 \sim t$ 년에 걸쳐 응답자 유형이 취업자로 변했으며, 게다가 t 년의 최종 학교 졸업상태가 1인 경우 1로 하였다.⁵²⁾ 취직상태는 t 년에 1인 경우에는 $t+1$ 년 이후에도 1로 하였다.

첫 직장 취업자의 지위는 취직상태가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의 취업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직상태가 0일 때는 0, 취직상태가 t 년에 처음으로 1을 취하는 경우의 $t+1$ 년 이후에 t 년의 직장 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 조사 시점에서의 직장 내 지위와 관련하여 YP에서는 2007년 조사부터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 '5. 자영업자', '6. 무급가족 종사자'와 같은 6개 구분으로 조사했다. 이외에 직장 내 지위에 관한 변수로서, 근로시간형태가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에 따라(2008년 조사 이후 추가된 변수), 근로계약기간 결정 여부(계약기간이 정해짐 또는 정년제; 2009년 조사 이후 추가된 변수), 정규직 여부(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2013년 조사 이후 추가된 변수) 등의 변수가 있다.

YP의 경우 직장 내 지위가 '상용직'으로, 이는 '정규직',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전일제'로 판단되나, 정규직 여부는 2013년 조사 이후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일관성 있는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 2007년 조사에 관해서는 '1. 상용직'을 정규고용으로 간주하고, '2. 임시

51) 재학 중이거나 아직 취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2) $t-1 \sim t$ 년에 첫 직장을 가지고 취직함을 의미한다.

직' 및 '3. 일용직'을 파트타임·아르바이트·위탁·파견, '4. 고용주' 및 '5. 자영업자'와 '6. 무급가족 종사자'를 자영업·가족종사자로 하는 3개의 카테고리 변수로 정리했다. 또 2008년 이후에 관해서는 '전일제'의 '1. 상용직'을 정규고용으로 간주하고, 전일제 이외의 '1. 상용직'과 '2. 임시직' 및 '3. 일용직'을 파트타임·아르바이트·위탁·파견, '4. 고용주' 및 '5. 자영업자'와 '6. 무급가족 종사자'를 자영업·가족종사자로 했다.

다음으로 연속시간 모델 추정에 필요한 시간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i)에 관해서 설명한다. 먼저 만 14세 시점의 거주지는 2007년에 조사된 '만 14세 무렵 성장지역(시구군)'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14세 시점에 서울특별시에 살았을 경우를 만 14세 시점의 거주지역이 '대도시'로 분류하였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시에 살았을 경우를 '지방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최종 학력은 최종 학교 졸업 변수가 처음으로 1을 취한 조사연차의 '최종 학력'이며, YP에서는 '최종 학력'을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석사 이상'과 같이 5개로 구분해 조사했으나, '1~2'를 '고졸 이하', '3'을 '2·3년제 대학', '4~5'를 '4년제 대학 이상'의 3개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는 미혼상태의 마지막 조사연차의 결혼 전 분가 상태 값을 추출하였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는 $t-1 \sim t$ 년 조사에서 분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의 t 년의 배우관계가 미상일 경우, 즉 $t-1$ 년 조사 시점까지 계속해서 부모와 동거 중이었으며, $t-1 \sim t$ 년 조사기간 사이에 처음으로 분가했으나, 이 때 배우관계가 미상이기 때문에 분가가 발생한 것이 결혼 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⁵³⁾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는 취직상태가 처음으로 1이 된 조사연차의 직장 내 지위를 추출하였다. 또한 출생 코호트는 연속변수로 이용했다.

53) 미상은 분석 대상 8,499명 중 32명으로 0.4%로 나타났다.

나. 일본

JGGS는 YP와 다르게 분석에 이용하는 조사 시점의 경우 기혼인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해 회고적으로 초혼연령을 조사하였다. 또한 3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적이 있는 사람의 첫 분가연령,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연령, 조사 시점에 재학 중이 아닌 졸업·중퇴자가 최종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연령에 관해서도 회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에 필요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공변량(ii)을 이들 변수로부터 구축할 수 있다.

우선 연속시간 모델 추정에 필요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변량(i) 구축에 대하여 설명한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변수는 YP와 같이 3개의 값을 갖는 카테고리 변수를 구축하였는데, 진학분가란 분가연령이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연령에서 -1세를 한 것보다 작은 경우를 뜻하며, 취직분가란, 분가연령이 졸업 및 중퇴 연령에서 -1세를 한 것과 동일하거나 크고, 초혼연령보다 작은 경우이다. 조사 시점에서 분가 여부, 분가연령, 초혼 연령, 최종 학교 졸업 및 중퇴 연령 모두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⁵⁴⁾

JGGS는 15세 때 거주지에 관한 질문 항목으로 '15세 시점에 살았던 도도부현(혹은 외국)'⁵⁵⁾과 '15세가 될 때까지 가장 거주했던 지역' 구분(태어나 자란 지역)이 '농촌·어촌·산촌', '지방 소도시' 혹은 '현청(県庁) 소재지·그와 동등한 이상의 대도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5세 시점 거주지역은 이들을 병용하여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태어나 자란 지역이 농촌·어촌·산촌 이외에 도쿄도, 오사카부 혹

54) 제외된 샘플은 분석 대상 6,327명 중 305명으로 4.8%로 나타나고 있다.

55) 2013년 코호트에 관해서는 '15세 시점에서 살았던 도도부현'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학교 졸업 시 거주한 도도부현'을 대신 이용하였다.

은 외국에 살았을 경우에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태어나 자란 지역이 농촌·어촌·산촌 이외로 15세 시점에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시가현, 교토부, 효고현, 후쿠오카시’에 살았을 경우는 ‘지방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5세 시점에 살았던 도도부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⁵⁶⁾

첫 직장 내 지위에 관해서는 ‘학교 졸업 후 처음 가진 직장’에 관해 ‘1. 직장인(정규고용)’, ‘2. 직장인(파트타임·아르바이트)’, ‘3. 직장인(파견·계약)’, ‘4. 자영업’, ‘5. 가족 종업원’, ‘6. 기타’, ‘모름·생각이 안 남’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해 조사하였으나, ‘1’, ‘2~3’, ‘4~5’, ‘6~7’을 정리하여 4개의 카테고리 변수로 만들었다.⁵⁷⁾

최종 학력은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각종 전문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4. 2·3년제 대학’, ‘5. 대학(4년제) 이상’, ‘6. 기타’로 조사되었는데, ‘1~2’는 ‘고졸 이하’, ‘3~4’는 ‘2·3년제 대학’, ‘4~5’는 ‘4년제 대학 이상’의 3개로 구분하였다. 단, 기타와 미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포함시켰다.⁵⁸⁾ 출생 코호트는 연속변수로 구축하였는데, 여러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 코호트 차이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 즉 2013년 조사 여부, 2004년 조사 시점에서의 50세 이상 여부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이산시간 모델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먼저 분석 대상자 6,327명은 15세부터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기간과 동일한 레코드⁵⁹⁾를 이용하여 분석 시간 연령(15, 16, ..., 조사 시점 연령)을 계산한다. 그 후 분석시간 연령과 초혼연령 및 첫 분가연

56) 제외된 샘플은 분석 대상 6,327명 중 22명인 0.3%로 나타나고 있다.

57)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여 제외하였는데, 분석 대상 6,327명 중 48명인 0.8%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8) 기타는 13명으로 0.2%였고, 미상은 20명으로 0.3%였다.

59) 1세당 1레코드가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레코드의 개수는 (조사 시점 연령-15+1)레코드가 된다.

령 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공변량(ii)을 구축한다.

우선 종속변수가 되는 것은 기혼 상태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이것은 분석 시간 연령이 초혼 연령 보다 작은 구간의 경우는 0, 분석 시간 연령이 초혼 연령과 동일한 경우는 1, 분석시간 연령이 초혼연령보다 큰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조사 시점에서의 미혼자는 초혼연령을 알 수 없지만, 조사 시점 연령 보다 크기 때문에, 15세부터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모든 구간에서 0을 취하게 된다.

결혼 전 분가 상태에 관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로 작성한 결혼 전 분가 유무와 동일한 정의로 3개의 값을 갖는 카테고리 변수를 작성하였다. 즉 분석 시간 연령이 처음 부모 곁을 떠난 연령(분가연령)보다 작은 구간을 0으로 하였다.⁶¹⁾ 분석 시간 연령이 분가 연령과 동일하거나 분가 연령보다 크고,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연령보다 작은 경우 1을 취하게 하고,⁶²⁾ 이 경우에는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의 분석 연령도 1을 취한다. 그리고 분석 시간 연령이 분가 연령과 동일하거나 졸업·중퇴 연령보다 큰 경우 2를 취하고,⁶³⁾ 이 경우에는 분석시간 연령이 분가 연령 이상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구간에서 2를 취한다. 만일 조사 시점에서 부모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은 15세부터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구간이 0이 된다.

취직 상태는 처음으로 취직을 한 연령(첫 직장 입사 연령)을 이용해 분석 시간 연령이 첫 직장 입사 연령보다 작은 구간은 0,⁶⁴⁾ 분석 시간 연령이 첫 직장 입사 연령과 동일하거나 첫 직장 입사 연령 보다 큰 구간은 1

61) 분석시간 연령에 있어서 아직 분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62) 분석시간 연령에서 진학분가했음을 의미한다.

63) 분석시간 연령에서 취직분가했음을 의미한다.

64) 분석시간 연령까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을 취하는 이항 변수를 구축하였으며,⁶⁵⁾ 조사 시점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은 15세부터 조사 시점 연령까지의 구간이 0이 된다. 그리고 첫 직장 취업자의 지위는 취업 상태가 일한 적 있는 사람의 취업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직 상태와 첫 직장 내 지위의 교차항 변수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의 경과시간은 졸업·중퇴연령을 이용해 분석 시간 연령이 졸업·중퇴연령보다 작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석 시간 연령이 졸업·중퇴연령과 동일한 경우 0, 이후 분석 시간 연령이 1세씩 커짐에 따라 1씩 증가하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조사 시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중퇴연령은 조사 시점 연령보다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된다.

3. 한국과 일본의 초혼연령 비교

가. 연속시간 모델

본 소절에서는 연속시간 모델에서 이용하는 주요한 공변량인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및 만 14세(한국) 또는 15세(일본) 시점의 주거지 분포(이하, 유소년기 거주지역),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의 미혼자 비율, 기혼자의 초혼연령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15세부터의 경과시간(a)과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의 두 가지 분석 시간에 대하여 주요한 공변량별 누적 초혼 해저드를 제시하고 양국을 비교하려 한다.

65) 분석시간 연령 이후 일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만 유소년기의 거주지역

〈표 4-2-1〉은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 거주지역별 분석 대상 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대상 케이스 중 한국은 39% 정도가 대도시 출신이고, 39~40%가 지방 대도시 출신자, 22~24%가 비대도시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3% 정도가 대도시 출신, 22~24%가 지방 대도시 출신, 나머지 63~65%가 비대도시권 출신으로 나타나 한국의 도시 출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비율을 보면, 한국 남녀와 일본 남성의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 출신일수록 결혼 전 분가 경험이 있는 비율 및 진학분가와 취직분가 모두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대도시 출신과 지방 대도시 출신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비대도시권 출신의 결혼 전 분가 경험 비율이 높으며, 대도시·지방 대도시 출신의 진학분가는 비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양국을 비교하면, 대체로 대도시 출신의 결혼 전 분가 경험 비율이 낮고, 비대도시권 출신자 중에 결혼 전 분가가 많은 것이 양국의 공통된 경향이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출신지별 분가 경험 비율에 남녀 간의 차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은 남성이 진학분가와 취직분가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또한 일본은 진학분가보다 취직분가 비율이 높지만, 한국은 진학분가와 취직분가를 경험한 비율이 남녀 모두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1〉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 거주지역별 분석 대상 수와 비율(%)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한국 (YP)				일본 (JGSS)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비대도시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비대도시
남성								
총계	4,348	1,646	1,674	1,028	2,746	361	614	1,771
없음	3,030	1,192	1,153	685	1,196	198	308	690
있음	1,318	454	521	343	1,550	163	306	1,081
진학분가	647	229	240	178	648	59	112	477
취직분가	671	225	281	165	902	104	194	604
여성								
총계	4,119	1,557	1,658	904	3,258	410	791	2,057
없음	2,739	1,132	1,108	499	1,850	274	538	1,038
있음	1,380	425	550	405	1,408	136	253	1,019
진학분가	670	200	248	222	533	41	71	421
취직분가	710	225	302	183	875	95	182	598
남성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음	69.7	72.4	68.9	66.6	43.6	54.8	50.2	39.0
있음	30.3	27.6	31.1	33.4	56.4	45.2	49.8	61.0
진학분가	14.9	13.9	14.3	17.3	23.6	16.3	18.2	26.9
취직분가	15.4	13.7	16.8	16.1	32.8	28.8	31.6	34.1
여성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음	66.5	72.7	66.8	55.2	56.8	66.8	68.0	50.5
있음	33.5	27.3	33.2	44.8	43.2	33.2	32.0	49.5
진학분가	16.3	12.8	15.0	24.6	16.4	10.0	9.0	20.5
취직분가	17.2	14.5	18.2	20.2	26.9	23.2	23.0	29.1

주: 1) 한국은 만 14세 거주지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말하고, 일본의 15세 거주지역은 도쿄·오사카부·외국의 경우로, 15세까지 최장 거주지역이 '농촌·어촌·산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JGGS2013 코호트는 15세 거주지역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최종학교 졸업했을 때의 도도부현을 사용하였음.

2) 한국은 만 14세 거주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방 광역시일 경우, 일본은 15세 거주지역이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교토부, 시가현, 효고현, 후쿠오카현일 경우로, 15세까지 최장 기간 거주한 지역이 '농촌·어촌·산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JGGS2013 코호트는 15세 거주지역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최종학교 졸업했을 때의 도도부현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은 YP, 일본은 JGGS 원자료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2)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미혼자 비율

〈표 4-2-2〉는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로 조사 시점에서의 미혼자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⁶⁶⁾ 먼저 출신지역에 따라 비교하면, 한국 여성은 전반적으로 대도시 지역 미혼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결혼 전 분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경험이 없는 경우의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 남성은 출신지에 따른 미혼율의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취직분가를 한 경우의 미혼율이 현저하게 낮고, 진학분가한 사람의 미혼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은 남녀 모두 비대도시 출신의 미혼율이 낮고, 남성은 대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곳 출신일수록 미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양국의 공통점으로는 남녀 모두 결혼 전 분가 경험이 없는 사람의 미혼율은 분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높고, 분가 경험이 있는 경우 중에서 보면, 진학분가 경험자보다 취직분가 경험자의 미혼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표 4-2-2〉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미혼자 비율(%)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한국 (YP)				일본 (JGSS)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기타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기타
남성								
총계	88.1	87.5	88.2	89.0	24.4	37.7	30.9	19.4
없음	90.4	90.1	90.0	91.5	31.1	43.4	39.3	23.9
있음	82.9	80.8	84.1	84.0	19.2	30.7	22.5	16.6
진학분가	92.0	90.4	94.2	91.0	22.2	32.2	27.7	19.7
취직분가	74.2	71.1	75.4	76.4	17.1	29.8	19.6	14.1

66) 한국은 패널 탈락 직전의 미혼율이고, 그 대상자에 따라 추적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한국 (YP)				일본 (JGSS)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기타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기타
여성								
총계	81.2	84.1	79.1	80.2	19.7	24.9	28.4	15.3
없음	82.0	85.3	79.8	79.4	21.6	26.3	28.6	16.7
있음	79.7	80.9	77.6	81.2	17.3	22.1	28.1	13.9
진학분가	91.2	90.5	91.9	91.0	23.5	26.8	42.3	20.0
취직분가	68.9	72.4	65.9	69.4	13.5	20.0	22.5	9.7

주: <표 4-2-1>과 같음.

자료: 한국은 YP, 일본은 JGSS 원자료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3)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주거지역별 기혼자 초혼연령

<표 4-2-3>은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주거지역별 기혼자 초혼연령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경향을 보면, 먼저 한국 남성 기혼자의 초혼연령은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및 출신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한국 여성 기혼자의 초혼연령은 대도시 출신자 및 지방 대도시 출신의 진학분가 경험자의 초혼연령이 취직분가한 경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를 비교하면,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사람의 초혼연령은 결혼 전 분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초혼연령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남녀 모두 비대도시 출신의 초혼 연령이 낮고, 대도시 및 지방 대도시 출신의 초혼연령이 높다. 또한 결혼 전 분가를 경험한 경우의 초혼연령은 결혼 전 분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지방 대도시와 비대도시권 출신의 경우, 남녀 모두 비대도시권 출신의 초혼연령이 가장 높으며, 취직분가를 한 경우의 초혼연령, 결혼 전 분가 경험 없음의 초혼연령 순으로 낮아지고 있어, 지방 대도시 출신보다 비대도시권 출신이 일관되게 초혼연령이 낮다.

그런데 위의 경향에서 분가 경험이 있는 경우 초혼시기가 늦는다는 결과, 즉, 초혼연령이 높다는 것은 菅(200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국 여성의 경우는 분석 대상자가 젊고 80% 이상이 미혼자이기 때문에, 결혼 경험자만이 집계 대상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편이의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폭넓은 세대를 분석 대상으로 했지만, 남성의 약 25%, 여성의 약 20%가 미혼이고, 출신지와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에서 미혼율이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 경험자만을 집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직관적으로는 대도시권 출신자가 비대도시권 출신자보다 상대적으로 젊다는 코호트 효과와 진학분가한 경우에 대도시권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탄탄한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4-2-3〉 남녀·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유소년기 거주지역별 (기혼자의) 초혼연령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한국 (YP)				일본 (JGSS)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비대도시	총계	대도시 ^{주1)}	지방 대도시 ^{주2)}	기타
남성								
총계	30.4	30.3	30.7	30.2	27.0	27.4	27.2	26.9
없음	30.2	30.0	30.4	29.9	26.4	27.4	26.6	26.1
있음	30.8	30.7	31.1	30.5	27.4	27.5	27.7	27.3
진학분가	30.7	30.9	30.8	30.4	27.8	27.6	28.1	27.8
취직분가	30.8	30.7	31.2	30.6	27.1	27.4	27.5	26.9
여성								
총계	28.7	28.6	28.8	28.7	24.5	25.3	24.9	24.3
없음	28.5	28.3	28.6	28.5	23.9	24.8	24.3	23.6
있음	29.1	29.3	29.1	29.0	25.3	26.3	26.0	25.0
진학분가	27.3	27.0	26.9	28.0	25.5	25.3	26.5	25.4
취직분가	29.6	30.0	29.5	29.4	25.2	26.7	25.8	24.8

주: 〈표 4-2-1〉과 같음.

자료: 한국은 YP, 일본은 JGSS 원자료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4) 15세부터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별 누적 초혼 해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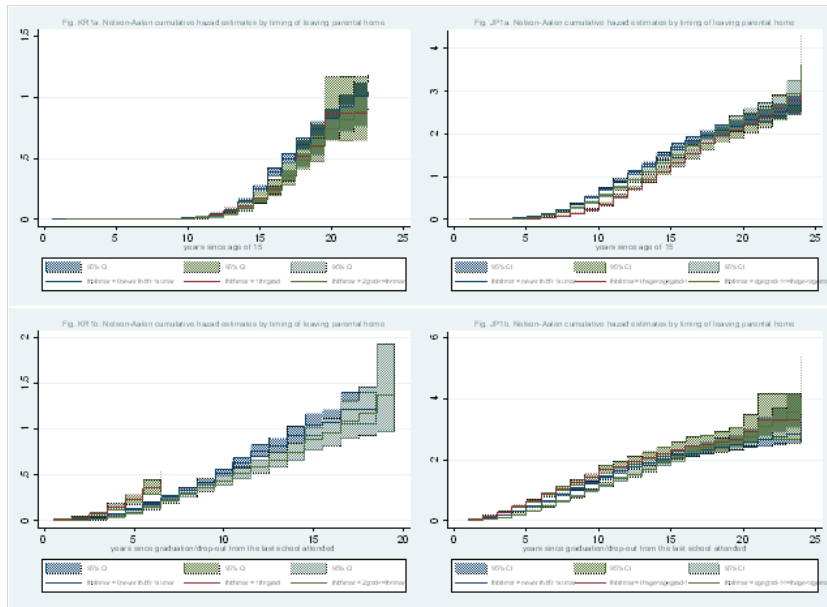
[그림 4-2-1]은 앞서 정의하였던 두 가지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 전 분가 경험별로 누적 초혼 해저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한국의 누적 초혼 해저드는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사람의 초혼 시기는 특히 31~32세에서 결혼 전 분가한 사람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진학분가한 사람의 초혼 시기가 빠르고,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사람의 초혼 타이밍도 졸업 후 11~14년이 지날 무렵에 취직분가한 사람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진학분가한 사람의 초혼 시기는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늦지만,⁶⁷⁾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를 기점으로 보면 초혼 시기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누적 초혼 해저드는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경우, 취직분가한 경우, 진학분가한 경우의 순으로 초혼 시기가 빠르고, 그 차이는 25세 전후가 가장 크고, 시간경과와 함께 조금씩 작아져서 35세 무렵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진학분가한 경우,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경우, 취직분가한 경우의 순으로 초혼 시기가 빠르고, 졸업 및 중퇴 후 5~10년이 지난 정도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졸업 및 중퇴 후 15~20년이 지날 무렵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은 진학분가한 사람의 초혼 시기가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가장 늦지만,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로부

67) 그러나 취직 전 분가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더 보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15세부터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별 누적 초혼 해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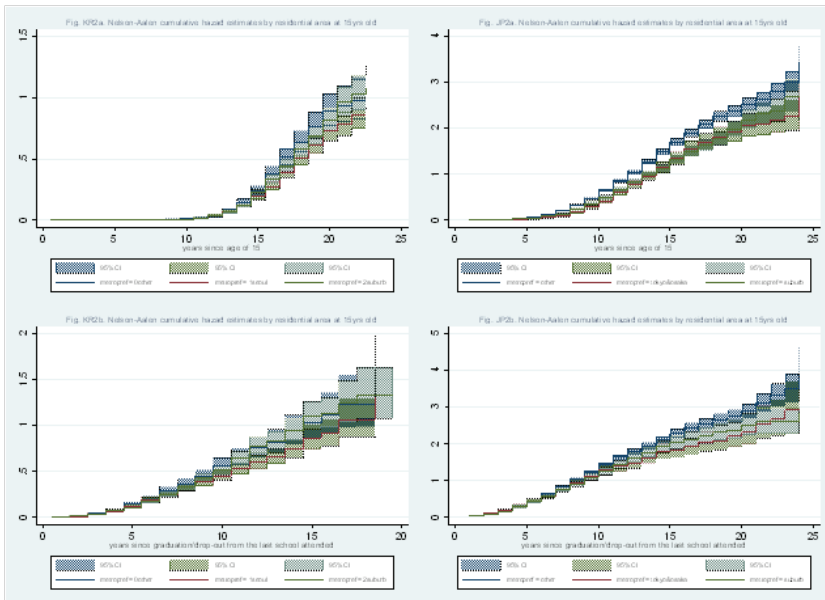
주: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의 해저드이며, 위쪽이 (a)시간, 아래쪽이 (b)시간을 나타냄.

양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누적 해저드 수준은 일본의 절반 정도로, 일본의 누적 해저드는 20세 무렵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30세 전후에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것은 20대 중반까지의 초혼 해저드는 매우 낮고, 30대 전후에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한국의 분석 대상 세대는 아직 젊지만 앞으로 급속한 만혼화가 예상된다.

5)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 시간(b)으로 나타낸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누적 초혼 해저드

[그림 4-2-2]는 두 가지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누적 초혼 해저드를 나타낸 것이다.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한국은 비대도시 출신, 지방 대도시 출신, 대도시 출신의 순으로 초혼 해저드가 높고,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경과 시간으로 보면, 비대도시 출신과 지방 대도시 출신을 비교하였을 때, 대도시 출신의 초혼 타이밍이 늦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림 4-2-2]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누적 초혼 해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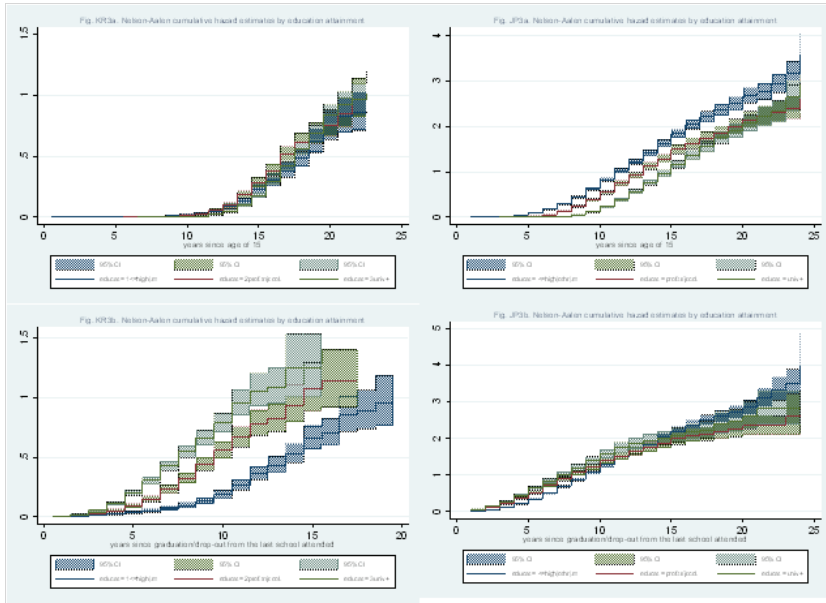
주: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의 해저드이며, 위쪽이 (a)시간, 아래쪽이 (b)시간을 나타냄.

일본의 누적 초혼 해저드는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비대도시 출신의 초혼시기가 대도시 및 지방 대도시 출신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비대도시 출신의 초혼시기는 대도시 출신보다 조금 빠르고, 졸업 및 중퇴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대도시 출신자의 누적 해저드의 기울기(해당 분석시간의 평균 초혼 해저드)가 감소하여 그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뢰구간이 서로 겹쳐져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

6)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최종학력별 누적 초혼 해저드

[그림 4-2-3]은 두 가지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학력별로 누적 초혼 해저드를 나타낸 것이다. 학력별로 본 초혼시기는 일본의 경우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그 차이가 명료하지만, 한국의 경우 학교 졸업 후 경과시간으로 보는 편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4년제 대학졸업의 초혼시기가 약 27~28세에서 다소 늦어지지만, 전반적으로 학력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4년제 대학졸업의 초혼시기가 2·3년제 대학보다도 졸업 후 15년 후 정도까지 빠르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2·3년제 대학의 초혼시기는 같은 기간 동안 고졸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3]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 (b)으로 본 최종학력별, 누적 초혼 해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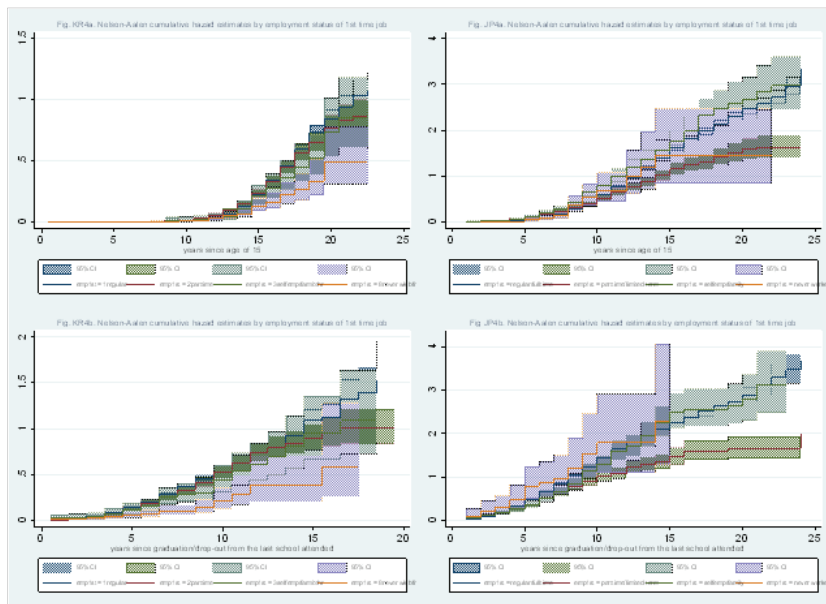
주: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의 해저드이며, 위쪽이 (a)시간, 아래쪽이 (b)시간을 나타냄.

일본의 경우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40세 정도까지 고졸보다 2·3년제 대학의 초혼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35세까지 2·3년제 대학보다 대졸의 초혼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 학교 졸업 및 중퇴 이후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졸업 및 중퇴 후 5~10년 무렵까지는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의 초혼시기가 빠르지만, 이들의 초혼 해저드는 졸업 후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졸업 후 10~15년이 지난 이후에는 학력 간의 차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7)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별 누적 초혼 해저드

[그림 4-2-4]는 두 가지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첫 직장 내의 종사상 지위별로 누적 초혼 해저드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경우의 해저드가 일한 적이 있는 경우에 비해 낮지만,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의 초혼시기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4-2-4] 15세부터의 경과시간(a) 및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b)으로 나타낸 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별 누적 초혼 해저드



주: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의 해저드이며, 위쪽이 (a)시간, 아래쪽이 (b)시간을 나타냄.

일본의 경우는 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인 경우, 정규고용, 자영업·가족종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5세부터의

경과시간에서도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기간에서도, 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인 경우의 해저드가 낮고, 정규고용, 자영업·가족종사자와의 차이는 25~30세 이후 혹은 졸업 후 10년 후 정도부터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나. 이산시간 모델

앞에서는 연속시간모델에서의 초혼 해저드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시간 모델 분석의 리스크 시간⁶⁸⁾ 및 각 분석시간에서의 초혼 해저드를 주요 공변량으로 본다. 또한 리스크 시간과 함께 분석 대상자들의 평균 미혼 연수와 최근 조사 시점에서 미혼이었던 비율⁶⁹⁾이 공변량별로 나타낸 총수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관한 t검정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다. 분석시간은 연속시간모델과 같은 (a)15세부터 경과시간으로 본 경우와 (b)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본 경우의 2종류로 나타낸다. 단, 한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널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즉 좌측절단이 존재하는 모델로 상기의 두 가지 시간을 기점으로 결과를 표시한다.

〈표 4-2-4〉와 〈표 4-2-5〉는 남녀별로 미혼 인년과 평균 미혼기간 및 평균 미혼기간의 차를 두 가지 시간 기점에서 나타내고 그에 관한 t검정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의 미혼 인년을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분석 대상 8499명으로부터 15세가 되기 전 탈락한 8명을 제외한 8491명을 4만 5660인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곧 1인당 미혼기간은 평균 24.93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⁷⁰⁾

68) 미혼 인년(person year)을 의미한다.

69) 우측절단(right-censoring)비율을 의미한다.

70) 이것은 2007년 조사 시의 평균연령이 20.54세로, 미혼자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이 4.39

〈표 4-2-4〉 미혼 인년과 평균미혼기간 및 평균미혼기간의 차이 t검정: a)15세 기점

연령	한국(YP)			일본(JGGS)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연령계	45,660	19,938	25,722	71,245	36,073	35,172
15	977	525	452	6,115	2,797	3,318
16	1,805	937	868	6,110	2,797	3,313
17	2,570	1,331	1,239	6,092	2,792	3,300
18	3,223	1,670	1,553	6,055	2,785	3,270
19	3,484	1,728	1,756	5,912	2,741	3,171
20	3,013	1,029	1,984	5,712	2,691	3,021
21	2,798	691	2,107	5,394	2,602	2,792
22	2,904	682	2,222	4,908	2,460	2,448
23	3,072	828	2,244	4,284	2,261	2,023
24	3,152	1,027	2,125	3,662	2,029	1,633
25	3,163	1,203	1,960	3,008	1,740	1,268
26	3,009	1,304	1,705	2,416	1,468	948
27	2,802	1,333	1,469	1,957	1,206	751
28	2,496	1,278	1,218	1,548	967	581
29	2,127	1,188	939	1,233	769	464
30	1,647	991	656	979	608	371
31	1,225	781	444	782	478	304
32	880	568	312	650	393	257
33	584	379	205	547	323	224
34	359	233	126	460	267	193
35	211	136	75	383	227	156
36	112	64	48	337	203	134
37	47	32	15	294	175	119
38	-	-	-	242	142	100
39	-	-	-	200	118	82
40세 이상	-	-	-	1,965	1,034	931
평균미혼인년	24.93	24.29	25.60	25.65	26.90	24.60
t검정 유의확률	-	0.000	0.000	-	0.000	0.000
우측절단비율	84.85	88.18	81.34	21.70	24.20	19.59
t검정 유의확률	-	0.000	0.000	-	0.002	0.002

년임을 의미한다.

〈표 4-2-5〉 미혼 인년과 평균미혼기간 및 평균미혼기간의 차이 t검정: b)졸업 기점

연령	한국(YP)			일본(JGGS)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경과연수	43,963	22,555	21,408	22,558	9,221	13,337
0	5,739	2,618	3,121	3,540	1,363	2,177
1	5,468	2,520	2,948	3,188	1,188	2,000
2	5,083	2,373	2,710	2,866	1,072	1,794
3	4,591	2,194	2,397	2,528	961	1,567
4	3,983	1,988	1,995	2,171	866	1,305
5	3,363	1,743	1,620	1,824	739	1,085
6	2,729	1,485	1,244	1,535	645	890
7	2,202	1,253	949	1,259	554	705
8	1,778	1,049	729	963	435	528
9	1,413	848	565	777	362	415
10	1,129	694	435	597	304	293
11	899	554	345	418	222	196
12	748	455	293	321	186	135
13	617	373	244	225	128	97
14	513	314	199	152	87	65
15	428	258	170	96	48	48
16	362	211	151	52	29	23
17	310	183	127	31	20	11
18	269	163	106	14	11	3
19	236	141	95	1	1	0
20년이상	2,103	1,138	965	-	-	-
평균미혼인년	7.66	8.62	6.86	5.58	5.83	5.42
t검정 유의확률	-	0.000	0.000	-	0.004	0.007
우측절단비율	19.18	20.93	17.72	76.65	76.79	76.56
t검정 유의확률	-	0.028	0.032	-	0.879	0.901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1만 9938인년에 평균 24.29년,⁷²⁾ 여성은 2만 5722인년에 평균 25.60년으로,⁷³⁾ 남성의 리스크 기간이 여성보다 짧은 것은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데이터는 초혼연령을 회고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초혼시기가 늦은 남성

72) 2007년 조사 시의 평균 연령이 20.70세로, 미혼남성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은 3.59년임을 의미한다.

73) 2007년 조사 시의 평균 연령이 20.37세로 미혼여성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이 5.24년임을 의미한다.

의 경우에는 미혼율은 높고 리스크 기간이 길다. 한편 한국의 데이터에서는 남성이 미혼자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이 짧아서,⁷⁴⁾ 가장 최신의 데이터로 미혼 인구를 도출했을 때 미혼자의 비율이 많고 리스크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졸업 및 중퇴로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표 4-2-5), 한국 데이터에서는 최근 조사에서 학생이었던 경우 및 졸업 연차 미상을 제외한 5395명으로부터 졸업 연차 이전에 처음 결혼한 경우 및 초혼 연차 미상의 54명을 제외한 5353명을 인년으로 환산하면 2만 2558인년이며, 평균 5.58⁷⁶⁾이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9221인년에 평균 5.83년,⁷⁷⁾ 여성은 1만 3337인년에 평균 5.42년⁷⁸⁾으로, 남성의 리스크 기간이 여성보다 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의 경과시간으로 나타난 경우, 남녀 간 미혼자 패널 잔존기간은 큰 차이가 없고, 우측절단 비율도 남녀가 비슷한 정도이며, 리스크 기간은 남성이 다소 긴 경향이 있다.

일본은 분석 대상 6327명에서 15세에 처음 결혼한 경우 및 초혼 연월이 불명확한 212명을 제외한 6115명을 7만 1245인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리스크 기간은 평균 25.65년이다.⁷⁹⁾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3만 6073인년에 리스크 기간이 평균 26.90년, 여성은 3만 5172인년에 리스크 기간이 평균 24.60년이며, 리스크 기간이 여성보다 남성이 긴 것은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하다.

74) 이것은 특히 젊은 남성층의 탈락률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6) 2007년 조사 시의 졸업 후 평균 연수가 1.40으로, 미혼남성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은 4.18년임을 의미한다.

77) 2007년 조사 시의 졸업 후 평균 연수가 1.58로, 미혼자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은 4.26년임을 의미한다.

78) 2007년 조사 시의 졸업 후 평균 연수가 1.28로 미혼자의 평균 패널 잔존기간은 4.13년임을 의미한다.

79) 15세부터의 경과 연수로 보면 11.65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사 시점에 학생이었던 경우 및 졸업·중퇴별·연령미상을 제외한 6,078명으로부터 졸업 및 중퇴 이전에 처음 결혼한 경우 및 초혼 연월 미상 339명을 제외한 5,739명의 미혼인년은 43,963인년이며, 리스크 기간은 평균 7.66년이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22,555인년에 리스크 기간이 평균 8.62년, 여성은 21,408인년에 리스크 기간이 평균 6.86년이며, 남성의 리스크 기간이 길다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림 4-2-5]는 남녀별로 미혼인년과 평균 미혼기간 및 평균 미혼기간의 차에 관한 초혼 해저드를 제시하고 있다. 남녀별의 초혼 해저드(기저 해저드)를 살펴보면,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나타낸 경우, 한국 분석 대상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20세 전반의 초혼 해저드가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혼시기는 남녀 모두 일본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혼 해저드가 가장 높아지는 연령은, 남성은 한국이 32세인 데 비하여 일본이 30세이고, 여성은 한국은 30세인 데 비하여 일본이 25세이다. 그리고 양국 모두 여성의 초혼시기가 남성보다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27~28세 무렵까지, 한국은 31~32세 무렵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의 초혼해저드가 남성보다 크다.

[그림 4-2-5] 미혼인년과 평균 미혼기간 및 평균 미혼기간 차이에 대한 초혼 해저드



주: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의 해저드를 나타냄.

4. 초혼시기에 대한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연속시간모델 및 (II)이산시간모델의 분석시간에 대해, (i)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변량만을 사용하는 경우, (ii)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2종류의 분석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3가지의 조합(I)-(i), (II)-(i), (II)-(ii)의 모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시간의 경과를 통해 변화하지 않는 공변량(i)을 사용하는 경우의 연속시간모델 (I)-(i)와 이산시간모델(II)-(i)는 시간을 세분화하면 같은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이산시간모델(II)-(i)과 (II)-(ii)을 중심으로 다룬다.

가. 연속시간모델 분석 결과

〈표 4-2-6〉은 양국 청년의 초혼시기에 대하여 연속시간모델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a)15세부터 경과시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첫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경우에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효과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취직에 따른 분가, 대도시 출신,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와 (b)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이후의 경과시간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15세부터를 기점으로 한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최종 학교 졸업 및 중퇴 후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1)진학에 따른 분가는 남성의 초혼시기를 촉진시키며, (2)대학 졸업은 초혼시기를 빠르게 하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a)15세부터 경과시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은 대도시 출신,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학 졸업이 초혼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취직분가, 대도시 및 지방 대도시 출신과 대학 졸업이 초혼시기를 늦추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시간 기점의 분석을 비교하면 한국과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진학분가는 남성의 초혼시기를 앞당기며, (2)대학 졸업은 15세 기점으로 보면 초혼시기를 늦추고 있으나 졸업 및 중퇴 기점으로 보면 초혼시기는 빠르게 되고, (3)여성의 경우에도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이면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⁸⁰⁾ 한쪽 국가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의 부호는 다른 한쪽 국가에서도 같으며, 이것은 양국의 초혼시기 결정기제의 유사성을 시사한다.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이면 초혼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강하며, 졸업 및 중퇴로부터 경과시간을 보면 남성의 진학분가가 초혼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단, 같은 시점에서 대학 졸업이 초혼시기를 앞당기는 영향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표 4-2-6〉 초혼 해저드에 대한 연속시간분석: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없음*								
진학분가	1.096	1.969*	0.771	1.178	1.069	1.219*	0.911	1.067
취직분가	0.780	0.802	0.697*	0.691*	0.893#	0.901#	0.848**	0.862**
유소년기 거주지역								
대도시 ^{주1)}	0.957	1.045	0.667**	0.696**	0.715**	0.740**	0.838*	0.982
지방 대도시 ^{주2)}	1.015	1.115	0.877	0.838	0.971	0.984	0.832**	0.857*
기타*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유소년기 거주지역								
진학분가×								
대도시 ^{주1)}	0.875	0.937	1.094	1.713	1.304	1.175	1.368#	1.216
지방 대도시 ^{주2)}	0.494#	0.380*	0.953	1.046	0.902	0.927	0.937	0.803
취직분가×								
대도시 ^{주1)}	1.197	1.119	1.074	0.987	1.234	1.240	0.879	0.834
지방 대도시 ^{주2)}	0.865	0.837	1.108	1.162	0.995	0.984	1.030	1.018

80) 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나타낼 경우, ①일본인 남성의 고등교육은 초혼시기를 늦추고 있으나 한국인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②여성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경우, 한국의 경우는 초혼시기가 늦어지지만,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졸업 및 중퇴로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볼 경우에는 ①일본인 남성의 대도시 출신은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반면, 한국인 남성의 초혼시기는 빨라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첫 직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0.798*	0.788*	1.003	0.985	0.658**	0.613**	0.938	0.844**
자영업·가족종사자	0.757	0.825	0.969	1.090	0.991	0.872#	1.162#	0.933
기타	-	-	-	-	0.660#	0.620*	1.174	0.936
한 번도 일한 적 없음	0.252**	0.039**	0.694*	0.737	0.111*	-	1.120	0.903
최종학력 ^{주3)}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1.014	2.378**	0.997	1.814**	0.862#	1.193*	0.732**	1.103*
4년제 대졸 이상	1.140	5.075**	0.732**	2.606**	0.7584**	1.719**	0.545**	1.167#
출생 코호트(연속변수)	1.129**	1.033#	1.092**	1.027*	0.983**	0.987**	0.976**	0.982**
JGGS2013년 조사 (=1)	-	-	-	-	1.363**	1.353**	1.362**	1.227**
JGGS2004년조사 50세 이상(=1)	-	-	-	-	0.807	0.839	0.684**	0.714**
log likelihood	-3389.4	-3218.8	-5254.0	-5065.2	-14489.1	-14042.6	-18781.0	-18152.5
Observations	4,330	2,164	4,111	3,229	2,696	2,523	3,223	3,026

주: 1) 한국의 만 14세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인 경우이고, 일본의 15세 거주지역은 도쿄도·오사카부·외국의 경우이며, 1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이 '농촌·어촌·산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JGGS2013 코호트는 15세 거주지역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최종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도도부현을 사용하였음.

2) 한국은 만 14세 거주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방 광역시일 경우를 가리키고, 일본은 15세 거주지역이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교토부, 시가현, 효고현, 후쿠오카현인 경우로, 1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이 '농촌·어촌·산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JGGS2013 코호트는 15세 거주지역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최종학교 졸업했을 때의 도도부현을 사용하였음.

3) 일본의 최종학력에서 고졸 이하에는 '재학 중' 및 대졸 이외의 '기타' 및 미상을 포함.

4) * 레퍼런스변수, ** 1%, * 5%, # 10%

나. 이산시간모텔 분석결과(시간 비의존성 변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변량(i)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산시간모텔 (II)-(i)에 따른 해저드 비율을 보면(표 4-2-7), <표 4-2-6>의 연속시간모텔의 결과와 계수의 부호·크기·유의성 모두 거의 같으며 분석 결과는 유사하다.⁸¹⁾

81) 15세부터의 경과시간을 보면, 남성의 대학 졸업의 영향(대학 졸업의 영향은 해저드를 비

〈표 4-2-7〉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비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없음*								
진학분가	1.216	1.895*	0.754	1.081	1.076	1.221*	0.914	1.084
취직분가	0.781	0.776	0.724*	0.683*	0.889#	0.891*	0.850**	0.848**
유소년기 거주지역								
대도시 ^{주1)}	0.978	0.999	0.672**	0.677**	0.702**	0.730**	0.852*	0.971
지방 대도시 ^{주2)}	1.044	1.101	0.901	0.849	0.969	1.013	0.836**	0.859*
비대도시*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유소년기 거주지역								
진학분가×								
대도시 ^{주1)}	0.799	0.822	1.079	1.498	1.308	1.144	1.366#	1.208
지방 대도시 ^{주2)}	0.454*	0.389*	0.923	1.006	0.897	0.930	0.907	0.772
취직분가×								
대도시 ^{주1)}	1.179	1.198	0.992	0.977	1.267	1.253	0.853	0.832
지방 대도시 ^{주2)}	0.855	0.848	1.049	1.121	0.991	0.958	1.016	1.007
첫직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0.791*	0.778*	1.007	0.988	0.645**	0.603**	0.922	0.838**
자영업·가족종사자	0.766	0.844	0.962	1.069	0.993	0.854*	1.146	1.002
기타	-	-	-	-	0.651#	0.594*	1.166	0.963
한 번도 일한 적 없음	0.154**	0.036**	0.587**	0.717#	0.089*	-	1.011	1.017
최종학력 ^{주3)}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1.042	1.442**	1.052	1.312**	0.858#	1.190*	0.739**	1.095#
4년제 대졸 이상	1.213#	2.378**	0.797*	1.462**	0.766**	1.736**	0.550**	1.124
출생 코호트(연속변수)	1.005	0.929**	0.952**	0.911**	0.980**	0.985**	0.974**	0.979**
JGGS2013년 조사 (=1)	-	-	-	-	1.394**	1.394**	1.381**	1.290**
JGGS2004년 조사 50세 이상(=1)	-	-	-	-	0.768#	0.799	0.659**	0.660**

례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b)의 분석이 타당)을 제외하면, 유일한 예외는 한국 출생 코호트의 영향이 연속시간모델 (I)-(i)에서는 젊은 코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혼시기를 앞당겼으나, 이산시간모델 (II)-(i)에서는 젊은 코호트의 초혼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혼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한국 데이터의 분석 대상이 젊고, 생애과정 중에 차지하는 기간이 짧은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분석 대상의 연령범위는 2007년의 경우, 15~29세에서 2015년 23~38세이기 때문에 재생산연령(15~49세) 전체를 차지하는 코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초혼해저드의 연령 패턴의 비모수적(non-parametric)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령패턴을 코호트 효과(젊은 코호트일수록 만혼)와 동시에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연령 (baseline hazard)								
15~19세†								
20~24세(J)/ 24세이하(K)*					18.515**	-	14.400**	-
25~29세	13.38**	-	15.19**	-	73.835**	-	33.767**	-
30~34세	50.36**	-	35.01**	-	78.984**	-	18.296**	-
35~39세(J)/ 35세 이상(K)	40.90**	-	12.99**	-	32.536**	-	8.253**	-
40세 이상	-	-	-	-	8.697**	-	1.192	-
졸업/중퇴 경과연수								
0~4년*								
5~9년	-	1.965**	-	3.138**	-	3.464**	-	2.993**
10~14년	-	2.629**	-	3.781**	-	4.284**	-	2.214**
15~19년(J)/ 15년이상(K)	-	1.594	-	3.122**	-	2.638**	-	0.824
20~24년	-	-	-	-	-	1.469#	-	0.373**
25년이상	-	-	-	-	-	0.330**	-	0.107**
상수항	6855.1	4.4516	5.4075	2.2811	2.5122	1.6448	18192.1	4.42689
	23*	9E+85**	2E-08	1E+61**	3E+14**	6E+11**	20**	E+16**
log likelihood	-1908.7	-1858.4	-2787.8	-2695.3	-6522.9	-6423.3	-7821.8	-7600.7
Person year	20,398	9,665	26,479	14,047	36,906	23,801	36,802	23,405

주: 각주는 <표 4-2-6>과 동일.

이산시간모델은 연속시간모델과 비교하여 예측 해저드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표 4-2-8>에서는 이산시간모델의 추정결과 (표 4-2-7)로부터 예측되는 결혼 전 분가 경험의 유무와 유소년기의 거주 지역별 초혼해저드를 나타내고 있다. 'Group'열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카테고리를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 여성의 (a)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본 예측 해저드를 출신지별로 보면, 대도시가 2.4%, 지방 대도시와 비대도시가 3.1%, 3.4%로 'A'라는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방 대도시와 비대都市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것들과 비교하면 대도시는 예측 해저드가 낮다는 것, 즉 초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b)졸업 및 중퇴부터의 경과시간에서 보면, 남녀 모두 취직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의 초혼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 분가 경험의 유무와 출신지의 조합에 따른 9개의 카테고리별 예측해저드를 보면, 남성의 경우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빨라지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

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남성의 초혼시기는 (a)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볼 때, 지방 대도시 출신에 진학·취직분가한 경우보다 빠르고, (b)졸업 및 중퇴 이후의 경과시간으로 볼 때는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한 사람보다 초혼시기가 늦으며,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사람보다 빠르다.⁸²⁾ 여성의 경우는 두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지방 대도시 및 비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사람의 초혼시기가 늦으며, 대도시출신에 취직분가한 사람보다는 빠르다.⁸³⁾

다음으로 일본의 분가경험 여부와 출신지의 조합에 따른 9개 카테고리별 예측해저드를 보면, 남성은 대도시 출신에 분가 경험이 없는 경우의 초혼시기가 가장 늦고,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일 경우의 초혼시기가 가장 빠르다. 비대도시 출신의 진학분가한 이들의 초혼시기는 (a)15세부터의 경과시간에서 대도시 출신에 분가 경험이 없거나 출신지 관계없이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빠르고, (b)졸업 및 중퇴 이후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출신지에 관계없이 분가 경험이 없거나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빠르다. 비대도시 출신 남성에 취직분가한 자에 대해서는, (a)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봐도, (b)졸업 및 중퇴 이후부터의 경

82) 즉 졸업·중퇴 시점에서 보면, 초혼시기는 대도시 출신 취직분가 < 대도시 출신 비분가 남성 < 비대도시 출신 진학분가라고 할 수 있다.

83) 한국 여성의 초혼시기는 대도시 출신 취직분가 < 지방 대도시·비대도시 출신 비분가 < 대도시 출신 비분가라고 할 수 있다.

과시간으로 봐도, 비대도시 출신에 결혼 전 분가 않은 자 및 진학분가한 자에 비해 초혼 타이밍이 늦으나, 대도시 출신에 분가 경험 없음의 경우보다 초혼 타이밍이 빠르다.

반면, 일본 여성은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를 하고 있는 경우의 초혼 시기가 가장 늦고, 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를 하고 있는 경우의 초혼시기가 가장 빨랐다. 그러나 대도시 출신의 분가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같은 조건의 남성과 같이 초혼시기가 극단적으로 늦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들의 초혼시기는 (a)15세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본 경우, 비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늦고, 대도시 출신의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빠르다. (b)졸업 및 중퇴 이후로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지방 대도시 출신에 진학 및 취직분가한 경우나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빠르다. 그리고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 및 취직분가한 경우, (a)15세부터 경과시간으로 보면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한 경우는 지방 대도시 출신에 진학 및 취직분가한 경우 및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빠르고, 비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의 경우에는 비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늦고, 대도시와 지방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빠르다. (b)졸업 및 중퇴 이후로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비대도시 출신에 진학분가한 경우는 출신지를 막론하고 취직분가한 경우 및 대도시 교외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빠르고, 비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에는 비대도시 출신에 분가하지 않은 경우 및 진학분가한 경우보다 초혼시기가 늦으며, 대도시와 지방 대도시 출신에 취직분가한 경우보다 빠르다.

〈표 4-2-8〉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비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로 예측한 초혼 해저드

리스크 시작 연령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Prd. Pr.	(a)15세	(b)졸업/종퇴	Prd. Pr.	(a)15세	(b)졸업/종퇴	Prd. Pr.	(a)15세	(b)졸업/종퇴	Prd. Pr.	(a)15세	(b)졸업/종퇴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없음*	2.8 B	5.6 A	3.2 A	5.8 A	5.7 A	8.5	7.5 B	11.5 A				
지함분가	2.4 AB	7.0 A	2.5 A	7.2 A	6.1 A	10.2	7.0 AB	12.0 A				
취직분가	2.2 A	4.4	2.4 A	4.2	5.2	7.7	6.4 A	9.7				
유소년기 거주지역												
대도시 ^(주1)	2.6 A	5.4 A	2.4 A	4.5	4.8	7.3	6.5 A	10.9 A				
지방 대도시 ^(주2)	2.4 A	5.0 A	3.1 A	5.6 A	5.5 A	8.6 A	6.3 A	9.6				
비대도시*	2.6 A	5.2 A	3.4 A	6.4 A	5.8 A	8.7 A	7.5	11.4 A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x 유소년기 거주지역												
없음 x 대도시 ^(주1)	2.7 CD	5.4 BCD	2.6 B	4.9 AB	4.2 A	6.5 A	6.8 BCD	11.5 CD				
지방 대도시 ^(주2)	2.9 D	5.9 CDE	3.5 CD	6.1 CD	5.7 BC	8.9 CD	6.7 BCD	10.3 BC				
비대도시	2.8 CD	5.4 BCD	3.8 D	7.1 D	5.9 C	8.8 D	7.9 E	11.9 D				
진학분가 x 대도시 ^(주1)	2.6 ABCD	8.2 DE	2.2 AB	7.7 ABCD	5.8 BC	8.9 ABCDE	8.4 DE	14.7 CD				
지방 대도시 ^(주2)	1.6 A	4.4 ABC	2.5 AB	6.6 ABCD	5.6 BC	10.0 CDE	5.7 ABC	8.7 AB				
비대도시	3.3 CD	9.9 E	2.9 BCD	7.6 BCD	6.3 C	10.5 E	7.3 DE	12.8 D				
취직분가 x 대도시 ^(주1)	2.5 BCD	5.0 A B C	1.9 A	3.3	4.8 AB	7.2 AB	5.1 A	8.3 A				
지방 대도시 ^(주2)	1.9 AB	3.9 A	2.7 B	4.7 A	5.1 AB	7.7 ABCD	5.9 AB	8.9 A				
비대도시	2.2 ABC	4.2 AB	2.8 BC	4.9 ABC	5.3 B	7.9 BC	6.8 CD	10.2 BC				

주: '그룹'열에 같은 문자가 있는 예측확률은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다. 이산시간모델 분석결과(시간 의존성 변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ii)을 사용한 경우의 이산시간모델(II)-(ii)의 추정 결과를 보면(표 4-2-9), 첫 직장과 최종학력 변수는 한일 양국이 앞서 살펴본 시간 비의존성 변수를 도입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결과에서도 양국 초혼시기의 결정기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1)한일 양국에서 첫 취업은 초혼 해저드를 크게 증가시키고, 남성의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 (2)첫 직장이 비정규고용이면 정규고용보다 초혼시기가 늦지만, 이것은 남성에게만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여성은 직장 내의 종사상 지위가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3)졸업 및 중퇴 후의 경과시간으로 보면, 대학 졸업은 초혼시기를 앞당기나 그 영향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2-9〉 초혼 해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중퇴	(a)15세	(b)졸업/중퇴	(a)15세	(b)졸업/중퇴	(a)15세	(b)졸업/중퇴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분가전(부모동거)*								
진학분가	1.686#	2.161**	0.974	1.204	1.509**	1.701**	1.862**	2.216**
취직분가	1.070	1.140	0.961	0.972	1.863**	1.875**	3.595**	3.578**
유소년기 거주지역								
대도시 ^{주1)}	1.026	1.016	0.704**	0.707**	0.574**	0.606**	0.551**	0.649**
지방 대도시 ^{주2)}	1.055	1.065	0.903	0.866	0.733**	0.783	0.644**	0.669**
비대도시*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 유소년기 거주지역								
진학분가 ×								
대도시 ^{주1)}	0.798	0.785	1.152	1.421	1.584*	1.379	2.495**	1.934**
지방 대도시 ^{주2)}	0.451*	0.409*	0.941	0.999	1.269	1.237	1.265	1.088
취직분가 ×								
대도시 ^{주1)}	1.155	1.189	0.969	0.947	2.113**	2.071**	2.605**	2.436**
지방 대도시 ^{주2)}	0.881	0.914	1.048	1.093	1.534**	1.455	2.312**	2.291**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리스크 시작 연령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a)15세	(b)졸업/ 중퇴
취직변화								
처음으로 취직하였음	19.048**	79.656**	3.461**	2.331**	18.265**	6.610**	2.464**	1.368**
첫직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0.758**	0.767**	1.020	1.017	0.696**	0.638**	0.965	0.915
자영업·가족종사자	0.862	0.926	0.885	1.007	1.180#	1.039	1.060	0.988
기타					0.652*	0.610**	0.827	0.705#
최종학력 ^{주3)}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1.049	1.310#	1.039	1.267*	1.003	1.291**	0.871*	1.115#
4년제 대졸 이상	1.361**	2.135**	0.841#	1.408**	1.037	1.856**	0.772**	1.155
출생 코호트(연속변수)	0.991	0.920**	0.941**	0.906**	0.983**	0.987**	0.975**	0.978**
JGGS2013년 조사 (=1)	-	-	-	-	1.330**	1.335**	1.287**	1.240*
JGGS2004년조사 50세 이상(=1)	-	-	-	-	0.885	0.909	0.767#	0.749#
연령 (baseline hazard)								
15~19세*								
20~24세(J)/ 24세이하(K)*					6.775**	-	6.524**	-
25~29세	5.09**	-	8.62**	-	20.525**	-	11.580**	-
30~34세	13.63**	-	17.43**	-	21.047**	-	5.769**	-
35~39세(J)/ 35세 이상(K)	10.74**	-	6.26**	-	8.830**	-	2.878**	-
40세 이상					2.361**	-	0.484*	-
졸업/중퇴 경과연수								
0~4년*								
5~9년	-	1.709**	-	2.826**	-	3.074**	-	2.326**
10~14년	-	2.121**	-	3.240**	-	3.612**	-	1.543**
15~19년(J)/ 15년이상(K)	-	1.219	-	2.690**	-	2.218**	-	0.594**
20~24년					-	1.241	-	0.321**
25년이상					-	0.289**	-	0.094**
상수항	21688E	1.15282	29729.	7.7738	551401	8637941	200332E	1.73713E
	+36**	E+90**	67582	4E+67**	34910**	58.4**	+19**	+17**
log likelihood	-1847.8	-1818.7	-2755.8	-2688.2	-6109.6	-6125.3	-6965.2	-6828.6
Person year	20,452	9,688	26,538	14,075	35,944	23,172	36,135	22,986

주: 각주는 <표 4-2-6>과 동일.

〈표 4-2-10〉은 〈표 4-2-9〉의 추정결과로부터 예측되는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와 유소년기의 거주지역별 초혼 해저드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분가 영향을 보면, 출신지의 영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연속시간모델의 결과와 같이 대도시 출신 여성이 상대적으로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진학 및 취직분가는 (b)졸업 및 중퇴 후의 경과시간으로 본 초혼시기를 앞당기며, 진학분가는 여성의 졸업 및 중퇴 후의 경과시간으로 본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일본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학·취업에 따라 부모 곁을 떠나는 것, 즉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분가 후의 초혼시기를 앞당긴다는 것, 그리고 분가의 상태를 통제하면 출신지의 차이가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신의 차이가 초혼시기에 끼친 영향이 분가 경험의 유무와 분가시기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 전 분가 상태와 출신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a)15세부터의 경과시간과 (b)졸업·중퇴로부터의 경과시간 모두 대도시 출신에 결혼 전 분가하지 않은 경우의 초혼시기가 가장 늦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대도시 또는 지방 대도시 출신에 취직 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한국의 결과에서는 출신지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대도시출신 여성의 취직분가 후의 초혼시기가 늦다는 것과 대도시출신 남성의 진학분가 후의 초혼시기가 늦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표 4-2-10〉 초혼 해지드 이산시간분석(시간 의존성 변수): Complementary log-log 모델로 예측한 초혼 해지드

리스크 시작 연령	한국 (YP)						일본 (JGS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a)15세 Ptd. Pr. Groups	(b)졸업/중퇴 Ptd. Pr. Groups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												
없음*	2.4 A	4.8	2.9 A	5.2 A	3.7	5.6	3.5	5.3	7.4	12.3	5.3	12.3
진학분가	2.8 A	6.8 A	2.9 A	7.0	6.0	9.9	7.4	12.3	15.1	22.7	12.3	22.7
취직분가	2.6 A	5.6 A	2.8 A	5.2 A	7.8	11.7	15.1	22.7				
유소년기 거주지역												
대도시 ^(주1)	2.6 A	5.4 A	2.4	4.5	5.3 A	8.1 A	7.6 A	12.4 B	7.3 A	11.4 AB	12.4 B	11.4 AB
지방 대도시 ^(주2)	2.4 A	5.0 A	3.1 A	5.6 A	5.4 A	8.5 A	7.3 A	11.4 AB	7.0 A	10.7 A	11.4 AB	10.7 A
비대도시*	2.5 A	5.2 A	3.4 A	6.2 A	5.7 A	8.7 A	7.0 A	10.7 A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유소년기 거주지역												
없음 ×	2.4 AB	4.7 A	2.4 A	4.5 AB	2.5	3.8	2.3 A	4.0 A	2.7 A	4.1 A	4.0 A	4.1 A
대도시 ^(주1)	2.5 AB	4.9 AB	3.1 B	5.4 C	3.1	4.9	2.7 A	4.1 A	4.1	6.0	4.1	6.0
지방 대도시 ^(주2)	2.3 AB	4.6 A	3.4 B	6.2 C	4.2	6.2 A	4.1	6.0	9.8	15.7 BC	4.1	15.7 BC
비대도시	3.2 AB	7.8 CD	2.7 AB	7.4 BC	5.6 A	8.6 AB	9.8	15.7 BC	6.1 B	9.5	9.8	9.5
진학분가×	1.9 A	4.4 AB	2.8 AB	6.5 ABC	5.8 A	9.8 BC	6.1 B	9.5	7.4 B	12.8 B	6.1 B	12.8 B
지방 대도시 ^(주2)	3.8 B	9.6 D	3.3 AB	7.4 C	6.2 A	10.1 B	7.4 B	12.8 B	17.9 C	28.7 D	7.4 B	28.7 D
비대도시	2.9 B	6.3 BCD	2.3 A	4.1 A	8.9 B	13.6 D	17.9 C	28.7 D	18.4 C	28.0 D	17.9 C	28.0 D
취직분가×	2.3 AB	5.1 ABC	3.1 B	5.7 C	8.3 B	12.5 CD	18.4 C	28.0 D	13.2	19.6 C	12.5 CD	19.6 C
지방 대도시 ^(주2)	2.5 AB	5.3 ABC	3.3 B	6.1 C	7.5 B	11.1 BCD	13.2	19.6 C			11.1 BCD	19.6 C
비대도시												

주: '그룹'열에 같은 문자가 있는 예측확률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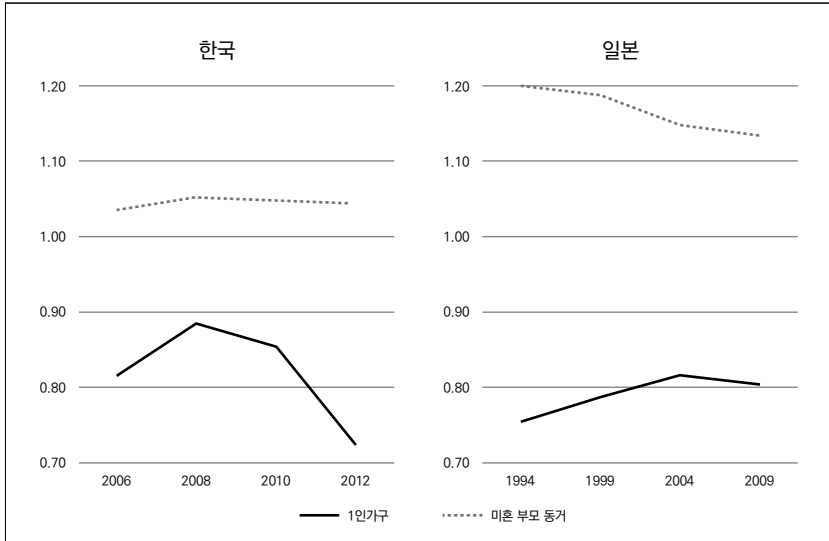
5. 가족형태별 상대소득과 지니계수 변화⁸⁴⁾

가. 가족형태별 상대소득 변화

[그림 4-2-6]은 20대의 가족형태별(1인가구, 미혼부모동거) 상대소득을 20대 전체의 평균소득과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대소득이 1이라는 것은 같은 연령의 평균치가 같다는 것이고, 1보다 크다는 것은 같은 연령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다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이 1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2012년의 1인 가구의 상대소득은 0.7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미혼 부모 동거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미혼 부모 동거 형태의 상대소득이 한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 가구와의 차이가 한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 수입이 낮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84) 분석방법 및 데이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2 참조.

[그림 4-2-6] 20대 가족형태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주: 등가가처분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sqrt{\text{가구인원수}}$)을 사용.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다음으로 [그림 4-2-7]은 30대의 1인가구와 미혼부모동거의 상대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이 2006년에는 1인가구보다 낮았지만, 2012년에는 1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미혼 부모 동거 청년층의 상대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1인가구의 상대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두 형태 모두 상대소득이 1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해당 연령층 평균인 1을 웃돌고 있으나 미혼 부모 동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4-2-7] 30대 가족형태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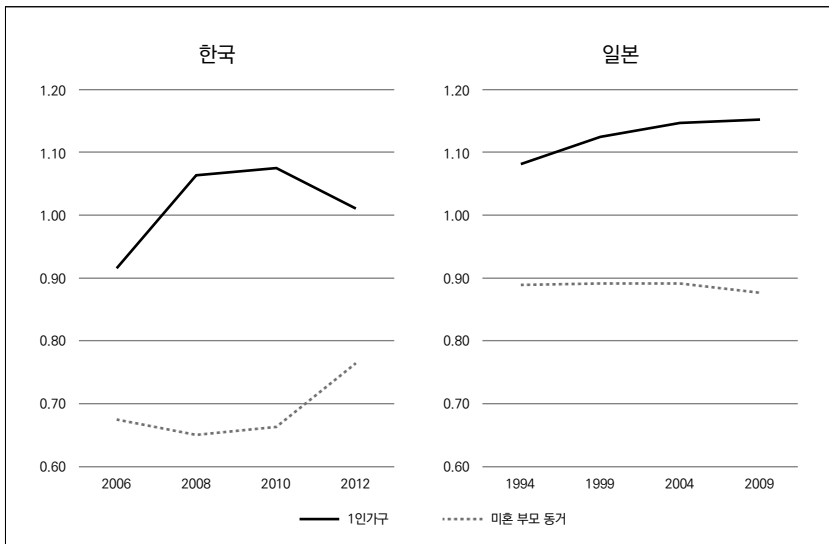
주: 등가가처분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sqrt{\text{가구인원수}}$)을 사용.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그림 4-2-8]은 40대의 가족형태별 상대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이 그 연령대 평균인 1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0.7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1인가구는 2012년에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미혼 부모 동거 청년층의 상대소득은 0.9 정도로 한국과 비교하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0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40대의 경우 부모가 퇴직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연령의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 역시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목적 및 체계의 일관성으로 인하여 유배우 부부의 상대소득을 게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부부의 상대소득이 20대와 30대에서 1인 및 미혼 부모 동거 유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에서도 미혼 부모 동거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림 4-2-8] 40대 가족형태별 상대소득(1=연령별 평균치)



주: 등가가치분소득(가구 가처분소득/ $\sqrt{\text{가구인원수}}$)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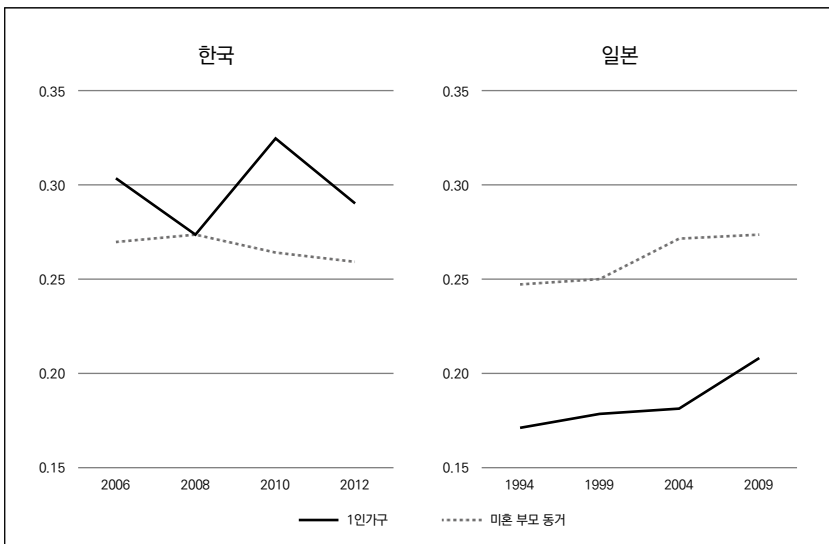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나. 가족형태별 지니계수 변화

다음으로 가족형태 내 소득격차에 관하여 고찰하려 한다. 예를 들어 상대소득이 높더라도 가족형태 내 격차가 크면 해당 유형 내에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1인가구와 미혼 부모 동거 유형의 지니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4-2-9]는 20대의 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1인 가구 내 소득

격차가 미혼 부모 동거보다 큰 반면, 일본은 미혼 부모 동거의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그림 4-2-6]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부모와 동거할 경우 상대소득이 높아지지만,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1인 가구 내 소득격차도 점점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2-9] 20대 가족형태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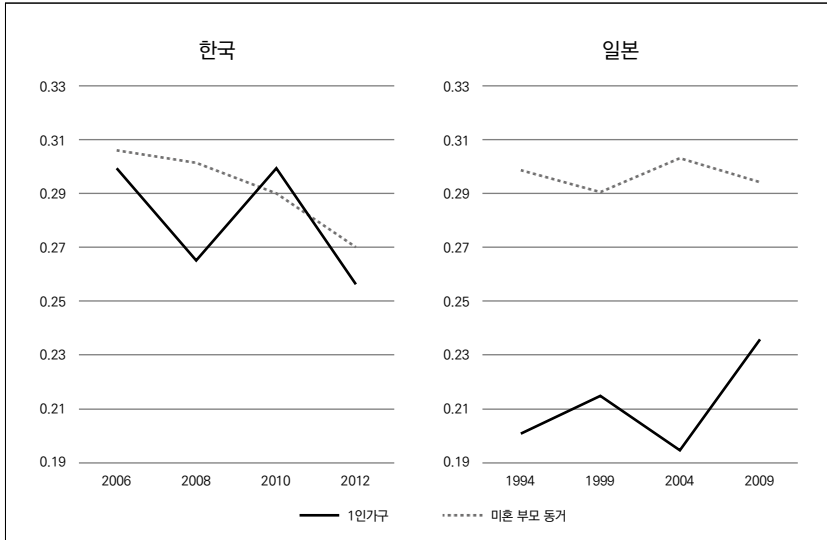


주: 등가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가구인원수)을 사용.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그림 4-2-10]은 30대의 가족형태별(1인가구와 미혼 부모 동거) 소득 격차(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미혼 부모 동거의 소득격차가 일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인가구의 경우는 한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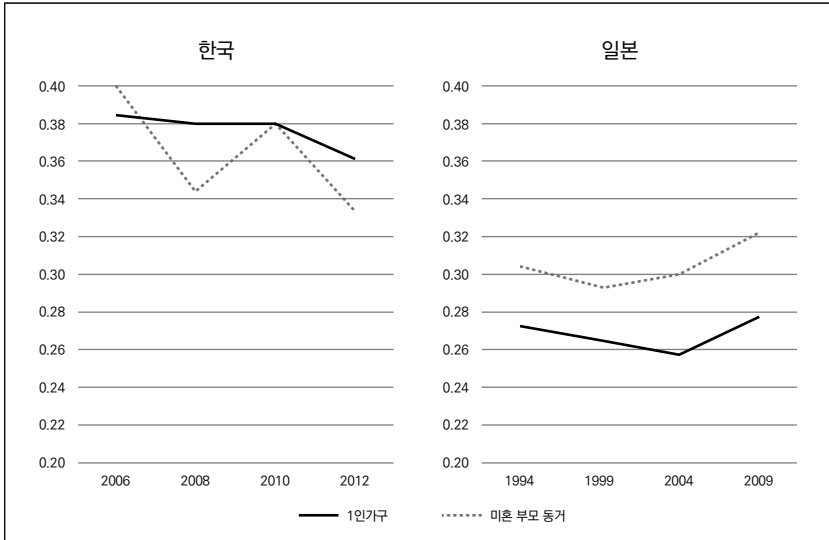
[그림 4-2-10] 30대 가족형태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주: 등가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 $\sqrt{\text{가구인원수}}$)을 사용.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마지막으로 [그림 4-2-11]은 40대의 가족형태별 소득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인 가구와 미혼 부모 동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미혼 부모 동거의 지니계수는 0.35정도로,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40대의 1인 가구는 [그림4-2-8]과 같이 상대소득이 높지만, 미혼 부모 동거는 상대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유형 내 격차도 크다. 일본은 미혼 부모 동거 내의 격차가 크고,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으며, 1인 가구 내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11] 40대 가족형태별 지니계수(1=연령별 평균치)



주: 등가가치분소득(가치분소득/ $\sqrt{\text{가구인원수}}$)을 사용.

자료: 한국 - 가계동향조사, 일본 - 전국소비실태조사.

제3절 소결

1.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

본 장의 제1절에서는 경제적 자립 관련 요인이 이성교제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다수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심리적) 연령 한계는 한국 남성 및 일본 남녀는 35세로 나타났으나, 한국 여성은 30세로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여부는 일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서 이성교제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취업 관련 요인은 경제적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이성교제확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한국 여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 중 취업 여부 이외에 유의한 것이 없었다. 학력의 경우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한국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이성교제확률이 낮아졌던 반면, 일본 남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개인사업자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개인사업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고졸이 많은 특징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경제적 요인이 일본 남성의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 남성은 소득 및 대기업 근무 등의 경제적 능력이 이성교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보다 다른 요인이 이성교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中村, 佐藤(2010)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 등의 사회 심리적 측면 및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양국 조사에서 유사한 가치관을 조사한 항목이 적어서 그다지 많은 가치관을 도입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일본 여성의 취업 여부이다. 한국 남성 및 여성도 취업 여부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과 상관성이 큰 반면에, 일본 여성의 경우는 유의한 취업 관련 요인이 없음에도 취업 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직장 내 여성의 지위 및 역할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50~70년대의 일본 고도 성장기의 가족형태는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라는 전형적인 형태였는데, 남편

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회사에 충성하고, 이러한 남편을 집 안에서 전업주부로 헌신하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의 만남은 대부분 회사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회사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은 단기 및 일반직으로 고용하여 남성과의 매칭을 염두에 두고 여성을 고용하는 형태가 많았다(岩澤, 三田, 2005).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적어지고 있지만, 아직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양국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성교제 여부에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결혼의향과 이성교제 간의 동시 내생성을 고려한 모델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추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경제적 자립과 결혼

본 장의 제2절에서는 한일 양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진학이나 취직에 따른 분가가 초혼시기를 앞당기는지, 그리고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대도시와 비대도시 간 지역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초혼 해저드에 관한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으로서 (I)연속시간모델 및 (II)이산시간모델이라는 2가지 추정방법에 대해, (i)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만을 사용한 경우, (ii)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을 사용한 경우와 같은 2종류의 공변량을 추정 방법별로 4가지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모델의 한계로 인하여 (I)-(i), (II)-(i), (II)-(ii)의 3가지 모델에 대해 각각 (a)15세부터 경과시간을 분석시간으

로 하는 경우 및 (b)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부터 경과시간을 분석 시간으로 하는 경우를 조합하여 6가지의 분석을 시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 다면적으로 비교 및 고찰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의 경과시간으로 본 초혼시기를 분가상태⁸⁵⁾로 비교하면, 양국 남녀 모두 부모와 동거해 온 경우가 초혼시기를 늦추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진학분가 후의 초혼 해저드는 부모와 동거해 온 경우에 비해 1.3~1.4배, 취직분가 후는 1.2배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진학분가 후의 초혼 해저드는 부모와 동거해 온 경우에 비해 1.8~2.3배, 취직분가 후는 2.1~4.3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각해 볼 때 진학·취업에 따라 부모 곁을 떠나는 것, 즉 경제적 자립은 분가 후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없음, 진학분가, 취직분가)와 출신지(대도시, 지방 대도시, 비대도시) 조합에 따른 9개의 카테고리별 초혼시기는 일본 남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의 분가 경험이 없는 그룹의 초혼시기가 가장 늦었고, 한국 남녀와 일본 여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의 분가 경험이 없는 그룹의 초혼시기가 일본 남성처럼 극단적으로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일 남녀 각각의 공통점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비대도시출신으로 진학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빠르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으로 취직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었다.

분가상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데 본래 취업·진학에 따라 분가를 한 경우는 분가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해 온 경우와 동일한 초혼 리스크지만, 분가 후부터는 초혼 리스크가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으로 취급하면, 학교 졸업 후 경과시간을 보

85) 분석시간으로는 진학분가 이후인지, 취직분가 이후인지, 부모와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별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를 말한다.

더라도, 15세를 기점으로 한 경우보다는 문제가 약간 완화되기는 하지만, 취직분가한 경우는 취업하기까지의 낮은 리스크 시기가 분석시간 전체의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출신 일본 남성에서 분가 경험이 없는 그룹의 초혼시기가 가장 늦었다는 결과는 ‘패러사이트 싱글 가설’이 타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양국에서 비대도시출신 남성의 진학분가는 도시 저출산 문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양국의 초혼시기 결정 기제에 유사성이 보였다는 점이다. 연속시간모델 및 이산시간모델에서 시간 경과를 변하지 않는 공변량으로 사용한 모델 (I)-(i) 및 (II)-(i)이나, 시간 경과를 변하는 공변량으로 사용한 모델 (II)-(ii)에서도 양국의 추정결과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한쪽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부호는 다른 한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II)-(ii)의 주요 추정결과를 보면 (1)한일 양국에서 첫 취직은 초혼 해저드를 크게 증가시키며(초혼시기를 앞당기며), 취업이 남성 초혼시기에 끼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5배 이상 컸다. (2)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1%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여성에게는 종사상 지위가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졸업 및 중퇴부터의 경과시간을 보면 한일 남성의 진학분가는 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분가 후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4)졸업 후 경과시간을 보면, 대학졸업은 한일남녀의 초혼시기를 앞당기지만 이 영향은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혼시기를 결정짓는 기제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유효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며, 역으로 한국에서 유효한 정책은 일본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의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수의 크기와 통계

적 유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는 한국 데이터에서 초혼과 분가 발생을 패널구조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고, 2007년 조사 시 미혼이며 부모와 동거 중이던 사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연령이 젊고 생애과정 중 커버되는 기간이 짧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데이터는 가장 최근 조사 시점(2015년)으로 본다면 분석 대상의 80%가 미혼으로 우측 관찰 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분석 대상자 코호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산연령(15~49세) 전체를 커버하는 코호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혼 해저드 연령 패턴의 비모수(non-parametric) 식별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령 패턴을 코호트 효과⁸⁶⁾와 동시에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2007년 조사에서 20세였던 청년이 2015년 조사에서 29세가 되었으며, 최근의 한국 평균 초혼연령에 근접하게 되는 코호트가 분석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2007년 조사에서 19세 이하인 청년은 2015년 조사에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며, 2007년 조사에서 25세 이상이었던 청년은 2015년 무렵까지 대체적으로 결혼했을 연령이 되었지만, 후자는 2007년 조사 시점에 기혼에 부모와 별거 상태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⁸⁷⁾ 게다가 전자에서는 2007년 조사 시 19세 이하 남성의 탈락이 많고, 2015년 조사까지 분석 대상에 존재하는 샘플은 13.4%이며, 미혼남성의 패널 존재기간은 평균 3.6년으로 짧다. 반면 데이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추정결과에서 일본과 유사성이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혼시기 결정 기제가 매우 닮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86) 젊은 코호트일수록 미혼이라는 효과를 말한다.

87) 이러한 점은 2007년 조사 시점에 25세 이상 코호트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청년만 남아 있을 것이라는 선택 편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장기적인 추적기간을 갖는 패널 데이터 및 초혼연령, 첫 분가연령, 최종 학교의 졸업·중퇴, 첫 취직 연령에 대해 회고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로 재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일본의 데이터와 같이 별도의 회고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YP와 같은 패널조사에 대해서도 2007년(1차) 조사 시점에서 회고적인 질문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 확률샘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데이터에서는 분석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를 통제하는 모델의 경우, 남성 대도시 출신은 지방 대도시나 비대도시 출신보다 초혼시기가 늦고, 비대도시 출신여성의 초혼시기가 빠르고 지방 대도시가 늦다는 점, 그리고 분가상태가 분석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한 모델에서는 대도시 출신여성이 비대도시 출신보다 초혼시기가 다소 빠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출신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분가 상태를 통제하면 출신지의 차이에 의한 초혼시기의 차이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일본 데이터에서는 출신지 차이가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서 변화하는 분가 경험의 여부와 분가시기로 설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도시 출신의 결혼 전 분가 경험 비율은 진학분가·취직분가 모두 낮고, 비대도시권 출신자에서는 결혼 전 분가가 많이 나타났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은 대도시권 주변에 모여 있고 고용환경은 비대도시권이 나쁘므로, 진학분가와 취직분가 모두 비대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이동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도시 출신에게는 결혼 전 분가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약하며, 비대도시권 출신의 결혼 전 분가가 많은 것은 도시의 인구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비대도시 출신의 분가가 누구에게 어떠한 시기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지만,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분가시기에 관한 분석은 초혼시기 결정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지역인구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는 가족 형성 이후의 소득 구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일본은 만혼화, 비혼화 등의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며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문제시되고 있고, 실제 20대, 30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미혼 부모 동거의 상대소득 격차가 작고, 이들의 결혼 후 경제수준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청년층의 경제수준이 호전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청년층 수입이 부모 세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한국의 미혼 부모 동거 상대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는 40대의 부모 세대 대부분이 현역을 은퇴하며 소득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40대의 미혼 부모 동거는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해당 유형 내 소득격차도 크다. 현재 한국의 40대 미혼 부모 동거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이 연령층의 미혼 부모 동거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20대, 30대가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은 고령자의 저소득 및 양극화 문제가 중년층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제 5 장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제1절 심층 면접의 개요

제2절 심층 면접 분석

제3절 소결

5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제1절 심층 면접의 개요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청년에 대하여 1:1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려 한다. 이미 4장에서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였으나,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것이다.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반면, 심층 면접은 면접의 대상이 된 일부 청년들의 생각일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4장에서 수행된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정보를 심층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기 열거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1. 심층 면접 대상 선정 및 대상자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경제적 자립에서는 취업 유무⁸⁸⁾를 주요 속성으로, 가족 형성에서는 이성 교제 유무를 주요 속성으

로 고려하였으며, 기본적 속성인 성별을 추가하게 되면 3개의 주요 속성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조합하면 8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으며, 각 케이스별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가별 총 16명의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로 조건을 낮춘 경우도 존재하지만 학생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샘플이 적은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지역적으로 고르게 샘플을 구성하기 어렵기에 양국 모두 거주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32명의 양국 청년에게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한국의 경우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일본은 8월 초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본 출장 중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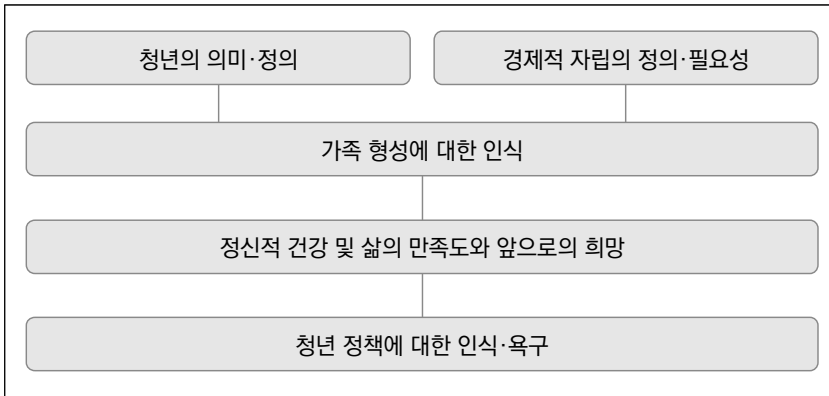
2. 심층 면접의 분석틀

심층 면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청년과 경제적 자립의 정의를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년과 경제적 자립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는 결혼 의향 및 가치관 등이 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이성교제 및 결혼에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 현재 삶에 대한 만족과 앞으로의 희망, 그리고 이들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자신들을 위한 정책 욕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에 종합

88) 취업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지 않았다.

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면접 조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면접조사의 분석틀



〈표 5-1〉 한국 청년 면접 대상자 명단

	이름(가명)	성별	연령(만)	교육수준	취업 유무	이성교제유무
1	A	여성	29	대졸	비취업	없음
2	B	남성	29	대졸	취업	없음
3	C	여성	32	대졸	취업	있음
4	D	남성	30	대졸	취업	있음
5	E	남성	27	대졸	취업	없음
6	F	여성	24	대졸	취업	있음
7	G	여성	31	대졸	취업	없음
8	H	여성	22	고졸	취업	있음
9	I	남성	25	대졸	비취업	없음
10	J	남성	28	대졸	비취업	없음
11	K	여성	24	대졸	비취업	없음
12	L	여성	33	대졸	비취업	있음
13	M	여성	26	고졸	취업	없음
14	N	남성	25	고졸	비취업	있음
15	O	남성	31	대졸(2년)	비취업	있음
16	P	남성	28	고졸	취업	있음

〈표 5-2〉 일본 청년 면접 대상자 명단

	이름(가명)	성별	연령(만)	교육수준	취업 유무	이성교제유무
1	A	남성	34	전문학교졸	취업	있음
2	B	여성	24	대졸	취업	있음
3	C	남성	27	대졸	취업	있음
4	D	여성	34	대졸	취업	있음
5	E	여성	27	대졸	비취업	있음
6	F	여성	27	대졸	비취업	없음
7	G	남성	32	고졸	취업	없음
8	H	여성	26	대졸	비취업	있음
9	I	남성	26	전문학교졸	취업	없음
10	J	남성	30	고졸	취업	없음
11	K	여성	32	대졸	비취업	없음
12	L	남성	28	대졸	취업	있음
13	M	여성	34	대졸	비취업	없음
14	N	남성	27	고졸	비취업	없음
15	O	여성	30	고졸	비취업	있음
16	P	남성	27	대졸	취업	없음

제2절 심층 면접 분석

1. 청년의 의미 및 정의

먼저 한국과 일본 청년들에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이 떠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n포 세대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양국 청년들의 차이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질문에 대한 양국의 큰 차이점은 청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국의 청년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청년은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슬프

고, 암울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등으로 표현하였고, 16명의 면접자 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한 이들은 7명으로 약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

“안타깝다. 진짜 안타까운 거 같아요. 친구들도 다 회사 다니고 하는데, 너무 다 힘들어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일하는 친구들 자체도 굉장히 좀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요.”(한국 A, 29세 여성)

“좀 신선하고, 쭈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좀 암울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한국 C, 32세 여성)

“슬퍼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청년이 대개 젊음, 열정, 포기가 었다. 뭐 아니면은 도전,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가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개 아프고 병자 같고, 약간 슬프고. 그러한 느낌이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느낌이 더 많긴 했는데, 옛날엔 그냥 긍정적인 것만 있었다면 요즘에 생각되는 거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실업하면은 실업만 나오면 되는데 항상 팔려 오는 게 청년실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이면 실업의 이미지가 이제 좀 고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괜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아직 취직 못한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안타깝죠. 많이.”(한국 D, 30세 남성)

“안타깝죠. 예를 들어 뭐 같이 이루어나가는 식, 저희 친척오빠가 76년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아

유, 결혼은 그냥 하나?’ 내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 ‘왜, 단칸방부터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바닥부터 시작하려는 의지가 충분해도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그 근처에도 못 가니까. 계속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한국 장학재단에서 일할 때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경제활동 시작도 하기 전에 빚을 이렇게 지고 시작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뭐 대출은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애네들을 빚쟁이로 모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한국 G, 31세 여성)

“힘들다. 힘들고 지지부진하고. 약간 탁한 파란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탁한 파란색. 원래 되게 맑아야 되는데 되게 탁한 파란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기를 기대하잖아요. 엄청 쫄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청년의 삶이란. 탁하고 지지부진하죠.”(한국 K, 24세 여성)

반면, 일본 청년들은 청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제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실생활에서 청년보다는 젊은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미지에 대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대부분 젊은이보다 점잖은 이미지로 일을 하거나, 어른스럽거나, 믿음직하고 멋진 이미지인 반면에, 젊은이의 이미지는 학생이거나, 유행에 민감하거나, 시끄럽고 예의가 없거나, 바보거나 출랑대거나 하는, 어른스러움보다는 아이 같고 아직 뭘 해도 용서가 되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다.

“아, 청년은 뭔가 젊잖고 어른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젊
은이하면 티비에서 요즘 젊은이는 뭐라 뭐라 하는 마이너스적인 인
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일본 청년 B, 24세 여성)

“청년은 뭐라 할까요.... 어른이 되었다는 이미지? 그런데 젊은이
는 학생 같은 이미지가 강해요. 고교생이나 대학생 정도가 젊은이이
고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는 정도가 되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
까요?”(일본 청년 I, 32세 여성)

“청년은 멋지고 듬직하다고나 할까? 반면에 젊은이는 뭘 해도 용
서받는 것 같은. 역시 젊음이라는 건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면접이
나 구인 같은 데도 젊은 사람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저도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면접에 잘 붙었는데, 지금은...”(일본 청년 G, 30세 남성)

“젊은이는 아직 지식이라고나 할까, 상식, 사회적 룰 등의 여러 가
지 면에 있어서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청년은 그러한 것들 모
두 배운 것 같은 느낌이랄까.”(일본 청년 F, 26세 남성)

한국도 일본과 같이 청년 이외에 젊은이란 단어도 사용하지만, 일본과
는 정반대의 경향이 있었다. 즉 일본은 청년보다 젊은이가 학생 및 어린
이미지가 있는 것에 반하여, 한국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청년보다 신사 같
고, 나이가 있고, 중후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 있으며, 뭔가 오래된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청년이 조금 더 어린 느낌.. 그냥 이름 그대로

파란색이 제일 딱 떠오르고, 뭔가 좀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는... 젊은이를 들었을 때, 젊은이는 약간 좀 좀... 신사 같은 느낌... 좀 점잖고, 신사 같고, 청년은 조금 액티브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한국 청년 J, 28세 남성)

“젊은이... 뭔가 옛날에 쓰는 말 같아요. 요즘은 청년이라는 말이 뉴스에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한국 청년 I, 25세 남성)

“젊은이? 젊은이라고 요새 많이 쓰나요? 되게 올드한 느낌인데요. 약간 소설에서나 봤을 것 같은. 그는 젊은이네 뭐 약간 이런.”(한국 청년 K, 24세 여성)

2. 경제적 자립의 의미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의 정의 및 정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일을 하는 것과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실제로 청년들도 일을 시작하거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 정신·육체·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 의존하지 않는 것 등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에게 독립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완벽한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 청년 H, 22세 여성)

“자립의 최종적인 거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그냥 저 혼자 살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그런 정도가 자립인 것 같아요, 완전히.”(한국 청년 N, 25세 고졸)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까....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답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갖는 것 등이라고 생각해요.”(일본 청년 K, 27세 여성)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 않을까요?”(일본 청년 L, 28세 남성)

그런데 자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이 매우 엇갈렸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자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일본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은 필요하지만,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살게 될 텐데, 굳이 매달 월세 및 생활비가 드는 독립을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것은... 음... 그다지... 음... 결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전에는 굳이 필요할까.... 꽤 돈도 들고... 무리해서 나가서 좋을까란 생각도 해보고요. 만일 회사가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일본 청년 F, 26세 남성)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립에 가까울 수 있긴 하고... 뭐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립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이 자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 게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란 생각은 합니다.”
(일본 청년 K, 27세 여성)

그러나 한국 청년들도 분가를 하고 싶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및 생활비 때문에 분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기회비용적인 생각이 강한 것으로, 예를 들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 굳이 나가 살면서 주거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일본 청년과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 청년은 독립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인 반면, 일본 청년들은 분가할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굳이 그것을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 돈 걱정. 왜냐하면 제가 나가는 거에서 제가 바로 전세를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월세나 선택할 텐데 제 나이 또래에 전세를 가진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엄청 싼 집을 구한다 그러면 전세를 반 전세라도 구할 수 있겠죠. 제가 가진 적금을 깎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월세를 구해서 나가겠죠. 보증금에는 큰돈이 나갈 거고 월세라는 파박파박 나가는 돈이 생길 거고. 그럼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용돈에서 감액이 되는 건데 그 감액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면 신발을 두세 개를 더 살 텐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더 살 텐데, 여자 친구

랑 데이트를 더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한국 청년 P, 28세 남성)

독립을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국 청년 중에는 독립의 필요성을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공산품의 가격, 세금 등은 부모와 같이 살 때는 신경 쓸 일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혼자 살게 되면 이러한 것을 모두 자신이 도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일본의 청년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립이 아니고, 따로 살아도 용돈을 받고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자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너무 행복해요.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할 수 있어서... 아니, 이전에는 용돈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제가 떼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뭘 사고 이런 거에 있어서나. 하고 싶은 걸 할 만큼, 지금 하고 싶으면 돈을 그만큼 벌면 되잖아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한국 청년 H, 22세 여성)

“제가 못 그러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여자 친구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여자 친구 보면은 저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그 친구가 혼자 사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솔직히 전 계란 한 판이 얼마지도 몰랐어요. 제가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세제도 제가 사본 적이 없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혼자서 산다는 건 참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구나. 이거는 반대로 엄마가 해주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한국 청년 O, 31세 남성)

“음... 자립은... 글썄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자립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살아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자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세가 실제 이 정도 들고, 의외로 생활하는 데에 꽤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생활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경제관념 이랄까. 그런 것을 몸에 배게 하려면 혼자 사는 것뿐이 없지 않을까 해요.”(일본 청년 C, 27세 남성)

“자립의 필요성이에요? 역시 부모님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일본 청년 L, 28세 남성)

3.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청년들의 결혼 의향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결혼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면접 조사에서는 우선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질문하였다. 즉,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경제적 요인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

가. 결혼에 대한 이미지

결혼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서 양국에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한국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본 면접 조사 대상의 여성 8명 중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5명이었다. 반면, 일본 여성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남성 또한 대부분 결혼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

한국 청년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답답함, 족쇄, 구속, 여자의 무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두 명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답답하다고 한 여성의 경우는 그 이유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은 아직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게임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생활을 버리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친구는 없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누군가(남편 및 자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결혼이 족쇄, 구속이라고 한 다른 여성도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답답함… 그러니까, 그냥 맞춰 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를 조금 더 내려놔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행, 친구들과 여행가는 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밤늦게 노는 것도 그렇고, 게임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너 결혼 안 해?’ 뭐 이러면 ‘결혼하면 좋아?’라고 그러면 ‘응.’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일단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 옛날에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으면, 지금은 누구 엄마가 된대요. 그것도 익숙해지는 데 오래 걸리고, 일을 또 하잖아요. 거의 전업주부가 많이 없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고 싶고 자기 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한국 청년 C, 32세 여성)

결혼을 여자의 무덤이라고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언급하며,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막 대하는 것을 보고 자라며 자신은 절대 핏줄이 아닌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하고 있다.

“여자의 무덤, 시댁, 혼수, 부담, 빚… 저는 결혼 할 생각이 없어요. 인생에서 결혼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저는 엄마가 결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엄마한테 시어머니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막 대하는 거, 막말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엄마는 결혼 안 했으면 저희 할머니랑 만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막말 들을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왜 모든 남녀 관계가 결혼으로 귀결이 돼야 하죠?’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별로 긍정적인

진 않네요. (한국 청년 K, 24세 여성)

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본 보고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4장의 실증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족형성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취업,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증 분석에서는 분석 주체들의 행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일 뿐, 그 주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심층 면접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족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은 ‘만일 교제하는 상대가 무직일 경우 교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와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1) 이성교제

경제적 요인과 이성교제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직업이 없으면 교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남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직업이 있다가 없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없어도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겠는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애를 도와주고 시작해야 된다면

는 건 그렇잖아요.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
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교
제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이라면 생각해볼 것 같아요. (한국 청년 P,
28세 남성)

“아무 꿈도 없이 무직이라면 헤어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돈 없이
는 계속 데이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국 청년 A, 29세 여성)

반면, 그중에는 직업이 없어도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
이 결혼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직인 상대
는 교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
한다.

“뭘, 교제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만, 결혼이 전제가 된다면 헤어질
것 같습니다. 연애라는 범주에서는 상관없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 같
아요. (한국 청년 G, 31세 여성)

“저 같은 경우는 교제와 결혼은 같이 가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상대가 무직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맞벌이면 좋겠어요. (일본 청
년 P, 30세 남성)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일을 할 의지가 있으
면 교제가 가능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교제가 힘들다고 하고 있으며, 취
업을 하고 난 후여야만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다.

“일할 의지가 있어서 직업을 찾고 있으면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일할 의지도 없으면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일본 청년 J, 27세 여성)

“만일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교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무직이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교제를 하게 되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역시 생활이라는 게 둘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아요.”(일본 청년 M, 34세 여성)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성 자신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만일 남편이 집안일을 잘 해줄 수 있다면, 결혼까지도 가능하다는 경우였고,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현재 무직으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제가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남편이 가사일을 해 주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고 난 후에 시간제 일자리로 집안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면 결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일본 청년 K, 27세 여성)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태인데,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되면, 저는 옆에서 믿어주고 격려해 주면서 응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헤어짐을 결정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한국 청년 H, 22세 여성)

2) 결혼

경제적 요인과 결혼에 있어서 양국 청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는 여유가 없어도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는 2건, 일본 남성은 3건인 반면, 한국 여성은 1건, 일본 여성은 최소한의 생활⁸⁹⁾이 보장된다는 조건에서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남성 중 1명은 자신은 경제적인 것이 부족해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쪽에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남성의 경우도 상대 여성과의 합의가 중요하고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는 근데 만나기 힘들겠죠.”(한국 청년 B, 29세 남성)

“경제적 여유라... 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상대 여성이 동의를 할 때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둘이 노력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일본 청년 A, 34세 남성)

한국 여성의 경우는 8명 중 1명만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여성은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89) 여기에서 최소한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칭한다.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직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 자신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가 대학생이어서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보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지금 학생인데 뭐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더 공부를 해야 돼 가지고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럼 제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한국 청년 H, 22세 여성)

일본 여성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될 정도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될 정도의 별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만일 상대가 건강하고 일만 하고 있다면 결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없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될 정도면…”(일본 청년 M, 34세 여성)

“경제적인 여유라… 음, 집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무리고요. 그래도 정규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일본 청년 E, 26세 여성)

4. 정신적 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 앞으로의 희망

가. 정신적 건강 및 사회 적응

직장 내에서의 정신 질환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고, 근로자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저학력자들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2). 특히 노동시간은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1)은 우울 불안장애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들이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이들보다 발병률이 2배 이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면접 조사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질문을 설계하지는 않았으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경험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분포하였는데, 특히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나타났다. 일본의 대상자 16명 중 정신 질환을 경험한 이는 4명이었고, 한국은 1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에서는 과중한 노동 및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외 근무 등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 소위 말하는 블랙기업⁹⁰⁾에 취업한 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

면접 조사 결과, 정신 질환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안 환경으로 인한 것과 두 번째는 일을 하다가 발병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집안 환경으로 인한 것은 일본에서 2건, 한국에서 1건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합병증 같은 것이 심하여 이를 간호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아버지는 한때 티브이 뉴스에 나올

90)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시간외 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청년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을 행하고 이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어이다.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가끔씩 뭔가 이상하게 그림자 부대, 그림자 부대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뒤에 붙어 있다고 해요. 같이 외출하면 누군가가 따라온다고도 하고, 은행을 가면 누군가가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뭘 맞아서 몸이 컨트롤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주 하세요. …(중략)…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아버지가 좀 나쁜 짓을 하셔서 경찰에 잡혀 신문에 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일본 청년 G, 30세 남성)

일본의 또 한 건은 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러한 부모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뭘라 할까요. 가정 내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과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결과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친구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부모님과 사이가 떨어진 계기는…。 부모님이 종교 활동에 매우 심취하여 저희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일본 청년 N, 27세 남성)

한국의 경우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학창 시절 남자애들에게 당한 성추행 등이 원인이 되어서 강박증과 우울증이 온 경우였다.

“제가 이제 남자애들한테 아빠도 그렇게 폭력적이었고, 중학교 때 남자애들 성추행에 집단 폭행을 맞는 건 아닌데 언어적인 거, 시선적인 걸 당했어요. 좀 오래. 학원에서. 근데 그래서 남자한테 대적을 잘 못해요.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강박증이랑 우울증이... 우울증은 많이는 좋아졌는데 강박증이 좀 심해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한국 청년 M, 26세 여성)

두 번째의 경우는 일을 하면서 발병한 경우인데, 두 건 모두 일본 청년에게서 나타났다. 첫 번째 경우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양복 체인점의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 2년 반 정도 근무한 후에 퇴사하게 되었다. 당시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계속 지속되어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양복 체인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반 동안 정규직으로요. 그런데 제가 있던 점포가 매우 바쁜 곳이라서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날이 한 달에 반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6시나 6시 반에는 일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밤 11시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어요.”(일본 청년 J, 27세 여성)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질환을 경험한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블랙기업에 입사하고 1년 반 후에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했지만, 자신에 대한 동료 및 회사의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아 반 년 정도 만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이다.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대략 80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상장도 된 회사였어요. 그런데 건설 쪽도 같이 해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야근도 많고, 야근을 해도 시간외 수당을 잘 챙겨 주지도 않는 요새 말하는 블랙 기업 같은 요소가 많은 곳이었어요. …(중략)… 입사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정신적으로요. 어느 날 회사를 가기 싫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갔었어요. 정신과 병원요. 그런데 의사가 당분간 일을 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입사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후 한 1년 정도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는데, 복직하고 난 후에 근무 시간 같은 걸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주위의 눈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느껴졌고, 저도 좀 불편해서 복직하고 반 년 정도 있다가 퇴사했어요.”(일본 청년 K, 27세 여성)

나. 삶의 만족도 및 앞으로의 희망

후루이치 노리토시(2014)는 현재 일본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즉 일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만큼 행복을 현재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에게 현재 삶의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서 측정하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양국의 만족도 평균은 한국 남성이 66.7점, 여성이 65.0점, 일본 남성이 40.8점, 여성이 67.5점으로,⁹¹⁾ 일본 남성을 제외하면 그 외의 만족도

91) 면접 대상자의 성별 별 인원 8명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6으로 나눈 점수를

점수는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 청년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 남성 중에는 만족도가 10점인 청년이 두 명 있었는데, 10점을 준 이유가 한 명은 장시간 노동으로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또 한 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점수가 왜 그렇게 낮냐고요? 음..., 요즘 일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좀 뒹굴뒹굴하면서 티브이나 영화 같은 것을 좀 보고 싶은데, 티브이 보는 것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요.”(일본 청년 L, 28세 남성)

“학교 다닐 때, 영화를 제작하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픽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졸업한 후에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10점이고요. 10점을 준 건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죠.”(일본 청년 F, 26세 남성)

앞으로의 희망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꿈이 있는지’, ‘앞으로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양국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경향이 많았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 청년 F(26세 남성)는 그래픽 디자인 전문학교를 나와 현재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

관심이 많고 학창 시절에도 그러한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꼭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청년이 다수 존재하였다.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면 꿈이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미래가 그다지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만들고 싶어요.”(일본 청년 F, 26세 남성)

“꿈이랄까, 목표는…. 지금 큰형이 몬테네그로의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독립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형이랑 같이 외국에서 일식집을 해 보고 싶어요. 돈을 좀 모아서 그 후엔 저도 제 가게를 가지는 것이 꿈이에요.”(일본 청년 N, 27세 남성)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를. 인터넷 소설이 요즘 유행이라서. 제가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설 쓰고 있는데. 저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거에서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줘서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도 되고요.”(한국 청년 D, 30세 남성)

“꿈요?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꿈. 저는 꿈은 일단 제 자리에서 그래도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인 꿈이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잘 되어서 뭔가 좀

그런 꿈. 꿈이라면 어떻게 말해야지? 가장 좋은 건 가족 있고, 가장 큰 건 전 뭐 어린이집 만들고 싶어가지고. 뜬금없긴 한데. 만약에, 가 능하면은 뭐 그 뭐 해보고 싶어요. 애들을 좀 좋아해서....”(한국 청년 E, 27세 남성)

5.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청년에 대한 정책은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 정책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부분 어떤 청년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의도연구원(2016)에서는 정부 시행 4대 일자리의 정책 인지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58.8%,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는 61.5%, 일·학습 병행제는 73.8%, K-Move는 78.4%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계기가 가족·친지·친구의 소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무현, 강은영, 이상호, 장혜정, 2015). 본 면접 조사에서도 청년들에게 인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단 본 질문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년의 응답만을 정리한다.

한국 청년의 대부분은 청년 대상의 정책에 대하여 어렵풋이나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개 말고는 그렇게 인지도가 크다고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과 같이 매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정책 이외에 청년통장, 취업성공패키지나 고용 디딤돌 사업의 경우는 비교적 인지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즉 사업 간의 인지도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대상 청년들

이 이러한 정책 수혜를 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 그거 알아요. 무슨 통장? 정확히 명칭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뭐. 소득이 뭐 100 얼마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적금같이 들면 몇 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이자가 좀 높은 그런 게 있긴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아마 돈을 벌었던 뭔가 그게 있어야 했어요. 4대 보험 냈던 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됐어요.”(한국 청년 A, 29세 여성)

면접 대상 청년들이 받고 싶은 정책은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주택 같은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욱 확충하는 것, 중소기업의 처우를 좋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봉이 좀 의외로 높아서 못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연봉이 높은 건 정말 행복한 건데....”(한국 청년 D, 30세 남성)

“다 서울 인구가 막 도시 외곽으로 빠진다고 하고. 그거 잡기 위해서 지금 나라에서 청년 주택 같은 것을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비어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서울시라든지 LH공사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한국 청년 B, 29세 남성)

“제 친구들 보면 중소기업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임금 차이도 그렇고, 복지가 가장 크죠. 그니까 임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 배 이상 벌어지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같은 경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아니면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신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사수한테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하는 건데, 중소기업은 그런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한국 청년 D, 30세 남성)

“지금 그런 질이 안 좋은 중소기업의 청년들더러 너네 왜 대기업만 보니. 이런 데 자리 널널하잖아. 저기 가라고 말하는 거 너무 폭력적이에요.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에서 뛰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건데 그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건데 그거를 정부나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일자리가 괜찮으면 왜 사람들이 저기에 안 가겠어요? 다 일로 가죠.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죠. 복지라든지 그런 거 정말...”(한국 청년 K, 24세 여성)

앞서 한국과 일본의 이성교제 분석에서는 양국의 남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의 이성교제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이성교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이들에게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형태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청년들에게 정부 및 지자체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국의 경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굳이 그런 데까지 가서 상대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은 듯했다.

“아, 국가에서요? 그것까지 할 정도면 정말로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굳이, 아니 뭐, 국가에서까지 그런 거 하는 거를 참여할 정도면 얼마나 공한지... 뭐 저는 일단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한국 청년 E, 27세 남성)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나? 근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한다 하니까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한다니까 또.”(한국 청년 A, 29세 여성)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는 다르게 주최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만남 주선에 관하여 매우 관대하였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 만남 행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훨씬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성 친구도 그러한 만남 행사 및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참여한 경험도 있었고, 대부분 이러한 만남 주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의 남자 친구는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등록한 게 작년 7월인가. 작년 7월 정도에 전

남자 친구와 헤어져서 그 이후에 제 주위에서 남자 친구를 찾았었는데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요.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걔가 그걸 하더라고요. 꽤 할 만하다고 그래서 저도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1개월 정도 만에 바로 지금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5명 정도 만났나?(일본 청년 E, 26세 여성)

“얼마 전에 참가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최한 건 아니고 시의 청년회의소에서. 요즘은 만남이 없는 일본인이 많잖아요. 이전엔 만남이 없어도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최근엔 혼활⁹²⁾이라고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나오고 하니까 여러 정보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일본 청년 A, 34세 남성)

“뭐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참가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결혼하고 싶으면 혼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일본 청년 K, 27세 여성)

“최근 매칭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에 가는 것보다는 전 이쪽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만남 주선하는 곳도 가봤는데 사이트가 훨씬 만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조건 같은 것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혼활에 가깝다고나 할까. 조건을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일본 청년 P, 30세 남성)

92) 山田昌弘(아마다 마사히로)와 白河桃子(시라카와 모모코)가 2008년 저술한 『「婚活」時代(혼활시대)』에서 파생된 신조어이다(山田, 白河, 2008). 이것은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축약하여 「취활」로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도 취업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혼활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관심을 많이 받거나 봄이 형성된 키워드를 정하여 연말에 상을 수여하는데, 이 혼활이라는 단어는 2009년 연말에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크게 청년의 의미 및 정의, 경제적 자립(독립)의 의미 및 필요성,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만남 주선 사업에 대한 인식, 정신 건강 및 사회 적응, 삶의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희망,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양국 청년들에게 청년 자신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양국 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심층 면접 대상 청년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을 매우 슬프고, 암울하고, 힘들고, 안타깝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일본의 청년들은 어른스럽고, 믿음직하고, 멋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청년들의 취업 상황이 반영된 이미지로 보인다. 이것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취업 상황이 일본의 취업 상황보다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청년보다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 및 자립이라는 것은 양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일을 하고, 혼자 살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독립이 매우 필요하고 가능하면 독립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수인데 반하여, 일본은 결혼하면 독립을 하게 될 것인데, 주거비,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빨리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패러사이트 싱글이 유사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혼에 관해서는 한국 여성만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그 비율도 매우 높았다. 그들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는 답답함, 족쇄, 구속, 여자의 무덤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아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는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한 여성 중에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이혼의 위기에 있는 경우도 존재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는 대부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이 양국 간과 성별의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단,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즉 직업이 없더라도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 아닌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단기적인 경우에 한정할 때였고, 이러한 경향은 양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미혼 남녀 주선 사업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이 매우 엇갈렸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반면, 일본은 긍정적이며, 면접 대상자 중에서도 현재 이성친구를 유사한 행사에서 만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정신 건강 질환의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으나 면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크게 가정환경과 일을 하다가 발병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가정환경의 경우는 부모의 자녀 육아 방치와 폭력 등이 원인이었고, 일의

경우는 직원을 1회용 물품으로 보는 소위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삶의 만족도 및 앞으로의 희망은 후루이치 노리토시(2014)가 언급한 일본의 청년들이 미래의 꿈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그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일본 청년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특히 일본 청년 남성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그의 저서가 집필된 것이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서 2010년 전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본 청년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취업 등의 경제적 상황)과 최근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쟁점 사항으로 여러 매체에서 오르내리는 정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청년 정책,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에 대한 욕구는 주거 지원 정책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있고, 업무가 분업화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은 신입사원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복지 등이 열악하며, 임금이 대기업 수준이 아니라면 복지라도 그에 맞았으면 하는 요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심층 면접 조사는 어디까지나 일부분의 사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만족도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일본 청년만을 모아서 조사

를 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결과는 한국과 일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경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제 6 장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정책 현황

제1절 한국의 정책 현황

제2절 일본의 정책 현황

제3절 소결

6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정책 현황

제1절 한국의 정책 현황

한국은 2010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청년층의 가족형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정책으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청년층 일자리정책, 관계부처합동으로 수행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추진한다(제20조). 이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운영 중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기혼가구에 대한 보육부담 완화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대책 강화 등의 만혼 및 비혼 관련 대책으로 전환하였다.

〈표 6-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추진방향

구분	추진방향
청년 일자리대책	• 노동 개혁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통한 청년고용 안정
	• 능력중심 사회 구현으로 학벌·스펙이 중요한 채용문화·관행철폐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주거대책	• 청년세대부터 예비부부까지 결혼에 이르는 주거사다리 강화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수준 높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 지원의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맞벌이 등 체감도 제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56.

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1)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고용률은 2016년 42.3%로 OECD 평균 50.4%(OECD, 2014)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 인력공급은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은 2015년 기준 116만 명 수준으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상의 어려움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층은 취업에 애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노동환경에 대응해 정부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제도·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

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일자리의 질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2016에는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을 함께 도모하는 생산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및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인력운영 효율화,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작동을 모색하는 한편 정규직·직접 고용을 채용하는 문화조성 등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경우 청년 1인당 500만 원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의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층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1인당 2년간 연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제를 확대 운영하여 인턴 후 정규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인턴은 2015년에 1.5만 명에서 2016년에는 3만 명으로 2배 증가하였다. 이외에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우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자금 조성(성장사다리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신(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변화에 따른 미래인력 수요⁹³⁾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93) 미래인력 수요에는 3D 프린팅,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IoT 등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 인력 양성, 고급·융합 SW 인력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됨.

〈표 6-2〉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 질 제고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5대 노동개혁 입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2015년 정기국회 처리 모색
	•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생산성·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나누기 확대
	•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확산 등): 상생고용 문화 확산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 청년신규채용 도모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 임금·근로시간 조정 등 효율적 작동 모색
	•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57-58.

2)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층이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을 종전 연 1회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고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대생·4년제 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지급하여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 근무 또는 창업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5년 이상 재직 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6-3〉 주된 일자리로서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대상 확대
	•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활성화
	•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성 과보상기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59.

3)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

2016년에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을 증진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를 분담하여 최대 3억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2016년부터 청년벤처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거점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청년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표 6-4〉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제고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도입(2016):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 부담, 최대 3억 원까지 3년 지원
청년벤처 창업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성과보상기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59.

4)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학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산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6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개교에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공업계 특성화고교 전체에 확대하였다. 전문대에서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시범사업을 16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4년제대학에서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⁹⁴⁾를

94) 대학-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산학협력 교육훈련제도로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결합한 제도를 말함.

2016년 20개로 확산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인문역량을 강화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인문학과 타학문 간에 융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인문학과 타 학문 간 융합에는 지역 중심으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융합한 글로벌 지역학과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분야와 융합한 전공분야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체-대학 간에 계약학과 설치요건은 기존 중소기업과 이공계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쏠분야로 완화하였으며, 지원수준은 기존 학기당 교육생 2인 평균 37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대학의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지원으로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표 6-5〉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구분	추진방향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 재학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0개교('16)→공업계 특성화고교 전체('17) (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시범사업 16개 대학 실시 (4년제) IPP형 일학습병행제: 20개('16) 대학 실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강화	•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 학문 후속세대 육성 • 인문학과 타 학문 간 융합촉진 *(글로벌 지역학) 지역 중심으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 융합 (융합전공)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분야와 융합한 전공분야 운영
산업체-대학 간 계약학과 확대	• 설치요건 완화: 중소기업, 이공계 분야→중소·중견기업, 쏠분야 • 지원확대: 학기당 교육생 1인 평균 37만원→74만원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질 개선 유도	•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지원: 인력수급전망에 기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60.

5) 청년 해외취업 촉진과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층의 고급·전문 직종 진출확대를 위해 국가별·직종별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양화·차별화하고 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IT, 특수 기술·가능 직종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가칭) 정해진(청년 해외진출) 대학** 등 대학 장기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신흥국을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우수 한상기업 등의 중간관리자로 취업 후 현지 창업 등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홍콩을 대상으로 글로벌리크루트사와 협력해 초급 경력직 등 대상으로 전문직종 진출을 확대한다. 중동을 대상으로 국내 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여 인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돕는 온·오프라인(On-Off) 정보제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월드잡+ 확대개편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해외취업 설명회,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외에 청년 해외진출의 제도적 장벽 완화방안으로 자격상호인정, 비자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고 있다.

〈표 6-6〉 청년 해외취업 촉진과 해외 일자리 확대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맞춤형 진출 전략	• 선진국: IT, 특수 기술·가능 직종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가칭) 정해진(청년 해외진출) 대학 등 대학 장기교육과정 확대
	• 신흥국: 우리 기업 현지법인·우수 한상기업 중간관리자
	• 싱가포르·홍콩: 글로벌리크루트사와 협력 초급 경력직 대상으로 전문직종 진출
	• 중동: 국내 병원·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여 인력 진출 확대(복지부·국토부·산업부)
정보제공 확충	• 온라인: 월드잡+확대개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세한 정보 안내
	• 오프라인: 해외취업 설명회,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 개발·보급
진출 애로요인 해소	• 제도적 장벽 완화: 자격상호인정, 비자발급 요건 완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58-59.

6)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이 초기에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전공별로 맞춤형 진로지도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원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분절된 대학 내 청년취업기능을 통합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충하여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원스탑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15년 21곳에서 2016년 40곳으로 확대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지역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에 특화된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신설·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의 정부지원사업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산업별 산재된 청년고용정책을 대표 사이트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정보제공 및 참여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표 6-7〉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의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초기에 진로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준비 모색	•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유도
	•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프로그램 확충
	• 교원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 강화
원스탑 전달체계 구축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 21개(‘15년)→40곳(‘16)
	• 지역별 창조교육혁신센터(17개): ‘고용존’ 구축
정부지원사업 접근성 제고	•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연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정보제공 및 참여신청의 편의성 제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60.

나. 청년층의 주거안정화 정책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이 7,500만 원이고 결혼비용 중에서 남성의 82%가 신혼주택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제도는 크게 주택 마련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과 주택 실물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지원은 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월세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고 임대주택은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8〉 청년 주거 지원 제도

제도		내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	디딤돌 대출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하여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버팀목 대출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하여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월세 대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혹은 근로 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 자녀 장려금 수급자,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부부로 확대 시행
임대 주택	행복 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2016. 9/LH)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한 집에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로 주거 제공
	전세 임대	대학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찾아 LH에 의뢰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p. 59.

임대주택 사업은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주요 공급 대상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

택, 공공기숙사 등이 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기숙사의 공급 목적에 따른 공급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9〉 임대주택 사업 비교

구분	공급 목적	공급대상	청년우선
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
공공기숙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	대학생(방통대, 사이버대 등 제외)	○
공공임대(10년)	내집마련 계층 지원	청약저축 가입자	x
국민임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소득4분위이하가구의저소득계층	x
영구임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x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안정	제한없음	x

주: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_de=MENU001에서 2017. 10. 26. 인출.

자료: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발췌하여 정리.

2014년 기준 매년 약 30만 가구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은 5년·10년, 특별공급 등을 포함 약 1.2만 호 정도이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자원 수요는 높으나 대출한도 및 금리 측면에서 맞벌이나 신혼부부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 청년층 주거지원

(1) 행복주택 사업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 30년이고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정도의 보증금과 임대료이다. 공급의 80%를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청년 계층에게 공급한다.

〈표 6-10〉 행복주택 대상(청년층 공급물량 부분)

계층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해당(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예정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며,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무주택자 * 해당(인근) 지역에 거주(단 부모는 해당(인근)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졸업한 학교가 해당(연접)지역에 위치했어야 함	
사회 초년생 계층	사회 초년생	해당(인근) 지역에서 소득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해당(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로서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고, 혼인상태가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본인은 80%이하)
	재취업 준비생	해당(인근) 지역에 위치한 직장 퇴직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이고, 소득 업무에 종사한 기간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상태가 아닌 무주택자	

주: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 de=MENU001>에서 2017. 10. 26. 인출.

자료: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발췌.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의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게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지원한도는 지방 쪽방 5천만 원부터 수도권 8천5백만 원까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세금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250%(대학생은 1인 가구는 150%, 공동거주는 200%)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표 6-11〉 전세임대주택 대상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인 대학생 - 1순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장애인가구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대비 일정액 이하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는 제외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장애인가구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대비 일정액 이하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는 제외

주: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MENU001>에서 2017. 10. 26. 인출.

자료: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발췌.

(3)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사업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나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1회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거형태는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이 있고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이다.

〈표 6-12〉 공공기숙사 대상

대상 및 순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대상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사회적배려대상 우선선발)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순위	· 장애인	· 수급자가구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한부모가족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국)
2 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 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해당 가구의 자녀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다가구형: 월평균소득 50% 이하 - 공공기숙사형: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 수급자가구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 한부모가족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5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6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해당 가구의 자녀 (서울 지역 거주자) - 다가구형: 월평균소득 50% 이하 - 공공기숙사형: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 de=MENU001>에서 2017. 10. 26. 인출.

자료: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발췌.

2) 신혼부부 주거지원

(1) 예비 부부 및 학생부부 주거지원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2013~2014년 각 3천 호에서 2015년 4천 호, 2016년 5천 호, 2017년 6천 호로 매년 천 호씩 확대 공급하고 있다.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시기는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대출시기가 연장되었다. 또한 대다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주거지를 마련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 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기숙사 건립 시 기혼 대학(원)생 숙소 5% 이상을 확보하여 대학(원)생 부부 기숙사로 공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4개 대학에서 총 2,904명의 수용규모를 건립하였고 이 중 기혼자 숙소는 145명을 공급하였고, 2017년에는 2개 대학에 총 1,680명 수용 규모를 건립하였고, 기혼자 숙소는 84명을 배정하였다.

〈표 6-13〉 청년·예비부부 및 학생부부 대상 주거 지원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각 3천호('13~'14)→각 4천호('15)→각 5천호('16)→각 6천호('17)
	•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신청 편의 제고: 결혼 2개월 전→3개월 전
	•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부여('16)
학생부부 주거여건 개선	• 국립대 기숙사 건립시 기혼 대학(원)생 숙소 5% 이상 확보 *4개 대학 수용규모 2,904명 건립(기혼자 숙소: 145명)→2개 대학 수용규모 1,680명 건립(기혼자 숙소: 84명)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61-62.

(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입주 대상 소득 기준은 2015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에서 2016년부터 70% 이하로 완화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하였다. 단 사회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하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2016년부터 평균 공급량인 3천 호보다 확대된 4천 호를 공급하여 향후 5년간 약 2만 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서 2만 호는 전체 전세인데 물량이 현행 수준(2016년 3.1만 호)에서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5년간 5.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남 미사 등 5개 지구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거주 중에 출산할 경우에는 더 넓은 행복주택을 재청약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표 6-14〉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대상 및 특화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수도권·지방 대도시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서울 오류(16: 8백호) - 하남 미사(17: 1천5백호) 시범사업 추진 - 성남 고등(18: 1천호), 부산 정관(18: 1천호) - 과천 지식(19: 1천 5백호) 등 총 5,800호 추진
특화내용	50% 이상 투룸형으로 (예비) 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 대폭 확충 *친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 내 썸지농장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63.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년·10년 임대주택 6만 2000호를 우선·특별 공급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를 우선 공급하며, 5년·10년 임대주택은 15%를 특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연 5% 이내) 장기 거주(최장 8년)하면서 세탁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제공 및 신혼부부의 목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5년 1.4만 호(리츠인가 기준)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2017년에 최소 6만 호(누계)가 달성 될 때까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만혼 추세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자 선정기준을 신혼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현재도 나이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 6-15〉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계획

구분	추진방향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 소득 기준 대폭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15)→70% 이하('16)
행복주택 공급	-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 향후 5년간 5.3만 호 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출산시 행복주택 재청약 기회부여,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5년·10년 임대주택 등 약 6.2만 호 우선·특별 공급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 신혼부부 대상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연 5%이내) 장기 거주(최장 8년)하면서 세탁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2017년까지 최소 6만 호(누계) 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 시 인센티브 부여 *전세임대: 나이 어린 신혼부부 가점부여 *국민임대와 5년·10년임대 확대 검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62-63.

(3) 신혼부부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마련 자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과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의 전세 시세를 감안하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제도 변경 이후 신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 우대(0.5%포인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두 자녀가구에 대한 금리 우대(0.2%포인트)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금리 우대(0.2%포인트)를 실시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 정책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 일하기 기회 늘리기로 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배움공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재학생직무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취업지원관 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해외취업지원, NSC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및 고용디딤 프로그램 등이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SC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

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여 실무교육 및 체계적인 이론을 병행 제공하며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의 학습이다. 긍정적 효과로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여 실무경험 및 현장훈련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적 능력을 현장에서 배움면서 불필요한 스펙 쌓기 대신 기업에 조기 채용과 정착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지원, 훈련비(S-OJT, OFF-JT) 및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으로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400만~1600만 원 한도 및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에서 수당이 지원된다.

나.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지원내용은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자기부담금 300만 원 적립(매월 12만 5000원) 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1만 명으로 고교생(1~2학년/3학년), 비진학청소년, 대학생(재학생·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대학의 경우 자대 재학생, 졸업생 외 대상(고교생·타대생 등)을 반드시 30% 이상 포함) 등이 해당된다. 운영기관에는 유·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연수프로그램 참가 시 1일 5시간~5일 40시간에 해당하는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 고용시장 조기진입 지원

고용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재학생 직무체험과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대학청년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 기회가 적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의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입직기간 단축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대학 2~3학년생 5000명이며 공학계열과 대학별 최종학기(4년제의 8학기, 2년제의 4학기 등) 재학생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업과 대학이 매칭하여 월 40만 원 이상의 연수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업은 1인 월 40만 원 외에도 학생에게 추가금 지급이 가능하며 대학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이 가능하다. 자치단체도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연수지원비를 매칭 및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대학과 사업주 단체·기업 등 운영기

관이 협력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저학년에게는 조기에 진로선택을 통한 취업을 장려하고 고학년에게는 졸업 후에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운영기관에 기업·사업주단체, 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 재학생으로 교육비 전액(운영기관: 20%, 정부지원: 80%)을 지원받으며 교육 후에 취업에 연계되도록 지원받고 있다.

라.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

청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지원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대학의 단절된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연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이며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는 사업비로 5년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관 사업은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대학 등에 지원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년제, 전문대학 등이다.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관 인건비로 최대 60%를 지원하며, 대학별로 7000만 원을 한도 지원한다. 지원기간 5년차는 40%, 4년차는 50%, 3년 이하는 6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는 20%를 추가 지원한다.

마.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직무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NCS⁹⁵⁾를 활용하여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은 해당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채용, 취업준비생은 직무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 대신 필요한 스펙준비에 집중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직무중심 채용을 원하는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2016년까지 230개 공공기관 및 800여 개 민간기업이 지원하였다. 지원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하여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공정한 채용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 지원으로는 능력중심 채용사이트(onspec.ncs.go.kr)를 통하여 공공기관 채용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각종 샘플문제 등을 제공한다. 서울·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에서 NCS 상설설명회⁹⁶⁾ 운영, 청년위원회·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취업준비생에게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대기업·공공기관의 주도하에 대기업의 자체 프로그램 또는 우수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고품격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과정은 기업 주관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자체훈련시설 등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협력업체, 벤처기업 등에서 취·창업 등을 지원한다. 훈련 종료 후에는 필요시 숙련도 제고 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

95)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함.

96) 상설설명회는 능력중심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권역의 설명회 과정에 참여 신청.

제97)와 연계하며, 수료생에 대해서는 대기업(공공기관)·고용센터와 연계하여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에 채용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6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월 12.5천 원을 2년간 급여에서 공제한다. 또한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취·창업을 지원한다.

3.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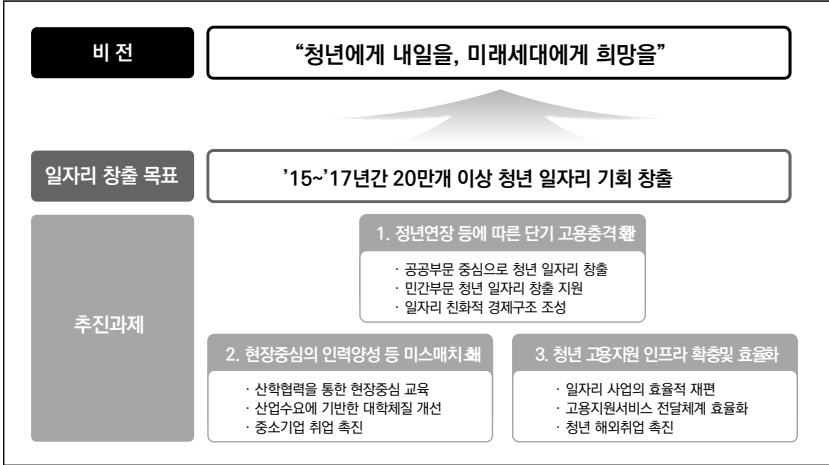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이라는 모토하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을 발표했다.

가. 기본방향

기본방향은 정책효과성 제고, 미스매치 해소, 가시적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시적 일자리 창출 방향은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들의 취업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스매치 해소는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체질 개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책효과성 제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97)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 성과보상기금을 말한다.

[그림 6-1] 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5).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나. 정년연장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분야의 청년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원 명예퇴직의 수용을 확대하여 2016~17년 총 1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3~14년 2년 연평균 5,500명 대비 연 2,000명(필요시에는 수요 등을 감안해 조정)을 2년동안 추가 수용하고 있다. 심의 간소화,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완화 등 전환제도의 개선을 통해 2016~17년 500명의 신규채용을 확보한다. 동일학교에서 2인 이상 동시에 신청해야 가능하던 시간선택제 전환요건⁹⁸⁾은 인근 학교와

98) 시간선택제 전환 시 의무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간소화함. 학교운영위에서는 시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신·증설에 따른 충원과 기존 학급의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법정 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 기준으로 '15.4월 기준 11,200명을 배치하였고 이는 법정정원 17,800명 대비 63% 수준이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및 농어촌 학교에서 청년에게 논술SW·예체능·기초학력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2016~2017년간 4000명의 방과후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휴가 뿐 아니라 사고, 질병, 가족상, 보수교육 등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파견기간은 5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탄력 운용한다. 개편 시 필요한 대체교사 인력은 1,500명 수준(현재 449명)으로 추산되며, 대체교사·보조교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지원규모 등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신설 및 증설을 통한 원아 수용률⁹⁹⁾ 제고와 누리과정 확대시행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 즉 정보통신·정보화지원 분야, 해외투자·무역진흥 등을 중심 증원하는 등 신규채용 전체를 예년 수준('15년 17,000명)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2년에 8,000명¹⁰⁰⁾ 규모의 청년층 고용을 확충한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는 청년고용 의무 비율(3%)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2016년 말→2018년 말)하고 실효성 제고

간선택제 전환 시 운영계획·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 학교인사위에서 신청요건 심사 후 전환을 승인할 계획임.

99) 원아 수용률은 12년 기준 교사 1인당 원아 수 평균 16명(OECD 14명).

100) 퇴직감소분(2016~2017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임.

방안을 강구한다. 인문계 연구기관의 시간선택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¹⁰¹⁾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목표는 2015년 1705명에서 2016년 1275명, 2017년 1572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및 전환제도 개선으로 2015~2017년간 4500여 명의 신규채용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장기휴직으로 결원 발생 시에 대체인력 채용 및 별도정원 활용을 활성화한다.

2)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청년 고용절벽 해소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한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16만 명 이상)·공공(4만 명 이상) 부문에서 총 20만 개 이상의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관합동 대책회의¹⁰²⁾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¹⁰³⁾은 지역상회의와 인적자원개발위 등과 협력해 지역별 청년층 일자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신규채용 지원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 청년고용 유인요인을 제공한다. 세제지원으로 전

101)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2014. 11.).

102) 민관합동 대책회의에는 (전경련·경총) 대기업 협력, (중견연) 중견기업 협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협력, (대한상의·경총) 지역단위 협력, (무역협회) 해외취업 지원 등이 참여함.

103) (서울) CJ, (인천) 한진, (대전) SK, (대구) 삼성, (광주) 현대차, (부산) 롯데, (울산) 현대중공업, (강원) 네이버, (경기) KT, (충북) LG, (충남) 한화, (세종) SK, (전북) 효성, (전남) GS, (경북) 삼성, (경남) 두산, (제주) 다음 등임.

년보다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¹⁰⁴⁾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기존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¹⁰⁵⁾ 및 일몰연장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2년 동안 연 1,080만 원(공공기관·대기업 연 540만 원)을 지급한다(연 1만 명). 신속하게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 지원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지급되는 기존의 임금피크제 지원금¹⁰⁶⁾ 제도도 한시(3년) 연장한다.

우량 중소중견기업 등을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2016~17년간 10만 명)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 경제단체 등을 활용한 우량기업 인증제도¹⁰⁷⁾를 도입한다. 취업연계를 위해 인턴 후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 원을 지급한다. 직무체험형의 목적은 인문계 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관리 점검체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부담대우를 방지하고 체험을 내실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성장 직종¹⁰⁸⁾을 중심으로 질 높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2016~17년간 1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과정은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 등이 대기업의 프로그램

104)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10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 원) 일몰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등임.

106) 2015년까지(중기는 2016년)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최대 연 1,080만 원)

107) 우량기업인증제도란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확보하는 데 있음.

108) 창조경제 산업에는 전자정보,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는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이 포함됨.

및 자체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주요 대기업 간 1:1 전담지원체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수료 후 채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훈련수료자의 대기업과 협력사 채용을 유도한다.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는 현재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위주인 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¹⁰⁹⁾하여 대학이 기업-훈련기관 연계 아래서 재학생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야간·주말·방학 등을 이용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인문계 전공자의 취업경로 다각화를 위한 융합기술 교육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비진학 인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훈련기관과 시·도 교육청 등이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다.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현장수요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산학연계 교육과정으로 ‘직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평가할 때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한다. 대학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에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제 도입은 2015년에 5개교에서 2016년 10개교로 확대되었다. 대학-산업체 간 계약체결로 운영하는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임원·대표자까지 입학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총 155개교의 542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채용조건형(2014년 2개)의 경우는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재교육형의 경우 수요조사 후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추가확대한다. 2014년 기준 40개 대학 44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10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는 대학 4학년 1학기에서 대학 3학년 2학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학 4학년 2학기에서 대학 4학년 1학기로 확대함.

라.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 직업훈련·인턴 등 유형별로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여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한다. 유사중복 사업 기준 통일, 사업간 연계, 통폐합 등을 통해 직·간접 고용효과와 사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입직연령의 지연을 감안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34세로 확대한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신설하여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신설·변경의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운영방안과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게 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청년층 대상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맞춤형·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I·II를 통합하며, 청년층을 분리하여 “(가칭)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한 결과 2015년 10만 명, 2016년 20만 명을 지원하였다. 패키지 I은 취약계층 대상이며 II는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장 1년간 단계별¹¹⁰⁾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의 Gateway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지원, 인턴제, 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그리고 개별상담을 통하여 개인별로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계획¹¹¹⁾을 수립한다.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학생¹¹²⁾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110) 단계는 상담·경로설정에서 직업훈련으로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으로 접근함.

111) 맞춤형 지원계획에는 A유형(통합지원형), B유형(체험중심형), C유형(훈련중심형), D유형(조기취업형), E유형(해외취업형) 등이 포함됨.

112) 대학생에는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생에는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상급 학교 비진학 학생 등이 포함됨.

각 부처별로 산재된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하고 대학 내 청년 취업기능 간의¹¹³⁾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고용+센터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고용+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센터 미설치 대학은 인근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등 청년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청년고용+센터로 점차 통합한다. 그리고 청년고용+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일반 고용센터 내에도 청년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일본의 정책 현황¹¹⁴⁾

일본의 청년 정책은 저출산 대책 안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도와 가족형성을 위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게 하고 있고, 아동·청년 정책 안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것을 위한 가족 지원, 사회 환경 정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 양성 등이 목적이다. 이 둘 간의 정책은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직지원이 대부분이다.

1. 직업능력 및 의욕 고취

청년들이 장래 자립·활약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각 학교를 통해 사회적·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커리어 교실 활성화와 함께 학교 이외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13) 대학청년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관, 산업협력단취업지원기능,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 기업가(창업)센터 등이 해당됨.

114) 본 절은 内閣府(2017a), 内閣府(2017b)의 청년 고용 정책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커리어 교육 추진

1) 커리어 교육 및 직업 교육 추진(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비정규직 고용률의 증가와 고용의 미스 매치, 청년 무직자 존재 등 「학교에서 사회 및 직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의식 및 직업관이 미숙하고, 진로의식 및 목적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적 및 직업적 자립」을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교육에서는 커리어 교육 및 직업 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은 학교 교육에서 커리어교육·직업교육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관계자 및 지역 사회, 산업계 관계자들의 연계 및 협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커리어교육 추진 연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¹¹⁵⁾

그 외에 문부과학성에서는 기업에 의한 출장 수업 등의 교육활동지원, 직장체험, 인턴십 연계기업 찾기와 매칭, 지역 학교의 커리어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 정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지역 커리어 교육지원 협의회 설치 촉진 사업). 또한 커리어 교육의 취지와 지도 내용을 알차게 만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특성을 살린 커리어 교육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며, 학교와 교육위원회에서는 커리어 교육 연수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와 자료를 문부과학성 홈

115) 2016년에는 다수의 응모 중 최우수상 1개사, 우수상 1개사, 장려상 2개사, 심사위원 특별상 2개사가 선정되었다.

페이지에 신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지원과 지역사회 및 산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매칭시킬 수 있는 사이트 ‘아이들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화 및 산업동향 등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 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선진적인 시도를 하는 전국 20개교의 전문 고등학교를 ‘슈퍼 프로페셔널 하이스쿨’로 지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기업 일선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중고등학교에 강사로 파견하여, 직업이나 산업 실태 및 일하는 의미 등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생각하도록 하는 「커리어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053개교에서 약 30만 5000명의 학생이 참가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교육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에 상을 수여하는 「커리어 교육 어워드」를 실시하고 있다.¹¹⁶⁾ 또한 경제산업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에 설립된 일반사단법인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협의회에서는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있는데, 2016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250명의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로 정리하여, 대학교육 등으로 통한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15년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산학이 서로 협동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인으로서의 기초’ 교육 사례를 학생 자신이 프레젠테이션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초 교육 그랑프리」의

116) 2016년에는 37개 단체에서 응모하여 최우수상 3개 단체(이 중 대상 1개 단체 포함), 우수상 5개 단체, 장려상 6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개최, 대학 교직원 및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교육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초 교육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2015년부터 새롭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커리어 플래닝 슈퍼바이저’를 배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도부현 및 지방 도시 등에 ‘커리어 플래닝 슈퍼바이저’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 산업의 실정을 파악하며,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인턴십 등을 추진하여 그 지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인턴십(취업체험) 추진(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직장체험 및 인턴십(취업체험)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선생님이나 보호자 이외의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회는 어린이와 청년이 속해 있는 세대와는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린이와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적성 및 미래설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체적인 직업선택 능력과 높은 직업의식을 키울 수 있고, 학교에서의 학습과 직업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것을 통해 학습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 나아가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 지식과 기술 및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된다.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서는 「인턴십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헤이세이 9년 문부과학성, 통상산업성, 노동성)을 헤이세이 26년(2014년) 4월에 일부 개정하여 각 대학 및 산업계에 통지하고 인턴십

의 보급 및 촉진에 힘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부과학성에서는 앞서 언급한 ‘아이들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커리어 교육의 중심적인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 학교 직장체험 및 인턴십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커리어 교육지원 협의회’를 통한 인턴십 대상 기업 확대 및 취업지원자들에 대한 알선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역 내 창업, 중견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육성에 효과가 높은 장기 인턴십 추진을 위해, 인턴십 확대를 위한 방법 정비, 산학연계 전문인재 활용 가이드를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산학관이 함께 구축한 연계조직의 실태를 조사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보급에 힘쓰고 있다.

3) 청년 여성을 위한 계몽 프로그램(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내각부는 청년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이공계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강연 및 연구자와 커리어에 관하여 토의 등을 하는 ‘여중고생의 의·이과 진로선택지원~의·이과 연구는 정말 재밌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대학·기업·연구기관·매스미디어·해외의 여러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과 출신 여성을 초대하여 강연을 하거나 그룹 토의 등을 하는 ‘이과에서 할 수 있는 직업~언젠가 미래를 만들 당신에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웹사이트 ‘이공계 챌린지’에서는 이벤트 및 롤모델 소개 등 2016년에는 문부과학성과 일반 사단법인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여름의 이공계 챌린지 2016~이공계 직업을 체험해보자!~’를 주최하였는데, 이 이벤트에서는 여름 방학 중에 주로 여자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공계 직장견학, 일 체험, 시설견학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여학생이 직업이나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고교 및 대학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취직할 회사를 선택할 때 ‘여성 활약·양립지원 종합사이트’ 등을 통해 각 기업 여성의 활약상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남녀 모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남녀공동참여 시점에서 커리어 형성 지원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팸플릿을 만들어 보급 및 계몽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이벤트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인재 코디네이터 기관을 전국 47곳에 설치하였다.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역 사업에 대한 장점 소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이벤트를 2,800회 이상 실시하였다.

나. 능력개발정책

1) 공공 직업훈련(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과 함께 공공직업능력 개발시설 이외,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교육 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직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습득 등의 공공 직업훈련(헬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기간 중의 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 직업안정소(헬로 워크)를 통한 세심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2] 공공직업 훈련의 개요

민간교육훈련기관	(1) 대상: 헬로 워크 구직자 고용보험수급자 (2) 훈련기간: 약 3개월~1년 (3) 실시 기관 ● 국가(폴리텍 센터) 주로 제조업 분야의 고도 기술훈련 실시(금속가공과, 주택리모델링기술과 등) ● 도도부현(시설내 훈련)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 실시(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과 등) ● 위탁처: 민간교육훈련기관 등(도도부현으로부터 위탁) 사무, 개호, 정보 계통 등 비싼 설비가 필요 없는 훈련 실시
구직자 지원기관	(1) 대상: 헬로 워크 구직자 고용보험을 수급하지 않는 자 (2) 훈련기간: 2~6개월 (3) 실시 기관 ● 민간교육훈련기관 등(훈련 코스 별 후생노동성 장관 인정) 주된 훈련 코스 · 개호 계통(개호복지 서비스과 등) · 정보 계통(웹 크리에이터 양성과 등) · 의료사무 계통(의료·조제사무과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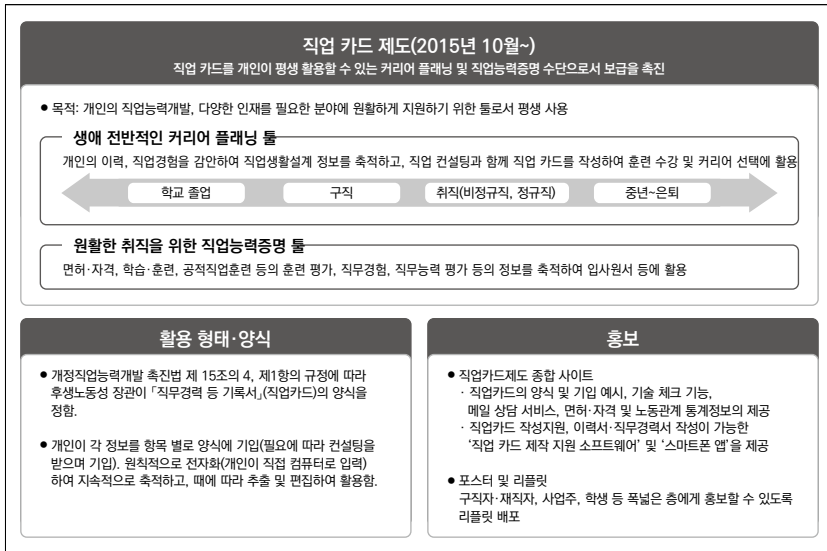
자료: 内閣府. (2017a). 「子供・若者白書」.

2) 직업 카드 및 청년 기술자 인재육성(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2015년 10월부터 ‘생애 커리어 플래닝’ 및 ‘직업능력 증명’의 수단 및 개인의 커리어 향상 및 다양한 인재의 원활한 취업 등을 위하여 직업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2017년 1월 말 현재 직업 카드 취득자는 약 169만 명에 이른다.

- ① 생애 커리어 플래닝: 개인 이력 및 직업 경험을 감안하여 직업생활 설계 정보를 축적하고, 커리어 선택 시 활용함.
- ② 직업능력 증명 수단: 면허·자격증, 학력·훈련경험, 직업경험, 훈련성과 평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직업능력 증명 정보로서 축적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추출 및 편집하여 구직활동을 할 때의 입사 서류 및 커리어 컨설팅 받을 때의 자료로써 활용함.

[그림 6-3] 직업 카드 제도의 개요



자료: 内閣府. (2017a). 「子供・若者白書」.

또한 청년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업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학생과 훈련생을 대상으로 3급 기능 검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제조업 분야를 넓어지고 갈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35세 미만)의 기능검정 시 필요한 검정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기술 습득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술의 장점·중요성을 계몽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청년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하기 위해 ‘청년 기능자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제조업 체험 등 청년들에게 제조업 기술의 장점을 알리고, ‘제조업 마이스터’를 통한 실기 지도 실시 등, 청년층을 제조업 기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청년들의 기능 습득 의욕을 향상시키며, 교육훈련 성과를 명확히 하는 등 능력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 기반을 정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기업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 경비 및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커리어 형성 촉진 보조금」은 2015년 10월부터 청년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사업주가 「청년인재육성코스」를 실시한 경우에 보조율 인상을 시행하였으나, 거기에 더하여 2016년에는 그 외의 코스(「고용형 훈련코스」)를 실시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조율이 인상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전수학교를 시작으로 교육기관이 산업계와 연계하여 지역 및 산업계의 인재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인 등이 배우기 쉬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취업지원 확충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의 구인배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등교육 졸업생의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 진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최종 학교 졸업 단계에서부터 취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졸업 시 비정규직에 취직한 경우 혹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학 및 경제계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연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에 의한 청년 고용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 신규 졸업생에 대한 취업 지원

1) 학생 취업 지원

문부과학성은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취업 상담원과 헬로 워크의 잡 서포터와의 연계 촉진을 통해 대학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대학원, 대학, 2·3년제 대학, 전수학교¹¹⁷⁾ 등의 학생 또는 졸업 후 미취업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졸업자를 위한 헬로 워크’를 전국에 설치하고,¹¹⁸⁾ 폭넓은 구인정보의 제공 및 직업 소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알선, 구인 기업 확충, 취직 지원 세미나·면접을 실시

117) 직업 혹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거나 교양 향상을 도모할 목적의 학교를 지칭함.

118) 2016년 4월 1일 현재 57개 곳임.

하고 있다. 취업 활동부터 직장에 정착까지 담당하는 잡 서포터 담당자 제도를 통해 개별지원¹¹⁹⁾ 및 임상 심리사에 의한 심리적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잡 서포터 상담 창구를 설치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2015년의 연인원으로 보면, 58.5만 명이 이용하였고, 약 10.6만 명의 취직이 결정되었다. 또한 사업주에게 졸업 후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신규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존 졸업자가 신규 졸업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응모기회를 확대하고, 채용 및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기존 졸업자 및 중퇴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제도인 '3년 이내 기존 졸업자 등 채용 정착 장려금'을 만들어 해당 조성금을 활용한 기존 졸업자 등의 응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지역 사업의 장점을 어필하고,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의 청년, 여성, 장년 등의 다양한 인재와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취직 및 채용 질서 확립(문부과학성)

대학생 등의 취업 활동 및 채용 시기는 2015년 졸업 예정자부터 채용 공지 시기를 졸업 전년도 3월 이후(이전에는 12월 이후)로, 채용은 졸업 연도 8월 이후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대학 관계 단체 및 각 경제단체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3년 4월 정부로부터 경제단체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시간 보장 및 유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

119) 구인정보 제공, 취업활동 과정, 입사지원서 첨삭, 면접지도, 직장정착지원 등.

함이다. 2015년에는 이전보다 취직활동의 시기가 늦춰진 덕분에 졸업 전년도까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시기 변경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채용시기가 8월보다 앞서 이루어진 곳이 많았던 탓에 결과적으로 취직활동이 장기화된다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 대학, 관계부처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6년 졸업자들은 그 시기를 6월 이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6년에는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점이 대부분 개선되어 큰 혼란은 없었던 것을 배경으로, 2017년부터 취직 및 채용시기를 3월과 6월로 유지하였다.

나.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지원

1) 청년 헬로 워크 지원(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프리터 등이 안정된 직업에 찾을 수 있도록 헬로 워크를 통해 지원 대상자 개개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트라이얼 고용장려금’¹²⁰⁾을 활용하는 등 정규직 취직을 위한 일관되고 세심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거점으로서 ‘청년 헬로 워크’를 설치하고,¹²¹⁾ ‘청년 지원 코너’, ‘청년 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에서는 구직자의 희망직종 및 기술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플랜을 마련하고, 담당자 제도를 구축하여 개별 직업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120) 지금까지 직업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술, 지식이 부족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 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헬로워크를 통해 일정한 테스트 기간을 갖고 이들을 고용할 경우 수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121) 2016년 4월 현재 전국 28곳.

2) 잡 카페(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설치한 ‘잡 카페’¹²²⁾에서 기업 설명회 및 각종 세미나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에 대응하여 잡 카페에 헬로 워크를 같이 설치하여,¹²³⁾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상담 및 소개를 하고 있다. 2015년의 서비스 이용자는 166만 명, 취직자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3) 청년의 농림어업 취업 촉진(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급여액(연간 최대 150만 엔)을 지급하고,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 실태 및 취업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트라이얼 고용, 취업 현장 연수를 위한 고용주 지원, 교육기관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다. 비정규직 대책 추진(후생노동성)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2,023만 명으로 고용 노동자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①고용이 불안정하고, ②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③능력개발기회도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22) 청년들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센터로 2016년 4월 현재 46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123) 2016년 4월 현재 41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고용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실현 본부」에서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실현 플랜」을 2016년 1월에 책정하였다. 이 플랜을 바탕으로 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¹²⁴⁾에 의거하여 직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규직’ 도입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도한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계몽함과 동시에 심포지엄이나 기업 대상 세미나를 주최하여 사회적 기운을 북돋우며, ‘다양한 정규직’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직종별 모델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 유기계약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에 대하여 각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파견 노동자는 2015년 9월에 시행된 노동자 파견법 개정법의 내용을 설명한 팸플릿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노동국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기계약 노동자는 2013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유기 노동 계약이 5년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노동자의 의향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계약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평성 24년 법률 제56호)’의 내용에서 개요 및 선행 도입 기업의 좋은 사례, 무기 전환 도입 과정을 정리한 팸플릿을 작성하여,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세미나

124)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담은 계획으로서 2013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래 매년 조금씩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를 개최하고 그 후에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무기 전환에 대한 홍보 및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는 다양한 취업 실태에 대응한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확보,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평성5년 법률 76호)」에 의거하여 사업주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라. 청년고용촉진법 시행을 통한 취직 지원

2015년도에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신규 졸업자를 모집하는 기업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헬로 워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구인 기업에 대해서는 구인을 수리하지 않는 제도, 그리고 청년 고용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인 ‘유스 옐(youth yell) 인증제도’ 등을 적극 알리고 권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는 우량 중소기업을 청년고용촉진법을 근거로 선별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유스 옐 인정기업’(이하, 인정기업)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기업이 되면 구직 중의 청년들에게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유스 옐의 우수 중소기업 인정 기준은 <표 6-16>과 같으며, 상용고용 노동자 300인 이하의 사업주에게 해당된다. 큰 기준은 사업주가 청년층의 고용 및 인재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직률, 시간외 근로시간이 적어야 하고, 유급 휴가 사용률 및 사용일수,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유스 옐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표 6-16〉 유스 엘 인정기업 인정기준

1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규직 구인을 하고 있어야 함	
2	청년층의 채용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3	우측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야 함	· ‘인재육성방침’과 ‘교육훈련계획’을 책정하고 있어야 함 · 최근 3년간 신규 졸업자 중 정규직으로 취직한 자의 이직률이 20% 이하이어야 함. 단, 채용수가 3명 또는 4명일 경우 이직자수는 1명 이하일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정규직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 또는 월 평균 법정 시간외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정사원의 비율이 1명도 없어야 함. · 전년도 정규직 유급휴가의 연평균 사용률이 70% 이상, 또는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함. 단, 유급휴가에 준하는 휴가로 직업안전소장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 일수는 1인당 5일이 상한임. · 최근 3년간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가 1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 이상이어야 함.
4	우측의 청년층 채용정보 항목을 공개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간 신규 졸업자 등의 채용자 수, 이직자 수, 남녀 채용자 수, 평균근속연수 · 연수 내용, 멘토 제도의 유무, 자기 계발 지원 및 커리어 컨설팅 제도, 사내시험 제도의 유무와 그 내용, · 전년도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유급휴가의 평균 취득일수, 남녀 별 육아휴직의 사용자 수, 임원 및 관리직 중 여성 비율
5	과거 3년간 인정기업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6	과거 3년간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인정을 포기한 적이 없어야 함.	
7	과거 3년간 신규 졸업자 채용을 내정한 후 취소한 적이 없어야 함.	
8	과거 1년간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권고를 한 적이 없어야 함.	
9	조직폭력조직과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10	유형업 및 성매매 관련 업종과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11	각종 보조금의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12	중대한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함.	

자료: 유스 엘 인정제도(사업자 대상) 자료.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23441.pdf>에서 2017. 11. 15. 인출.

인정기업이 되었을 때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헬로 워크 등에서 중점적으로 기업 홍보가 가능하게 된다. ‘청년 헬로 워크’나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 워크’ 등의 구직 지원 거점에서 청년들에게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청년 채용·육성에 적극적인 기업 등에 관한 포털 사이트 ‘청년 고용 촉진 종합 사이트’ 등에도 인정 기업으로 기업 정보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커진다.

두 번째, 인정기업 한정으로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각 도도부현의 헬로 워크가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희망하고 있는 청년 등의 구직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따라서 적절한 인재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세 번째, 자사의 상품, 광고에 인정마크의 사용이 가능하다. 인정기업은 청년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인정마크를 상품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인정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우량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청년 채용 및 육성 지원 관계 보조금을 가산한다. 청년 채용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정 기업이 커리어 업 보조금, 인재 개발 지원 보조금, 트라이얼 고용 보조금,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3년 이내 기졸자 채용 정착 코스)를 이용할 때 일정액이 가산된다.

다섯 번째, 일본정책공고(Japan Finance Corporation)¹²⁵⁾에서 저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일본정책공고의 중소기업사업·국민생활사업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고용촉진자금(기업활력 강화대출)」을 이용할 때에 기준이율로부터 -0.65%의 저리용자를 받을 수 있다.

125) 재무성 소관의 금융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한 특수회사이다.

여섯 번째,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에 있어서 가격 이외의 요소를 평가하는 조달의 경우(종합평가 낙찰방식·기업경쟁 방식), 유스 엘 인정기업에 가산점을 주도록 국가가 정하는 「여성 활약추진을 위한 공공조달 및 보조금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그림 6-4] 유스 엘 인정 마크



자료: 유스 엘 인정제도(사업자 대상) 자료.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23441.pdf>에서 2017. 11. 15. 인출.

마. 블랙기업 대책 추진(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에서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블랙기업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7,014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지도를 한 결과, 약 67%에 달하는 4,711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였다.

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조건은 2015년 여름에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의식 조사’에 이어 동년 12월부터 2016년 2월에 걸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노동기준법령 준수 및 시프트 설정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2017년 3월에 다시 한번 지침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 신학기(4~7월)에 전국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조건확인을 독려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을 확인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후생노동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노동 삭감추진본부」의 결정에 따라, ①2015년 4월에 도쿄 노동국 및 오사가 노동국에 과중노동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특별팀을 설치하여 2016년 4월에 모든 노동국에 '과중노동 특별 감독관리관'을 임명하였고, 2017년 4월에는 '과중노동 박멸 특별대책반'을 재편하여 부처 내 조직으로서 「과중노동 특별대책실」을 신설하는 등, 수사 및 지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②2017년 4월부터 감독 지도 대상을 시간외 근무시간이 월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 동 본부는 「과로사 제로」 긴급대책'을 결정하였는데(2016년 12월), 그중 장시간노동 관행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①노동시간 파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배포하는 것, ②장시간노동 사안에 대하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 구축, ③행정지도 단계에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의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3. 청년 무직자 등에 대한 지원

15~39세 청년 무직자(니트) 수는 2016년 약 7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전년과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고, 15~39세 인구 중 2.3%가 무직자로 나타나고 있다.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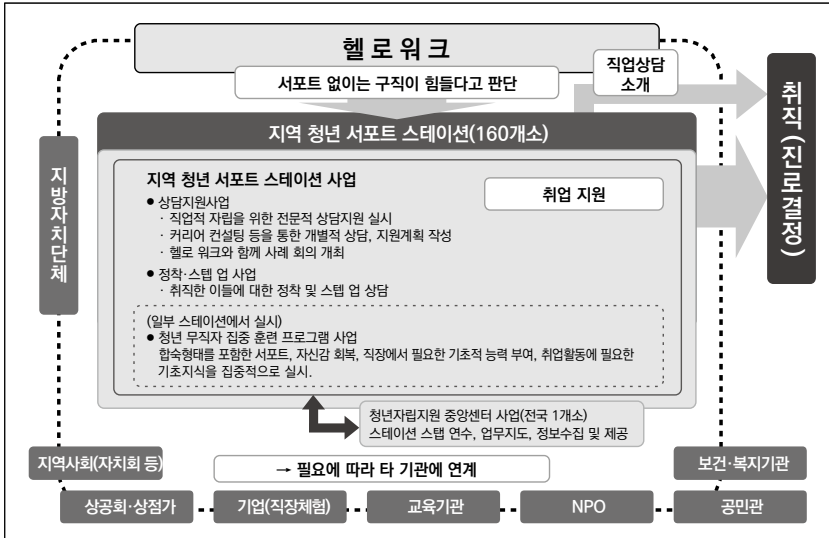
성은 2012년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무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질병·부상 및 학업 중인 사람을 제외하면 ‘지식·능력에 자신이 없다’, ‘취업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희망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한 15~39세 중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¹²⁶⁾ 추산 수는 2015년 12월 조사에서 54.1만 명에 달했다.

가. 청년 무직자 지원(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청년 무직자가 직장 생활을 보람되게 하며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하, 서포트 스테이션)’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직업적 자립을 위한 전문적 상담 지원, 취직 후 정착·스텝 업 지원, 청년 무직자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5~39세 대상).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커리어 컨설턴트에 의한 개별 상담 및 지원계획 작성, 개별 및 그룹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직한 이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스텝 업 상담, 집중 훈련 프로그램(합숙 형식을 포함한 서포트, 자신감 회복, 직장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능력 배양, 취직활동 기초지식 습득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기업 견학 및 직장체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및 개별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26) ‘평소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는 나간다’, ‘방에서 나가는 하지만,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이들을 이른다.

[그림 6-5] 청년 무직자 지원(헬로 워크)의 개요



자료: 内閣府. (2017a). 「子供・若者白書」.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보건·의료·복지·교육·고용 분야의 관계 기관과 연계해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및 확대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는 2016년 말 현재, 64개의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 및 본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방문 지원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를 각 지자체에서 양성하고, 이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3절 소결

한국 청년층 실업률은 2016년 9.8%로 10%에 육박하고 있는 데 비해, 고용률은 2016년 42.3%로 OECD 평균 50.4%(2014년 기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 인력은 급증하였으나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은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2010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필두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청년층의 고용환경 문화 및 구조적 개선부터 일자리 창출 및 기반 마련, 그리고 일자리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비정규직 해소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5년 청년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경제적 자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²⁷⁾ 직업능력 개발확충을 위해 커리어교육 및 인턴십, 공공직업훈련부터 취업지원 확충방안으로 신규 졸업자 및 비정규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층을 대상으로 고용확대 및 직업 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프린터, 닥트 등의 청년고용의 문제적인 현상이 한국보다 선제적으로 나타나므로 일본의 청년 고용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7) 2015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1970년 제정된 근로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정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성과 지향에 따른 일자리 질적 저하나 국가주도형 고용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능력 중심의 기업이 지향하는 지점은 기술인력 및 외국어 능력이 중심이 되어 소모적 경쟁을 초래하여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방안으로 일학습병행제, 취업연계형 인턴제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경우 학교 관계자 및 지역사회, 산업관계자를 기반으로 한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지속적인 커리어 및 직업 교육 실시, 취업체험 등은 중장기적 접근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년 무직자층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전문적 상담부터 직장 견학 및 체험, 취업 후 정착·스텝 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지원체계는 수요자 및 공급자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7 장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7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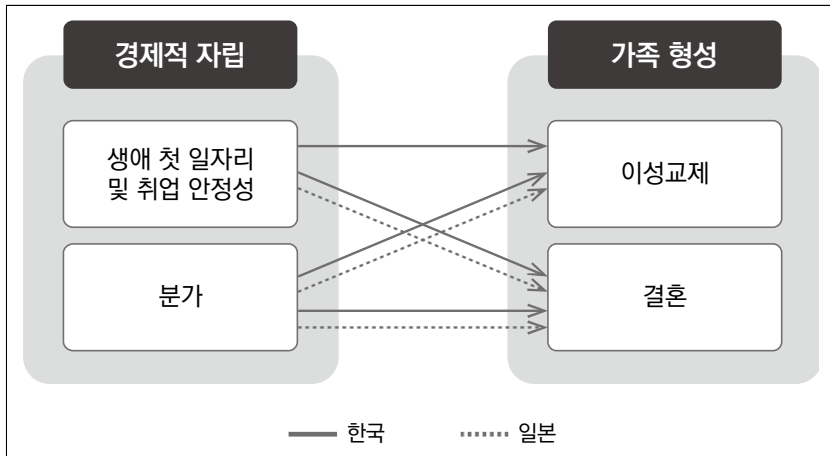
제1절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도 많지만 유사한 점도 매우 많은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일본의 현상이 몇 년간의 격차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간의 시간적 차이가 같은 청년층이라 해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쪽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과 같이 일본이 빨리 경험을 하고 있으나, 일본이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미혼율, 실업률이 일본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30대 후반 이후가 되면 분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미혼 청년의 경우는 30대 이후가 되어도 분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세대 분가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모의 고령화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채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대학 졸업생의 대규모 일괄채용이라는 특유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일괄채용도 존재하나 경력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

금차이는 한국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들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보다는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회사 선택에 있어서 임금이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학력 인플레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경기지수 및 유효구인배율을 봐도 일본의 경기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청년의 비경활인구 및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에 있어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현재 구직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청년들의 고용에 있어서 한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1]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간의 관계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과의 관계는 본 연구의 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7-1). 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실선은 한국, 점선은 일본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형성은 이성교제와 결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성교제의 경우,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경제적 요인이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성에게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와의 동거 여부(분가 여부)가 이성교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부모에게서 분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성교제를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부모와의 동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분가를 하지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심층면접분석에서 한국 남성은 분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와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소득구조의 분석에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남성의 경우는 직업 안정성 등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동거가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본 남성은 ‘패러사이트 싱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혼 분석에서도 대도시 출신 일본 남성에서 분가 경험이 없는 그룹의 초혼시기가 가장 늦는다는 결과는 ‘패러사이트 싱글 가설’이 타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일본 남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의 분가 경험이 없는 그룹의 초혼시기가 한국 남녀와 일본 여성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남성의 미혼율 증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한국 남성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양국의 초혼시기 결정 기제에서 유사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1)한일 양국에서 첫 취직은 초혼 해저드를 크게 증가시키며(초혼시기를 앞당기며), 취업이 남성 초혼시기에 끼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5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1%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여성에게는 종사상 지위가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졸업 및 중퇴부터의 경과시간을 보면 한일 남성의 진학분가는 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분가 후 초혼시기를 앞당긴다. (4)졸업 후 경과시간을 보면, 대학 졸업은 한일남녀의 초혼시기를 앞당기지만 이 영향은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비대도시출신으로 진학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빠르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출신으로 취직분가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었다.

초혼기제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경제적 자립과 결혼 간의 관계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즉 본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생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이 양국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나 한국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정책의 방향이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초혼시기를 결정짓는 기제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유효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며, 역으로 한국에서 유효한 정책은 일본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은 한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앞으로의 희망은 양국 청년 모두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루이치 노리토시(2014)는 일본의 청년들이 미래의 꿈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본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그 이유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에 집필된 저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그리고 소득 구조 간의 관계는 물론 한국과 일본 청년들에게 직접 이루어진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려 한다.

분석 결과, 경제적 자립은 가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제언은 주로 경제적 자립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족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제로서의 경제적 자립 정책에 더 큰 의미를 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형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형성은 궁극적으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하였던 충분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형성 자체를 촉진시키는 정책, 예를 들어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결혼을 촉진시키려 하는 식의 정책 방향 제시는 지양할 것이나 분석결과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은 주로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성이 깊고, 그것은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을 보완하는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¹²⁸⁾ 이러한 접근의 단점은 정책이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 제언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아닌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제언은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행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자립 단계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본 연구결과에서는 직업과 소득이 청년들의 가족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성교제 분석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대기업일수록 이성교제확률이 높았고, 결혼의 경우에도 첫 직장이 정규직의 안정적인 직업일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가족형성을 하기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고용 확대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정책은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것은 고용시장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처는 공공기관, 대기업

128) 이병희(2011)는 청년의 노동시장 형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청년들의 고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10%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을 반영한다(이장우 등, 2010). 그러나 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보상과 장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이들이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이장우 등, 2010),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미래 비전이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이러한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청년 및 중소기업 정책은 기존의 청년 및 중소기업 정책을 모아놓은 것일 뿐, 실제로 청년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incentive)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보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조금 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자기 부담을 완화 및 면제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재원은 지방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비대도시권으로 진학분가를 했을 경우에 가족형성 경향이 빠르다는 것으로부터 생각할 때, 이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방(고향)으로 다시 U턴하게 되면 그 지역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렇게 U턴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늘리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년간의 지원만으로는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오게 하는 유인으로 적

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중소기업 인증 제도 구축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일본의 유스 yell(Youth yell) 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유스 yell 제도는 청년 고용과 고용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진실한 중소기업이라는 신호(signal)를 구직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 면접에서도 분석된 것처럼 일본 청년들 중에는 블랙 기업에 입사한 후에 정신적 질환을 앓아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인증이 활성화되면 그러한 사례도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장우 등(2010)에서 청색기업 지표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청색기업 지표는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여러 사회 계층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 사회 및 재무적 성과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진단 및 평가 도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준수 및 휴가 등의 복지 측면에서의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인식 변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된다. 여기저기서 요즘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중소기업으로 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박성준(2008)은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높은 임금의 직장을 찾기 때문에 미취업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우측 절단 편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병희(2011)는 청년들의 눈높이는 경직되어 있지 않고 변동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시장임금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눈높이만이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조정할 수조차 없는 수준까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쪽의 문제는 없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¹²⁹⁾ 그리고 구직자 자신들이 교육에 투자한 비용과 비교하여,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하는 행동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청년들의 소위 말하는 스펙은 1970~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으며, 이렇게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이들이 그 시절의 청년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을수록 임금도 증가한다는 Becker(1994)의 이론에 따라 이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7).

129)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 또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임금과 복지의 조합으로 입사 및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복지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직 센터의 one-stop 거점 마련 및 취업 관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취업 여부가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취업과 관련되어 청년들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가족·친지·친구의 소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주무현 등, 2015), 본 연구에서의 심층 면접 조사 과정에서도 어디로 가면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청년들은 취업 관련 정보 창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현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정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명확한 거점을 구축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무현 등(2015)에서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산업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여러 기관에서 청년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한 거점에 청년들이 취업을 상담해 오면 적절한 곳으로 분배를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출산 대책의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에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가 있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에 신설하여 지역 거점 인프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시설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대학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즉 대학생의 경우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가면 취업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관을 알선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취업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청년들의 취업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통계 수집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취업지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전국 대학생의 취업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의 취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에서 대학 재학생을 모두 시스템에 등록시켜 총관리를 하고, 모든 대학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를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중앙 부처에서의 구직 및 사업에 관한 정보가 바로 각 대학에 전달되고 각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형성 단계

가.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족을 형성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독립하고, 이들이 이성교제 및 결혼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일 수 있으나, 독립할 수 있는 주거비가 낮아지면 더 많은 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한 독립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주거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거지원은 청년들의 분가를 촉

진시키는 방향이 아닌 분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초점을 맞춰 시행될 필요가 있다.

1)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보완 및 주거 수당 지급

현재 시행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대부분 신혼 부부 및 예비 부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전세임대뿐이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하, 취준생),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대학생의 경우에 납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인데 반하여, 취준생의 경우는 200만 원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이 사업에 당첨된 청년들은 17,455명이었으나 임차 계약은 3분의 1만이 이루어졌는데(동아일보, 2017), 그 이유는 LH에서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여 임대업자가 계약을 꺼리는 것과 대학 주변에 전세 물량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2017; 주간동아, 2016).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임대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전세 지원이 아닌 월세 및 월세 보증금(주거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임대업자의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 계약을 꺼리는 일도 없을뿐더러 전세물량이 감소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 부담이 없는 고시원 및 고시텔 등의 창문도 없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월세 보증금 지원이 전세금 지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29일 ‘사

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관계 부처합동, 2017), 월세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서울권 주요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 48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조선일보, 2016), 금액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세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거 보조금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0.06%)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거 수당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표 7-1).

〈표 7-1〉 OECD국가의 GDP 대비 주거 보조금 지출 비율: 2015년

(단위: %)

국가	비율
United Kingdom*	1.41
France	0.83
Finland	0.82
New Zealand	0.48
Germany*	0.48
The Netherlands	0.47
Ireland	0.21
Czech Republic	0.27
Croatia*	0.24
Australia	0.27
Austria*	0.16
Lithuania*	0.06
Japan	0.12
United States	0.10
Norway	0.09
Korea	0.06
Poland	0.05
Estonia	0.04
Portugal	0.01

자료: OECD. (2016b). Questionnaire on Affordable and Social Housing.

2)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 건립 방해요인 완화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 건립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은 2013년에 처음으로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공급지로는 목동지구, 오류동지구, 가좌지구, 잠실지구, 송파지구, 공릉지구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지역 주민들이 행복주택의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 결국 공급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돈암동에는 사학진흥재단이 대학생의 주거 개선을 위하여 연합행복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2017년 2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은 기숙사 단지 아래 초등학교 등굣길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술 마시고 노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서 좋을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조선비즈,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상기 인용 자료의 제목이 “[新님비시대]월세 떨어뜨리는 기숙사 절대 안 돼”인 것처럼 주민들의 걱정은 월세, 즉 자신들의 소득 보전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반대가 제멋처럼 님비라고 치부될 수 있으나 그들도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우려 사항인 월세 보전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숙사와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구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숙사의 비용과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월세 경향을 파악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고 보전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보전을 하는 범위 선정과 차액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가족 형성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1) 결혼 중개 시장 관리

이성교제에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이미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결혼을 위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 청년들은 이러한 만남에 대한 저항감 및 위화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접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것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 이해가 넓지 못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를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의 이러한 접근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이트는 도메인 판매 광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에서 만남 주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만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매우 비싼 가입비를 내며 상대를 만나고 있으나, 업체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월간중앙, 2017). 예를 들어, 결혼시장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전문직 남성이나 외모가 괜찮은 여성들에게 현금을 주며 만남 장소에 가서 자리만 지키다 오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월간중앙, 2017).

현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결혼을 중개하

는 이들을 관리하는 법률이고, 국내결혼 중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앞으로는 법령에 이윤추구만을 위하는 결혼중개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이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상황 개선에 대한 고려

또 하나의 관점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어야 그 이후에 상대방을 만나게 될 여유가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할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취업을 하고 난 후에야 이성교제 및 결혼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즉 Maslow(1943)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욕구라는 것은 그 단계에서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면접 조사를 했던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남성은 지금 현재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성 친구에 관심을 둘 시기가 아니고, 합격한 이후가 되어야 조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접근이 아닌 취업지원 및 수험 생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다. 가족형성에 대한 편익 제고

만일 앞서 제시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소득차이가 완화되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일본의 현재 모습을 우리나라의 미래로 생각했을 때, 현재 일본의 취업 상황 및 경제적인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현재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이 일본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 일본보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청년들의 이성교제 비율이 낮고, 결혼 의향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성교제 및 결혼에 대한 매력(편익)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익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면접 조사 결과에서는 부모 간의 관계가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모두 어머니가 모든 일을 해나가고 시어머니 및 시댁 식구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혼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결혼 후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대부분 외적인 경로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스 미디어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보도, 결혼을 한 친구나 자녀를 출산한 친구에게 듣게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 등등 매우 많은 매개체가 존재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독박 육아에 일을 그만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육아·가사를 여성 혼자 해야 하는 현실은 미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이것이 결혼 의향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부분 비용 부담 크기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¹³⁰⁾ 국가에서는 이

130) 물론 비용이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 공급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

러한 비용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해 느끼고 있는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많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결혼 적령기 및 이미 결혼을 한 청년들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 급여와 같은 것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해도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산을 해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여성들의 가족형성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일본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들은 그것이 출산율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 1.5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¹³¹⁾ 이러한 점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경제적 요인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보다 매우 큰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본보다 많고, 가족형성을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여 출산율도 떨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측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의 격차 또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있다면 보육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비용적인 완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131) 2015년 합계출산율은 1.45를 기록하고 있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a).

3. 다양한 청년 관련 지표 구축

1) 노동시장 관련 지표

일본에서는 유효구인배율이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서 모든 매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구직과 구인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지표로서, 구직 측뿐만 아니라 구인 측의 일자리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지표를 대표하는 것은 청년 실업률 및 대졸자 취업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 공급 관점에서의 지표이며, 수요의 관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이것은 구직자가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의 지표일 뿐이며, 구인자(기업)가 어느 정도 채용을 하려는지의 상황을 이 지표만으로는 알 수 없다. 물론 고용률 지표가 있으나 이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는지의 결과일 뿐이며 채용하려는 의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본의 구인배율과 유사한 구인배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구인배율은 구직과 구인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지표로서, 구직 측뿐만 아니라 구인 측의 일자리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인배율은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과 구인 정보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의 구인배율도 공공직업안정소(헬로 워크)라는 공적 직업소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만으로 통계를 내고 있으며, 민간의 구인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대학의 구직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구직 정보를 전수로 파악할 수 있다면, 구직자 측면에서는 누락이 없는 정보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인 측면에서도 각 기업이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는 그 정보를 반드시 중앙 서버에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성 있는 구인배수를 산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안정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 구직자의 정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형성 관련 지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년층의 부모 동거 비율에 대한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은 통계이며, 청년층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 현황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본고에서 제시한 모든 통계를 국가(국책연구기관 포함)에서 제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미혼 인구에 대한 통계가 그다지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는 1999년에 발행된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이후 미혼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본 보고서의 발간 이후 미혼인구의 통계가 더욱 활발하게 작성되어 공개되는 것을 희망한다.

참고문헌 <<

- 고선강. (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관계부처 합동. (2015).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배진우, 손원빈. (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
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식, 김영택, 최인희, 선보영, 최인선. (2013). 고령 임산부의 산전 질환 및 출
산결과 동향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식. (2007). 근대일본 청년상의 구축. 선인 출판사.
- 김지경. (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대한민국정부. (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동아일보. (2017. 1. 4.). [사설]청년 분노케 하는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 류기철, 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
학, 32(1), 1-23.
- 박민자. (2003). 현대의 가족사회학: 이론적 관점과 쟁점. 사회와 이론, 2,
293-325.
- 박성준. (2008). 고학력 청년 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 접근. 2008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pp. 28-42.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 교육과학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7). 청춘의 가격. 사계절출판사.

- 여의도 연구원. (2016). 2016 대한민국 청년들이 말하는 '일자리·주거·등록금' 정책은?. 여의도 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월간중앙. (2017).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30만 원 준다더라. 월간중앙 2월호.
-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기훈. (2004). 1920년대 사회주의 이념의 전개와 청년 담론. 역사문제연구, 13, 287-318.
- _____. (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일상개념총서 02. 돌베개.
- 이병희. (2011).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4.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1).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 이상헌.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승렬. (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장우, 김영생, 구문모, 이충석, 최선. (2010).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창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 장미혜, 정해숙, 마경희, 김여진, 김연화, 서연경. (2011).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 유형: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조선비즈. (2017. 9. 7.). [新남비시대]② “월세 떨어뜨리는 기숙사 절대 안돼”.
- 조선일보. (2016. 8. 18.).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50만 원... 서울교대는 70만 원 웃돌아.

-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3호(2014년 7월), 14-23.
- _____. (2016a).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43-174.
- _____. (2016b).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484호).
- 조정문, 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아카넷 출판사.
- 주간동아. (2016). 멀고 먼 '청년전세임대주택' 구하기, 2016년 8월(1053호), 48-49.
- 주무현, 강은영, 이상호, 장혜정. (2015). 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7호).
- 최은영, 박영실. (2010).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 보고서.
- 최재호, 한현주, 황정혜, 정성로, 문형, 박문일 등. (2006). 고령 산모의 임신 및 출산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9(2), 293~308.
-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 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폴 오이어. (2014). 짝찾기 경제학 (홍지수 옮김). 청림출판.
- 한국고용정보원. (2015). 청년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3).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2).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실태 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광훈, 조민수, 신종각. (2016). 청년패널조사 패널충원 과정 및 결과. 2016 고용패널브리프(3월), 7-12. 한국고용정보원.
- 허혁, 황지영, 김도균, 이형중, 심재철, 양희생. (2004).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7(3), 458-463.
-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숙 옮김). 민음사.
- 浅野智彦. (2016). 「青少年研究会の調査と若者論の今日の課題」 藤村正之・浅野智彦・羽瀨一代編『現代若者の幸福：不安感社会を生きる』恒星社厚生閣.
- 岩澤美帆, 三田房美. (2005) 「職縁結婚の盛衰と未婚化の進展」『日本労働研究雑誌』, 535号, 16-28.
- 桶川泰. (2013). 「異性と交際が不活発な男性・女性はどういう人々か：未婚者調査を用いた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の結果から」『国際文化学』神戸大学国際文化学研究科紀要.
- 北村行伸, 坂本和靖. (2007). 「世代間関係から見た結婚行動」『経済研究』第58 巻 第1 号, 31-46.
- 玄田有史. (2007). 「若年無業の経済学的再検討」『日本労働研究雑誌』No.567,

97-112.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3). 『第7回人口移動調査』調査研究報告資料
第31号

_____. (2017a). 『人口統計資料集』, 国立社会保障・人
口問題研究所.

_____. (2017b). 『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 国立社
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坂本和靖. (2006). 「サンプル脱落に関する分析-「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
を用いた脱落の規定要因と推計バイアスの検証」『日本労働研究雑誌』第
551号, 55-70.

菅桂太. (2009). 「離家と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タイミングの日米比較」『人口問題
研究』第65巻、第3号、40-57.

田中聡一郎, 四方理人. (2012). 「マイクロシミュレーションによる税・社会保険
料の推計」『ソシオネットワーク戦略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第
25号.

津谷典子. (2006). 「わが国における家族形成のパターンと要因」『人口問題研究』,
第62巻、第1・2号、1-19.

_____. (2009). 「学歴と雇用安定性の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への影響」『人口問題
研究』第65巻、第2号、45-63.

_____. (2011). 「未婚化の要因-ジェンダーからみた学歴と雇用」阿藤誠・西岡八
朗・津谷典子・福田亘孝編『少子化時代の家族変容-パートナーシップと出
生行動』東京大学出版会、19-44.

内閣府. (2017a). 「子供・若者白書」内閣府.

内閣府. (2017b). 「少子化の状況及び少子化への対処施策の概況」内閣府.

中村真由美, 佐藤博樹. (2010). 「なぜ恋人にめぐりあえないのか?-経済的要因・
出会いの経路・対人関係能力の側面から」, 佐藤博樹・永井暁子・三輪哲編
『結婚の壁-非婚・晩婚の構造』勁草書房、54-73.

西岡八郎他. (2005). 『「世代とジェンダー」の視点からみた少子高齢社会に関する

- 国際比較研究』(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課題番号H14—政策—036),
平成16年度総括報告書.
- 古市憲寿. (2011). 『絶望の国の幸福な若者たち』講談社.
- 宮本みち子. (2012). 『若者が無縁化する一仕事・福祉・コミュニティでつなぐ』ちくま新書.
- 三好向洋. (2013). 「日本における労働市場と結婚選択」『日本労働研究雑誌』638号、33-42.
- 福田節也. (2007). 「ジェンダーシステムと女性の結婚選択 (2) 日本における「女性の経済的自立仮説」の検証」『季刊家計経済研究』第76号、53-62.
-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ちくま親書.
- 山田昌弘. (2004). 『希望格差社会: 「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筑摩書房.
- 山田昌弘, 白河桃子. (2008). 『婚活時代』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 山田真茂留. (2009). 『〈普通〉という希望』青弓社.
- 吉田崇. (2012). 「初職非正規就業が結婚タイミングへ及ぼす影響の男女比較」,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パネル調査プロジェクト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No. 64.
- Aalen, Odd O., Ornulf Borgan and Hakon K. Gjessing. (2008). *Survival and Event History Analysis: A Process Point of View*, New York: Springer.
- Arnett, J. J. (1994). Are College Students Adults? Their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 154-168.
- _____. (2000).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_____.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_____.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_____. (1991).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_____. (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ll, L., G. Burtless, J. Gornick, & T. M. Smeeding. (2007). Failure to Launch: Cross-National Trends in the Transition to Economic Independence, *LIS Working Paper Series*, No. 456.
- Belot, M., & M. Francesconi. (2013). Dating Preferences and Meeting Opportunities in Mate Choice Decis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8(2), 474-508.
- Cavalli, A. & O. Galland. (1996). *Senza Fretta di Crescere. L'ingresso Difficile Nella vita Adulta*. Napoli, Liguori.
- Cobb-Clark, B. A. (2008). Leaving Home: What Economics Has to Say about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ustralians, *IZA Discussion Paper*, No. 3309.
- Coupland, D. (1991). *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 St. Martin's Griffin; 1st edition.
- Cordón, J. A. F. (1997). Youth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6), 576-607.
- Cox, D. R. (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Series B(Methodological)*, 34(2), 187-220.

- Eagly, A. H., & W. Wendy. (1999). The Origins of Sex Differences in Human Behavior: Evolved Dispositions Versus Social Roles, *American Psychologist*, 54(6), 408-423.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urofound. (2014). *Mapping Youth Transition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isman, Raymond. (2006).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Evidence from a Speed Dating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673-697.
- Fitzgerald, John, Peter Gottschalk and Robert Moffitt. (1998). An Analysis of Sample Attrition in Panel Data: The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2), 251-299.
-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 (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and Returning Home*.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 Goldscheider, F. K., & J. DaVanzo. (1986). Semiautonomy and Leaving Home, *Social Forces*, 65(1), 187-201.
- Goossens, L. (2001).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al Factors, M. Corjin and E. Klijzing (eds.), *Transitions to Adulthood in Europe*, 27-42.
- Greene, A. L., S. M. Wheatley, & J. F. Aldava. (1992). Stages on Life's Way: Adolescents' Implicit Theories of the Life Cours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364-381.
- Hartmann, D., & T. T. Swartz. (2007). The New Adulthoo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ing Young Adult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1, 253-286.
- Hitsch, Günter J., Ali Hortaçsu, & Dan Ariely. (2010). Matching and

- Sorting in online Dat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0(1), 130-163.
- Klein, John P. & Melvin L. Moeschberger. (2003). *Survival Analysis: Techniques for Censored and Truncated Data*, 2nd Edition, New York: Springer.
- Lee, S. (2009). *Marriage and Online Mate-Search Servi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Available at <<http://www.soohyunglee.com/research>>.
- Lee, Y. J., W. L. Parish, R. J. Willis. (1994).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aiw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1010-1041.
- Lillard, Lee A. & Constantijn W. A. Panis. (1998). Panel Attrition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2), 437-457.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OECD. (2012). *Sick on the Job? Myths and Realities about Mental Health at Work*, Mental Health and Work, OECD Publishing.
- _____. (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OECD.
- _____. (2014).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4*. OECD.
- _____. (2016a). *Pension at a glance 2015*. OECD.
- _____. (2016b). *Questionnaire on Affordable and Social Housing*. OECD.
- Oppenheimer, V. K. (1997). Woma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 Rindfuss, R. R. (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28(4), 493-512.

- Scheer, S., and R. Palkovitz. (1994). Adolescent-to-adult Transitions: Social Status and Cognitive Factors.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ren*, 6, 125-140.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 Sironi, M., & F. F. Furstenberg. (2012). Trends in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1973-2007,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609-630.
- Weiss, Yoram. (1997).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Families: Why Marry? Who Marries Whom? And What Happens Upon Divorces, pp. 81-123 in Mark R. Rosenzweig and Oded Stark 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ume 1A, Amsterdam: Elsevier.
- Whittington, L. A., & H. Elizabeth Peters. (1996). Economic Incentives for Financial and Residential Independence. *Demography*, 33(1), 82-97.

〈데이터 베이스 및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워크넷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일본-전국소비실태조사.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国勢調査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 (各年度). 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각 연도). 출생동향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고용디딤돌.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young/jynEmpSpt/jynEmpSptGuide.do?busId=201512210018>에서 2018. 1. 3. 인출.

동아일보 비즈 N 홈페이지. <http://bizn.donga.com/BestClick/3/all/20170227/83078793/1>에서 2017. 7. 20. 인출.

유스 엘 인정제도(사업자 대상) 자료.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23441.pdf>에서 2017. 11. 15. 인출.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young/jynEmpSpt/jynEmpSptGuide.do?busId=201601080016>에서 2018. 1. 3. 인출.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에서 2018. 1. 3. 인출.

청년취업인턴제.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young/jynEmpSpt/jynEmpSptGuide.do?busId=201512160002>에서 2018. 1. 3. 인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young/>

jynEmpSpt/jynEmpSptGuide.do?busiId=201601080002에서 2018.

1. 3. 인출.

청년취업아카데미.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young/jyn>

EmpSpt/jynEmpSptGuide.do?busiId=201512170010에서 2018. 1.

3. 인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

[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에서 2018. 1. 3. 인출.

청년기본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

[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에서 2018. 1. 3. 인출.

청년발전기본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

[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에서 2018. 1. 3. 인출.

청년기본소득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F7C0N1E3I1L1C6T2Z6S0Z0M7Q6N3)

[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F7C0N1E3I1L1C6T2Z6S0Z0M7Q6N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F7C0N1E3I1L1C6T2Z6S0Z0M7Q6N3)에서 2018. 1. 3. 인출.

한국 경제 홈페이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30170231>

에서 2017. 7. 20. 인출.

BIZHINT 홈페이지. <https://bizhint.jp/keyword/13309>에서 2017. 8. 29.

인출.

Diamond Online 홈페이지. <https://diamond.jp/articles/-/125389>에서

2017. 8. 29. 인출.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初任給) [http://www.mhlw.go.jp/toukei/](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16/02.html)

[itiran/roudou/chingin/kouzou/16/02.html](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16/02.html)에서 2017. 7. 17. 인출.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について. www.mhlw.go.jp/toukei/list/114-1/

html에서 2017. 7. 12. 인출.

厚生労働省「新規学卒者の離職状況」<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940.html>에서 2017. 7. 18. 인출.

文部科学省「学校基本調査」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icsFiles/afieldfile/2017/08/03/1388639_1.pdf에서 2017. 7. 11. 인출.

※ 한국과 일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소득구조 분석 방법 및 자료

1. 초혼분석의 이벤트 히스토리 분석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i)은 결혼 전 분가 경험 유무, 유소년기의 거주지역, 첫 직장 내 지위, 최종 학력, 출생 코호트의 5개 변수를 이용한다. JGGS 분석 데이터는 여러 연도 조사 코호트를 병용하기 때문에, 조사 코호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더미 변수(2013년 조사 여부, 2004년 조사 시 50세 이상 여부)도 사용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ii)은 결혼 전 분가 상태(각 분석시간에 있어서 부모와 동거·미분가, 부모와 별거·분가), 취직 상태(한 번도 일한 적이 없음·미취업,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음·취업), 첫 직장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취업 상태×첫 직장 내 종사상 지위)와 같은 3가지 이외에 (i) 중에서 유소년기의 거주지역과 최종 학력, 출생 코호트 및 기저 해저드로서 (a)연령(분석시간), (b)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의 경과 시간을 이용한다. 한일 양국 데이터의 모든 변수는 동일하게 정의한 변수를 구축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이산시간 모델의 분석시간을 세분화하면, 예를 들어 1년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 1주일 단위, 1일 단위 등으로 극한으로 접근하게 되면 연속시간 모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상 차이를¹³²⁾ 무시하면 동일한 공변량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 있어서 연속시간 모델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속시간과 이산시간 모델을 이용하는 차이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방법에 있다.

132) 식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을 예로 들 수 있다.

초혼에 대한 연속시간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조사 시점에서 기혼자일 경우의 초혼연령 및 미혼자의 가장 최근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 그리고 공변량이다. 분석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최근 조사결과가 한 케이스당 하나의 레코드가 있으면 된다.¹³³⁾ 회고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해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패널 조사에서는 탈락 직전의 마지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분석 시간 경과 중의 리스크 인구 감소 과정을 표현하기 때문에,¹³⁴⁾ 분석시간 경과에 따라 초혼해저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¹³⁵⁾ 공변량이 초혼 리스크를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증감시키는지(해저드 비)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초혼의 이산시간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시간 경과 단위 시간마다의 리스크 인구별 레코드 수와 각 경과시간에 있어서 초혼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dichotomous variable)가 필요하다.¹³⁶⁾ 이것은 패널 데이터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 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패널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회고조사 결과를 사용해 이산시간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년 데이터(person-year data)를

133) 연속시간 분석틀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초혼이 발생한 연령마다 해당 공변량값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세 기점에서 초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면, 15.000세, 15.003세, 15.005세로 표현하는 것처럼 1일마다의 공변량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4) 즉 가장 먼저 초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혹은 그 반대로 가장 먼저 초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미혼 인구)인지, 두 번째로 초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135) 다시 말하면 기저 해저드(base-line hazard)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36) 15세부터 각 연령의 초혼 해저드를 분석할 경우, 15세 시점의 미혼자수 분의 레코드를 만들고, 리스크 인구 각각의 15~16세 때의 초혼 여부를 이항 변수로 작성한다. 그리고 16세까지 초혼을 경험한 사람을 제외하고 16세 시점의 미혼자 수만큼 레코드를 만들어 16~17세 때의 초혼 여부에 대한 이항 변수 작성을 반복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인년 데이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분석시간 경과에 따라 초혼 해저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함수 형태를 특정해야 하는 반면, 이산 근사치를 허용하면 기저 해저드를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즉 예측 확률(예측 해저드)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a)15세부터의 경과시간과, (b)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의 경과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분석시간에 관하여 (I)-(i), (II)-(i), (II)-(ii)의 3개 조합 모델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일 양국에 공통되는 모델 분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최종 학력과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i)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분석 시간 내의 변화 상태를 봐야 하는 점이다. 이 변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변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리스크 개시시점에서 이미 인구집단을 그룹 분류해 버리기 때문에, 그룹 간 차이를 정량화 또는 고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가 15세부터 경과시간으로 본 초혼해저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2세에 발생하는 상태변화가 15세 때 이미 파악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15세부터 21세의 해저드에 관해서도 22세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킨다. 실제로 한일 양국 모두 학생 결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고교 졸업자와 비교해 4년 이상 초혼 리스크가 낮은 기간을 보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초혼 리스크를 15세부터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재학 중이라는 리스크가 매우 낮은 기간을 포함해 분석시간 전체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리스크 모델, 혹

은 비례 해저드 모델, Cox회귀모델에 있어서 최종학력을 시간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4년제 대학 졸업이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해저드를 몇 퍼센트 증감시킨다고 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ii)은 상태 변화의 영향을 적절하게 모델화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¹³⁷⁾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증적 대처법 중의 하나는 (b)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경과시간을 분석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학교 졸업 후라면 재학 중일 때와 같이 극단적으로 낮은 리스크 시간의 해저드를 다른 시간과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 전 분가 경험의 여부에 관해서도 최종학력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분석에서는 결혼 전 (첫)분가가 재학 중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진학분가), 아직 분가하지 않았는지, 또는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발생했는지의 여부(취직분가), 졸업·중퇴 후에도 여전히 분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분가 이유를 구분하지만, 이는 재학 유무, 취업 유무 상태와 함께 시간 경과 속에서 결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진학분가에 비해 취직분가를 하는 사람은 학교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만일 대졸자를 비교한다면 이것은 취업할 때까지 미혼으로 있는 시간(리스크 시간)이 진학분가에 비하여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변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으

137)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을 이용할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 최종학력은(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포함) 고교 졸업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전 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초혼 리스크가 있고, 졸업 후 리스크가 변한다는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초혼 리스크로 변화하고, 22세 이후부터 초혼까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적 리스크 수준으로 해저드가 변화하면, 15세부터 초혼까지의 해저드가 누구와 비교해 어느 정도 큰지 혹은 작은지는 쉽게 알 수 없으며, 상태 변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석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로 취업하는 것은, 취직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초혼 타이밍이 낮은 사람)을 취업 전이라는 낮은 리스크 기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분석 시간 전체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감소시키는 편의를 발생시킨다. 본래 취업 이후 분가하는 사람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분가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초혼 리스크가 있으므로 취직분가 후(분가 상태가 변한 후)부터 초혼 리스크는 변화한다는 변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학력과 거의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부터 취직하기까지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¹³⁸⁾ 결혼 전 분가 경험 여부의 경우에도 (b)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를 졸업한 후 경과시간을 분석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 발생을 경감시킨다.

마지막으로 한국 패널 데이터의 고유한 문제로서 Klein & Moeschberger(2003)가 언급하고 있는 좌측절단(left truncation, delayed entry)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한국 데이터는 초혼 연령과 첫 분가 연령에 관한 회고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따라서 2007년 조사 이전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종 학교를 졸업한 연차(최종학력이 변화한 연차)와 조사 시점의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연차는 2007년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1)2007년 조사 시점의 직장이 첫 직장인 것, (2)2007년 조사 시점에 부모와 동거한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부모와 동거해왔다(분가한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2007년 조사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15세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을 구축할 수 있다.¹³⁹⁾ 이에 따라 (a)15세부터의 경과 시간으로 볼 경우와 (b)

138) 최종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하는 연령과 처음 직장을 가진 연령이 동일한 경우(JGS), 혹은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하는 추적 기간에 처음으로 직장을 가진 경우(YP),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JGS에서 30세 미만인 78%, YP에서는 63%이다. YP에서도 졸업 및 중퇴 1년 후까지 첫 직장을 갖게 된 사람의 비율은 75.8%이다.

139)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량(i)에 관해서는, 2007년 조사 시점의 값을 사용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의 경과시간으로 볼 경우의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 시간 모델의 추정이 가능하고, 이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추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¹⁴⁰⁾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 데이터에 대해 연속시간 모델의 경우 (a)15세 및 (b)최종 학교를 졸업 후부터 리스크 시간이 시작 되는 모델(좌측절단을 무시하는 모델), 이산시간 모델의 경우 YP 패털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좌측절단이 존재하는 모델) 단순한 가정을 한 결과를 제시한다.

2. 데이터

가. 한국의 초혼 분석 데이터(YP)

YP에서는 2007년 조사 시 기혼이거나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초혼 연도·첫 분가 연령에 관해 회고적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이전 조사 완료 시점부터 해당조사 시점까지 발생한 초혼·분가 경험의 유무를 분석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추적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YP 2015년 코호트(추가 보충 샘플)를 제외하고 YP 2007년 코호트 중 2007년 조사 시점에 기혼 또는 부모와 별거로 초혼·첫 분가의 발생연령이 불명확한 사람 및 추적조사에서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아 해당 추적조사기간의 초혼 및 첫 분가상태가 불명확한 사람을 제외하고 2007년 조사부터 2015년 추적조사까지의 모든 응답자의 데이터를 사용한다.¹⁴¹⁾ 한

하면 된다.

140) YP와 JGGS로 분석한 결과,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시간 모델에서 좌측절단을 가정한 모델(2007년 조사 시점 연령부터 초혼 리스크가 시작되는 모델)과, (a)15세 및 (b)최종 학교를 졸업 후부터 리스크 시간이 시작되는 모델(좌측절단을 무시한 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141) YP에서는 2007년 조사 시 만 14세에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는지를 모든 응답자에 회

국에 대해서는 패널 조사 시점 간의 변화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2007년 조사 시점에 기혼이거나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좌측절단(left censoring)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2가지의 문제, 즉 좌측 절단과 패널 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YP에서 나타난 한국 남녀의 2007년 조사 시 연령 분포를 <부표 1>에 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것은 YP 2007년 코호트 10,206명(남성 5,061명, 여성 5,145명) 중 2007년 조사 시점에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8,499명(남성 4,363명, 여성 4,136명)과 2008년부터 2015년의 추적조사까지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된 총응답자이다. 즉, 2007년 조사 시점에 기혼이거나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1,707명(남성 1,186명, 여성 1,009명), 즉 2007년 조사 완료자의 16.7%(남성 13.8%, 여성 19.6%)를 제외한 83.3%(남성 86.2%, 여성 80.4%)를 분석 대상으로 하게 된다.

제외된 케이스의 내역을 보면 기혼자가 8.5%(남성 5.0%, 여성 12.0%),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자가 16.0%(남성 13.0%, 여성 18.8%), 기혼이면서 부모와 별거하는 자가 7.8%(남성 4.2%, 여성 11.2%)이다.¹⁴²⁾ 한국의 데이터에서는 기혼이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이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2007년 조사 시점의 기혼자와 미혼자 중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자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남녀 연령별로 보면, 한국에서도 급속히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4세 남녀의 기혼율은 2.4~3.2%이나 25~29세 남성의 14.2%, 여성의 36.4%가

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만 14세에 부모와 동거 하고 있지 않은(독립한) 58명(그 중 17명은 2007년 조사 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2) 미혼이며 부모와 별거하는 자는 8.2%(남성 8.8%, 여성 7.6%), 기혼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자는 0.8%(남녀 동일하게 0.8%)였다.

기혼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더욱이 미혼자 중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자는 15~19세에서는 2.4~2.7%이지만 20~24세부터 25~29세에는 10.8~12.9%로 남녀 모두 대략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2007년 조사 시점의 20세 미만은 97% 이상이 분석 대상이었지만 20~24세는 85%정도, 25~29세는 53~62%가 분석 대상이 된다. 25~29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분석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고 일본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한정적인 연령층(출생 코호트)밖에 분석하지 못하는 약점이 한국 데이터에는 존재한다.

〈부표 1〉 남녀·연령(출생코호트)별 분석을 위한 표본선택 기준별 2007년 조사 완료자 수와 비율(%): 한국 YP

2007년 조사 시점 연령 (출생코호트)	표본선택 기준별 2007년 조사 완료자 수					
	1.분석 대상 (미혼·부모와 동거)	2. 미혼	3.부모 동거	4. 학생	5.경제적 비독립 ^{주1)}	0.총계 ^{주2)}
남녀 총계	8,499	9,335	8,578	6,689	7,286	10,206
15-19세(1983-92년생)	4,149	4,258	4,149	4,149	4,181	4,278
20-24세(1983-87년생)	2,413	2,738	2,420	1,922	2,056	2,805
25-29세(1978-82년생)	1,937	2,339	2,009	618	1,049	3,123
남성	4,363	4,808	4,402	3,636	3,935	5,061
15-19세(1983-92년생)	2,171	2,232	2,171	2,166	2,197	2,243
20-24세(1983-87년생)	1,067	1,215	1,069	977	1,019	1,232
25-29세(1978-82년생)	1,125	1,361	1,162	493	719	1,586
여성	4,136	4,527	4,176	3,053	3,351	5,145
15-19세(1983-92년생)	1,978	2,026	1,978	1,983	1,984	2,035
20-24세(1983-87년생)	1,346	1,523	1,351	945	1,037	1,573
25-29세(1978-82년생)	812	978	847	125	330	1,537

	2007년 조사 완료자 수에 점하는 비율(%)					
	1. 분석 대상 (미혼·부모와 동거)	2. 미혼	3. 부모동거	4. 학생	5. 경제적 비독립 ^{주1)}	0. 총계 ^{주2)}
남녀 총계	83.3	91.5	84.0	65.5	71.4	100.0
15-19세(1983-92년생)	97.0	99.5	97.0	97.0	97.7	100.0
20-24세(1983-87년생)	86.0	97.6	86.3	68.5	73.3	100.0
25-29세(1978-82년생)	62.0	74.9	64.3	19.8	33.6	100.0
남성	86.2	95.0	87.0	71.8	77.8	100.0
15-19세(1983-92년생)	96.8	99.5	96.8	96.6	97.9	100.0
20-24세(1983-87년생)	86.6	98.6	86.8	79.3	82.7	100.0
25-29세(1978-82년생)	70.9	85.8	73.3	31.1	45.3	100.0
여성	80.4	88.0	81.2	59.3	65.1	100.0
15-19세(1983-92년생)	97.2	99.6	97.2	97.4	97.5	100.0
20-24세(1983-87년생)	85.6	96.8	85.9	60.1	65.9	100.0
25-29세(1978-82년생)	52.8	63.6	55.1	8.1	21.5	100.0

주: 1) 경제적으로 비독립이라는 것은 2007년 조사 시점의 '과거1년간 주로 한 일'이 구직활동·취직준비·진학준비·군입대를 위한 대기·발령대기·정규교육기관 진학·재수학원 통학·취직준비를 위한 학원 통학·결혼준비와 기타를 말함(즉, 직업이 있거나 육아가사·심신장애·쉬었다는 제외됨). 또한 응답자의 종류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제외함.

2) 총계에는 만 14세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던(독립한) 58명을 포함. 만 14세 시점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58명은 기타 모든 케이스에서 제외됨.

일본의 데이터에서는 초혼연령 및 첫 분가연령에 대해 회고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의 데이터처럼 첫 조사에서 기혼·부모와 별거로 인한 좌측 절단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좌측 절단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혼이면서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표본선택의 기준으로서 2007년 조사 시점에서 학생으

로 한정된 경우와 경제적 독립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에 한정된 경우의 수를 표시했다. 또한 기혼자를 가능한 제외하지 않도록 2007년 조사 시에는 25세 미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³⁾

YP 2007년 조사에서는 학생 이외(취업자·비취업자)에 미혼·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약 20%로 20~24세가 20% 전후, 25~29세가 40%를 넘는다. 또한 2007년 조사에서는 과거 1주일간의 주요 활동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¹⁴⁴⁾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24세가 15% 전후, 25~29세가 30%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YP 2007년 조사에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정지어 분석했으나 표본수가 감소하여 추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수의 부호 및 크기는 대략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조사 시에 25세 미만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2007년 조사 시점에서 미혼이며 부모와 별거한 자를 분석으로부터 제외할 수밖에 없는 좌측절단 바이어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 시점에서 미혼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조사는 층화 2단 확률추출 등의 방법으로 모집단 추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패널 조사에서의 탈락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탈락한 표본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의 동시분포가 모집단으로부터 괴리하여 모집단 추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Fitzgerald et al., 1998). 한국 데이터의 경우는 패널 조사 간에서만 초혼이나 첫 분

143) 분석 대상을 25세 미만으로 한정 지어도 2007년 조사 시 기혼이나 부모와 별거한 자에 대해서는 초혼 연령이나 첫 분가연령이 불명확하여 추정에서 제외되지만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좌측절단 바이어스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44) 2007년 조사에서 과거 1주일간의 주요 활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의 추적이 필요하여 패널 탈락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표 2>에서는 2007년 조사 시점에서의 분석 대상자 수와 2008년부터 2015년의 추적조사까지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자의 수, 2007년 조사 시점에서 분석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패널 존재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 2〉 2007년 조사 시점 연령(출생코호트)별 조사연차별 2007년 조사 시점의 분석 대상자 수 및 패널 탈락이 없는 자의 수와 비율(%): 한국 YP

2007년 조사 시점 연령 (출생코호트)	조사연차별 2007년 조사 시점의 분석 대상자 수 및 패널 탈락이 없는 자의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녀 총계	8,499	7,392	6,586	5,747	5,112	4,640	4,377	4,153	3,996
15-19세(83-92년생)	4,149	3,646	3,227	2,718	2,313	1,973	1,794	1,661	1,574
20-24세(83-87년생)	2,413	2,077	1,874	1,685	1,550	1,486	1,444	1,399	1,362
25-29세(78-82년생)	1,937	1,669	1,485	1,344	1,249	1,181	1,139	1,093	1,060
남성	4,363	3,629	3,069	2,508	2,085	1,749	1,575	1,460	1,413
15-19세(83-92년생)	2,171	1,806	1,462	1,071	773	500	375	308	290
20-24세(83-87년생)	1,067	851	739	654	587	561	538	520	509
25-29세(78-82년생)	1,125	972	868	783	725	688	662	632	614
여성	4,136	3,763	3,517	3,239	3,027	2,891	2,802	2,693	2,583
15-19세(83-92년생)	1,978	1,840	1,765	1,647	1,540	1,473	1,419	1,353	1,284
20-24세(83-87년생)	1,346	1,226	1,135	1,031	963	925	906	879	853
25-29세(78-82년생)	812	697	617	561	524	493	477	461	446

2007년 조사 시점 연령 (출생코호트)	조사연차별 2007년 시점의 분석 대상자 중 2008~2015년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완료한 자의 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녀 총계	100.0	87.0	77.5	67.6	60.1	54.6	51.5	48.9	47.0
15-19세(83-92년생)	100.0	87.9	77.8	65.5	55.7	47.6	43.2	40.0	37.9
20-24세(83-87년생)	100.0	86.1	77.7	69.8	64.2	61.6	59.8	58.0	56.4
25-29세(78-82년생)	100.0	86.2	76.7	69.4	64.5	61.0	58.8	56.4	54.7
남성	100.0	83.2	70.3	57.5	47.8	40.1	36.1	33.5	32.4
15-19세(83-92년생)	100.0	83.2	67.3	49.3	35.6	23.0	17.3	14.2	13.4
20-24세(83-87년생)	100.0	79.8	69.3	61.3	55.0	52.6	50.4	48.7	47.7
25-29세(78-82년생)	100.0	86.4	77.2	69.6	64.4	61.2	58.8	56.2	54.6
여성	100.0	91.0	85.0	78.3	73.2	69.9	67.7	65.1	62.5
15-19세(83-92년생)	100.0	93.0	89.2	83.3	77.9	74.5	71.7	68.4	64.9
20-24세(83-87년생)	100.0	91.1	84.3	76.6	71.5	68.7	67.3	65.3	63.4
25-29세(78-82년생)	100.0	85.8	76.0	69.1	64.5	60.7	58.7	56.8	54.9

자료: YP 2007~201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부표 2〉에 의하면 본 분석에 사용된 YP 2007년 코호트 8,499명 중 2010년 추적조사까지의 3년간의 추적조사에서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응답자는 5,747명(2007년 조사응답자의 67.6%)이고, 2015년 추적조사까지의 8년간 추적조사에서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응답자는 3,996명(47.0%)이다. 성별 및 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2010년까지 3년간 추적에서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응답자가 2007년 조사응답자 4,363명 중 2,508명(57.5%)이고, 여성은 4,136명 중 3,239명(78.3%)이다. 같은 기간을 보면, 남성 24세 이하의 패널 존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15~19세가 49.3%, 20~24세가 61.3%인데 반하여, 여성은 15~19세가 89.2%,

20~24세가 76.6%였다. 남녀 모두 25~29세는 70%정 도가 3년간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응답하였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으나 일본의 데이터에서는 JGGS 2004년 코호트를 3년 뒤인 2007년 추적한 조사의 결과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시점까지의 패널 존재율은 남성이 18~24세가 44.3%, 25~29세가 49.8%, 18~29세 여성은 55~56%였으므로 YP쪽의 탈락률이 더 낮다. 다만 24세 이하 남성의 탈락률은 높기 때문에 남녀연령분포는 크게 뒤틀려 있는데, 이것은 한국 20대 초반 남성의 병역의무에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부표 3>에서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추적조사 이후 추가된 향후 1년 이내의 병역입대 예정자수와 다음 조사까지 첫 탈락한 자의 수를 표시했다.

<부표 3> 남성의 2007년 조사 시점 연령(출생코호트)별 조사연차별 다음연도 조사까지 처음 패널 탈락하는 자의 수와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인 자의 수: 한국 YP

2007년 조사 시점 연령 (출생코호트)	다음연도 조사까지 처음 패널 탈락하는 자의 수와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인 자의 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처음 탈락	560	561	423	336	174	115	47
15-19세(83-92년생)	344	391	298	273	125	67	18
20-24세(83-87년생)	112	85	67	26	23	18	11
25-29세(78-82년생)	104	85	58	37	26	30	18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	384	51	239	269	170	89	35
15-19세(83-92년생)	336	47	227	264	167	84	34
20-24세(83-87년생)	47	3	12	5	3	5	1
25-29세(78-82년생)	1	1	0	0	0	0	0
입대예정/처음 탈락	68.6	9.1	56.5	80.1	97.7	77.4	74.5
15-19세(83-92년생)	97.7	12.0	76.2	96.7	133.6	125.4	188.9
20-24세(83-87년생)	42.0	3.5	17.9	19.2	13.0	27.8	9.1
25-29세(78-82년생)	1.0	1.2	0.0	0.0	0.0	0.0	0.0
입대예정/남성초과탈락	123.2	16.1	92.4	113.8	139.6	150.0	-752.3
15-19세(83-92년생)	124.3	16.0	99.4	110.3	156.6	169.5	1483.0
20-24세(83-87년생)	96.2	17.4	50.3	176.2	26.1	254.2	-22.8

2007년 조사 시점 연령 (출생코호트)	다음연도 조사까지 처음 패널 탈락하는 자의 수와 1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인 자의 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5-29세(78-82년생)	-13.2	16.1	0.0	0.0	0.0	0.0	0.0
남성초과탈락/처음 탈락	55.7	56.5	61.1	70.3	70.0	51.6	-9.9
15-19세(83-92년생)	78.6	75.0	76.7	87.7	85.3	74.0	12.7
20-24세(83-87년생)	43.6	20.3	35.6	10.9	49.9	10.9	-39.8
25-29세(78-82년생)	-7.3	7.3	11.0	-15.9	14.1	26.0	-14.2
여성 대비 남성 초과탈락수	311.7	316.8	258.6	236.3	121.8	59.3	-4.7
15-19세(83-92년생)	270.4	293.3	228.4	239.4	106.7	49.6	2.3
20-24세(83-87년생)	48.8	17.3	23.9	2.8	11.5	2.0	-4.4
25-29세(78-82년생)	-7.6	6.2	6.4	-5.9	3.7	7.8	-2.6
여성 처음 탈락	246	278	212	136	89	109	110
15-19세(83-92년생)	75	118	107	67	54	66	69
20-24세(83-87년생)	91	104	68	38	19	27	26
25-29세(78-82년생)	80	56	37	31	16	16	15

자료: YP 2007~201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부표 3〉을 보면, 2009년 추적조사에서 1년 이내에 병역입대 예정으로 답한 자의 수가 매우 적지만, 입대예정으로 첫 탈락한 자의 수에 대한 비율은 2008~2009년과 2009~2010년 추적조사에서는 6~70%, 2011~2012년 추적조사 이후에서는 80% 이상이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초과 탈락 해저드로부터 초과 탈락자수를 계산한 결과¹⁴⁵⁾ 입대예정자의 초과 탈락자수에 대한 비율은 2010~2011년까지 90% 이상이고, 2008~2009년과 2011년~2012년 이후는 110%를 넘어섰다. 이것은 24세 이하 남성의 탈락률이 여성이나 25세 이상 남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유가 병역 때문임을 시사한다. 병역의무라는 것이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여지가 없는 것에 반하여, 복무 연령은 선택의 여지가 약간은

145) 여성에 대한 남성의 초과탈락자수는 t년 조사까지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남성×(남성의 탈락 해저드-여성의 탈락 해저드)를 연령별로 계산했다.

있으나 18~21세(특히 19~20세)라는 한정된 연령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에 참가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 요인(unobserved heterogeneity)이 초혼시기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즉 남성의 병역에 따른 패널 탈락 편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⁴⁶⁾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YP의 패널 탈락상황 및 모델 추정에 대한 패널 탈락 바이어스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JGGS나 선행연구(坂本, 2006; Fitzgerald et al., 1998; Lillard & Panis, 1998)가 검증한 데이터와 동등하거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패널 탈락이 모델분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모델의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본 분석에서는 패널 탈락 편이의 존재가 연구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초혼 분석 데이터(JGGS)

일본은 JGGS 데이터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JGGS는 전국 시정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를 모집단으로 층화 2단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별된 15,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방문 회수법’에 따라 제1차 조사가 시작되었다(西岡他, 2005). 2004년 조사 유효 회수수(JGGS2004 코호트)는 9,074명(회수율 60.5%)이었다. 추적조사는 2004년 조사 시 50세 미만이었던 응답자의 경우 2007년 2월~5월에 최초 추적(제2차 조사)이 실시되고, 2004년 조사 시 50세 이상이었던 응답자와 제2차 조사 응답자

146) 다만 남성이 병역에 참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따라서 초혼은 발생하지 않음) 추적조사 기간에는 초혼도 분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를 대상으로 2010년 5월에 2번 째 추적조사(제3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2010년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3번째 추적조사(제4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년에 한 번 추적조사가 시행되어 온 셈이다. 그리고 그 외 탈락으로 인해 특히 청년층 표본수가 적어져서 2007년 7월과 2013년 7월에는 각각 18~34세 489명, 18~39세 1,200명을 남녀 연령계급별 할당 추출에 의한 보충 샘플(JGGS2007 코호트 및 JGGS2013)이 추가되어 각각 추적조사 대상이 되었다.

JGGS는 초혼 및 첫 분가에 관하여 회고적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초혼에 관해서는 2004년 조사 및 보충 샘플의 첫 회 조사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 분께 질문합니다. 첫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초혼 날짜를 물었다. 분가에 관해서는 2007년 추적 조사 및 2013년 보충 조사에서 '귀하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3개월 이상 떨어져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에 대해 '처음 부모님 집을 떠난 것은 귀하가 몇 살 때입니까?'와 같이 첫 분가 연령을 조사하고 있다. JGGS2004 코호트 중 2004년 조사 당시에 50살 이상인 사람은 2007년 추적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2013년 조사에서 '당신은 50살까지 부모와 3개월 이상 떨어져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첫 분가연령을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분석에서는 (1)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미만 남녀 일본인 중 2007년 추적조사 응답자, (2)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이상 남녀 일본인 중 2013년 추적조사 응답자, (3)JGGS2013 코호트의 2013년 조사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¹⁴⁷⁾

147) 2007년 조사 코호트에서는 15세 당시 거주지역 구축에 사용하기 위한 15세가 되기까지의 최장 거주지역 구분을 이용 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부표 4〉 남녀·출생 코호트별 및 조사 코호트별 일본 분석 대상자 수: 일본 JGGS

출생 코호트	남녀총수				남성				여성			
	총수	2004년 코호트		2013년 코호트	총수	2004년 코호트		2013년 코호트	총수	2004년 코호트		2013년 코호트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총계	6,327	3,075	2,052	1,200	2,893	1,304	994	595	3,434	1,771	1,058	605
1934-39년	485	-	485	-	248	-	248	-	237	-	237	-
1940-44년	536	-	536	-	262	-	262	-	274	-	274	-
1945-49년	596	-	596	-	280	-	280	-	316	-	316	-
1950-54년	553	118	435	-	258	54	204	-	295	64	231	-
1955-59년	636	636	-	-	277	277	-	-	359	359	-	-
1960-64년	580	580	-	-	256	256	-	-	324	324	-	-
1965-69년	567	567	-	-	235	235	-	-	332	332	-	-
1970-74년	580	469	-	111	246	195	-	51	334	274	-	60
1975-79년	657	325	-	332	297	139	-	158	360	186	-	174
1980-84년	565	293	-	272	244	111	-	133	321	182	-	139
1985-95년	572	87	-	485	290	37	-	253	282	50	-	232

〈부표 4〉는 일본의 데이터에서 남녀·출생 코호트 분포를 조사하여 코호트별로 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1)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미만 남녀 중 2007년 추적조사 응답자 3,075명, (2)JGGS2004 코호트의 2004년 조사 당시 50세 이상 남녀 중 2013년 추적조사 응답자 2,052명, (3)JGGS2013 코호트 중 2013년 조사응답자 1,200명을 합하면 6,327명이다. 표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1934-39년 출생자(485명)부터 버블경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572명)와 같이 매우 넓은 세대를 균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분석 데이터를 조사 당시 연령별로 보면(부표 5), 18~79세가 포함되지만, JGGS2004 코호트는 2004년 조사 당시의 50세 미만이었을 경우 2007년에 조사가 되었고, 50세 이상은 2013년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 당시 연령 54~58세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남녀 연령분포도 대략 균일하고 일본인의 남녀연령분포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표 5〉 남녀·조사 시점 연령별 조사 코호트별 분석 대상자 수: 일본 JGGS

출생 코호트	남녀총수				남성				여성			
	총수	2004년 코호트 50세 미만	50세 이상	2013년 코호트	총수	2004년 코호트 50세 미만	50세 이상	2013년 코호트	총수	2004년 코호트 50세 미만	50세 이상	2013년 코호트
총계	6,327	3,075	2,052	1,200	2,893	1,304	994	595	3,434	1,771	1,058	605
18-24세	573	264	-	309	274	102	-	172	299	162	-	137
25-29세	545	280	-	265	224	109	-	115	321	171	-	150
30-34세	689	408	-	281	322	177	-	145	367	231	-	136
35-39세	874	529	-	345	389	226	-	163	485	303	-	182
40-44세	576	576	-	-	245	245	-	-	331	331	-	-
45-49세	621	621	-	-	277	277	-	-	344	344	-	-
50-53세	397	397	-	-	168	168	-	-	229	229	-	-
59-64세	630	-	630	-	284	-	284	-	346	-	346	-
65-69세	658	-	658	-	327	-	327	-	331	-	331	-
70-74세	418	-	418	-	203	-	203	-	215	-	215	-
75-79세	346	-	346	-	180	-	180	-	166	-	166	-

JGGS2004는 층화 2단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조사 표본이지만 분석에 사용된 것은 2007년과 2013년 추적조사 결과이므로 패널 탈락 편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표 6〉에서는 출생 코호트별로 〈부표 7〉에서는 2004년 조사 당시 연령별로, 2004년 조사 완료자와 본 분석 대상자 및 2004년 조사 완료자에서 차지하는 분석 대상자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JGGS 추적조사의 탈락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고, 1955~1959년생 또는 2004년 조사 당시 40대일 경우에 가장 낮았으며, 이보다 젊은 코호트나 연장자 코호트의 경우에는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007년 조사나 2013년 추적조사 된 분석 대상에 잔존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4~2007년 추적조사의

탈락률이 가장 높았고, 2007~2010년이나 2010~2013년 추적조사는 초기 추적조사 대상자 중에 차지하는 탈락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부표 6〉 남녀·출생코호트별 2004년 조사 완료자 수와 분석 대상자 및 비율(%): 일본 JGGS

출생 코호트	2004년 조사 완료자			분석 대상자 수 (2004년 코호트)			2004년 조사 완료에 점하는 분석 대상자 수 비율(%)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9,074	4,265	4,809	5,127	2,298	2,829	56.5	53.9	58.8
1934-39년	1,070	557	513	485	248	237	45.3	44.5	46.2
1940-44년	1,045	502	543	536	262	274	51.3	52.2	50.5
1945-49년	1,094	524	570	596	280	316	54.5	53.4	55.4
1950-54년	1,015	495	520	553	258	295	54.5	52.1	56.7
1955-59년	924	421	503	636	277	359	68.8	65.8	71.4
1960-64년	876	401	475	580	256	324	66.2	63.8	68.2
1965-69년	878	391	487	567	235	332	64.6	60.1	68.2
1970-74년	794	358	436	469	195	274	59.1	54.5	62.8
1975-79년	618	279	339	325	139	186	52.6	49.8	54.9
1980-84년	597	257	340	293	111	182	49.1	43.2	53.5
1985-95년	163	80	83	87	37	50	53.4	46.3	60.2

2004년 조사 완료자 9,074명 중 본 분석에 사용된 2004년 코호트는 5,127명(56.5%)이며, 남녀 및 출생 코호트(2004년 조사 당시 연령)별로 보았을 때, 1975년 이후 출생(2004년 조사 당시 20대) 및 최고 연장자인 1930년대 이전 출생(2004년 조사 당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04년 조사 완료자의 50% 이상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탈락률이 높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JGGS2013 코호트의 보충샘플을 추가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남녀 연령별 분포는 대략 균일하며 일본인의 남녀연령별 분포에 가깝게 되어 있다.

〈부표 7〉 남녀·2004년 조사 시점 연령별 2004년 조사 완료자 수와 분석 대상자 및 비율(%): 일본 JGGS

2004년 조사 시점 연령	2004년 조사 완료자			분석 대상자 수 (2004년 코호트)			2004년 조사 완료에 접하는 분석 대상자 수 비율(%)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9,074	4,265	4,809	5,127	2,298	2,829	56.5	53.9	58.8
18-24세	852	379	473	431	168	263	50.6	44.3	55.6
25-29세	650	293	357	343	146	197	52.8	49.8	55.2
30-34세	815	369	446	497	206	291	61.0	55.8	65.2
35-39세	895	395	500	575	241	334	64.2	61.0	66.8
40-44세	868	406	462	585	264	321	67.4	65.0	69.5
45-49세	917	413	504	631	274	357	68.8	66.3	70.8
50-54세	1,092	527	565	572	258	314	52.4	49.0	55.6
55-59세	1,026	500	526	552	272	280	53.8	54.4	53.2
60-64세	1,028	493	535	523	251	272	50.9	50.9	50.8
65-69세	931	490	441	418	218	200	44.9	44.5	45.4

자료: 일본 JGGS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결혼은 이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나 새로운 배우자가 조사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자 추적이 어려운 대표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고, 패널 탈락은 결혼이나 이사, 혹은 부모로부터의 분가와 통계적으로 독립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연구가 많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탈락은 결혼이나 이사와 독립은 아니지만 동시에 모델계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坂本, 2006; Lillard & Panis, 1998). 따라서 여기에서도 패널 탈락이 모델분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모델 구성에 의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심각한 탈락 편의의 존재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 한국과 일본의 상대소득 및 지니계수 도출 방법과 분석 자료

한국 데이터는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and Farm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HES)를 사용한다. 해당 조사의 표본 크기는 매회 총 15,000가구이며,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이하 LIS로 표기)를 통해 개별 데이터를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현재 LIS가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일본 데이터는 <전국소비실태조사>(총무성통계국)의 the National Survey of Income and Expenditure(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Statistics Bureau)이다. <전국소비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전국조사로, 표본 크기는 4만에서 5만 가구이다. 본 분석에서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또한 양국의 사용 데이터는 모두 가계 조사이며,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표본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1인 가구 및 본 연구 대상인 청년층이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를 사용해 본인의 배우 관계와 가구 내 부모 동거에서 ①1인 가구, ②미혼 부모 동거와 같이 2개 유형을 만들고, 20-29세, 30-39세, 40-49세의 각 연령계층에 대한 상대소득 및 가족 유형 내 지니계수를 추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의 정의는 OECD 자료 및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가처분소득을 가구 인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등가가처분소득'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구 구성원수가 다른 가구 간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처분소득이란, 동일 가구의 가구

구성원 전원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것이다.

$$\text{가처분소득} = \text{당초소득(근로수입, 자산수입 등)} + \text{사회보장급여(연금, 아동수당 등)} - \text{소득과세} - \text{사회보험료}$$

한국 데이터의 경우 LIS가 정의한 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의 〈전국소비실태조사〉에서는 연간 수입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해 田中, 四方(2012)의 세금·사회보험료 모델 추산을 사용했다. 이 모델은 소득세,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추산한다. 나아가 각종 공제 및 사회보험료 감세 제도를 반영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각 가구 구성원수가 달라 가구 간 가처분소득을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 규모를 조사해야 한다. 가구 규모 조사에는 등가척도가 사용되는데, 등가척도를 파악하는 방식 중 가처분소득을 가구 구성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 선행연구 및 OECD 보고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므로, 본 장에서도 가구 구성원수의 제곱근으로 조정한 ‘등가가처분소득’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등가가처분소득} = \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 구성원수}}}$$

이것은 공통경비로 인해 다수가 함께 생활할 때 필요한 1인당 소득이 혼자 생활할 때 필요한 소득보다 적어진다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지표이며, 각 가구 구성원이 누리는 경제적 후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구 소득이 기반이지만, 각 가구 구성원의 후생 수준의 소득격차를 계측하는 것이므로 관측되는 단위는 개인 단위가

된다. 여기서 개인 단위란, 예를 들어 생계를 함께 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합계 가처분소득을 $\sqrt{4}$ 로 나눈 등가가처분소득이 요구되며, 4인 각각이 그 등가가처분소득을 가진 개인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또한 LIS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가구 구성원수로 컨트롤하기 전 가처분소득 중위치의 10배 이상인 경우 Top coding을 실시하고, 또 가처분소득이 0 이하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 데이터는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조사된 것이며 일본 데이터는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에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조사기간 및 구간이 상이하지만, 겹치는 기간이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사기간 내 추이를 비교하여, 양국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조사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일본의 경향이 향후 한국의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